

발 표 자 료 집

# 제15차 남북 언어 통합을 위한 국제학술회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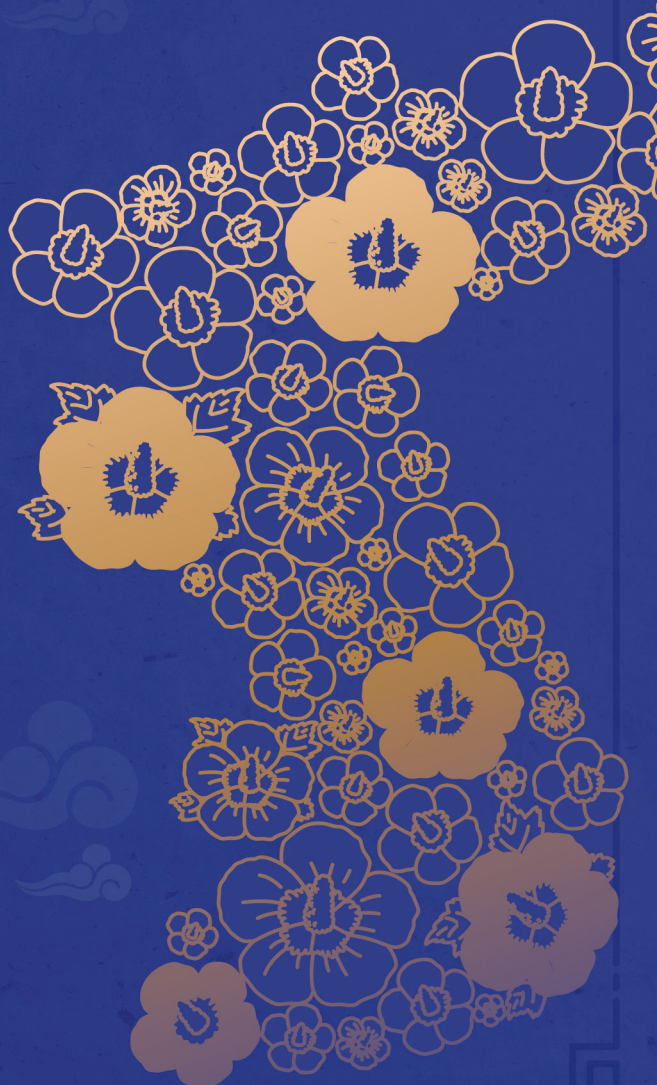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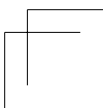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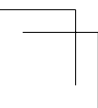
분야별 남북 전문용어  
연구의 현황과 과제

2018년 10월 26일(금)  
국립한글박물관 강당(지하 1층)

주 최  국립국어원

후 원  국립한글박물관





발 표 자 료 집

# 제15차 남북 언어 통합을 위한 국제학술회의

분야별 남북 전문용어  
연구의 현황과 과제

2018년 10월 26일(금)  
국립한글박물관 강당(지하 1층)

주 최  국립국어원

후 원  국립한글박물관



## 환영사



**소강춘**  
국립국어원장

바쁘신 중에도 ‘남북 언어 통합을 위한 국제학술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찾아주신 여러 선생님들과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올해는 여러 모로 남북 관계에서 중대한 변화가 있었던 해입니다. 북측이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하여 양측이 손을 맞잡았고, 정상회담과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우리가 평화로 성큼 나아가고 있음을 세상에 알렸습니다. 각계에서 본격적인 교류의 물꼬가 트이고 있는 지금, 언어는 의사소통의 중요한 열쇠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남북 언어 차이는 특히 전문용어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체육, 음악 등 문화예술에서부터 산업, 경제, 정보통신에 이르기까지 여러 전문 분야에서 본격적인 남북 교류를 진행하면서, 효율적이고 오해 없는 의사소통을 위해 전문용어 통합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남과 북의 언어와 언어문화는 분단된 후 서로 다른 환경에서 각기 다르게 변화하고 발전해 왔지만, 같은 말을 쓴다는 것은 우리 민족을 하나로 묶어 주는 중요한 원동력이 되어 왔습니다. 최근 사회 변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언어가 변하는 속도 또한 급격히 빨라졌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남북 언어의 통합은 우리 민족이 화합하고 소통하기 위해 이루어야 할 중대한 과제입니다.

국립국어원은 1996년부터 한민족의 언어 통합을 위해 남북과 재외동포 학자들의 연구 성과를 나누는 학술회의를 개최해 왔습니다. 안타깝게도 2007년 이후로 북측 학자들은 참석하지 못하고 있으나, 남측과 재외동포 학자들이 참여하여 올해로 제15차 학술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이번 학술회의에서는 ‘남북 전문용어 통합의 현황과 과제’라는 제목으로 국어 뿐만 아니라 행정, 법률, 의학, 건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해 온 남북 전문용어 연구의 현황과 성과를 나누고 여러 분야에서 진행될 남북 교류를 대비한 전문용어 통합의 방향과 과제에 대해 논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학술회의가 앞으로 여러 전문 분야에서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남북 의사소통을 위한 밑거름이 되리라 기대합니다.

발표를 맡아 주신 여러 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학술회의가 우리 한민족의 언어 통합을 이루기 위한 디딤돌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축사



### 성기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제15차 '남북 언어 통합을 위한 국제학술회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오늘 행사를 주최하신 국립국어원의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주제 발표와 토론에 참여해 주신 전문가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지난 70여 년 동안 우리는 분단의 아픔 속에서도 민족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다시 하나가 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 이러한 노력이 비로소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남북 교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려 하는 지금 시점에서, 그리고 좀 더 나아가 통일 시대에 남북이 소통하고 협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분단된 세월 동안 생겨난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며, 이러한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통합 방향을 세우고 실질적인 통합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민족 동질성을 회복하고 화합과 통합으로 나아가기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 중 하나는 언어 통합일 것입니다. 언어는 의사소통의 수단일 뿐만 아니라 지식과 문화, 역사를 전하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통일을 대비해 남북한의 통합 교육과정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해 왔습니다. 이는 그간의 언어와 이념 차이를 극복하고 남북이 함께 열어갈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단 후 양측의 이념, 사회, 문화 차이가 가장 뚜렷하게 드러나는 것은 언어 중에서도 어휘입니다. 따라서 다가올 통일 시대의 교과서와 교과 과정을 개발하는 과정에서도 남북 용어 차이 극복은 핵심적인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각계에서 남북 교류를 위한 준비가 활발한 지금, 한 자리에서 여러 분야의 남북 전문용어 연구 성과를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이번 학술회의는 어느 때보다도 뜻깊습니다. 오늘 열리는 학술회의가 성큼 다가온 통일을 준비하기 위하여 더욱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 행사 개요

행 사 명	제15차 남북 언어 통합을 위한 국제학술회의
주 제	분야별 남북 전문용어 연구의 현황과 과제
일 시	2018. 10. 26.(금)
장 소	국립한글박물관

## 행사 일정

시 간		일 정
10:00		참가자 등록
1부	10:30~11:00	환영사, 축사
	11:10~11:50	기조 강연 주 제   남북 소통을 위한 전문용어 통합의 필요성과 방향 발표자   권재일, 서울대학교
	11:50~12:30	학술 발표 1 및 질의응답 주 제   보건 · 의료 분야의 남북 전문용어 연구 현황과 과제 발표자   김영훈, 고려대학교
12:30~14:00		점심식사
2부	14:00~14:40	학술 발표 2 및 질의응답 주 제   전문용어 한조번역에서 남북 용어의 활용 현황과 향후 과제 발표자   정성희, 중국민족어문번역국
	14:40~15:20	학술 발표 3 및 질의응답 주 제   법률 분야의 남북 전문용어 연구 현황과 과제 발표자   류지성, 한국법제연구원
15:20~15:40		휴식
3부	15:40~16:20	학술 발표 4 및 질의응답 주 제   국어 분야의 남북 전문용어 연구 현황과 과제 발표자   신중진, 한양대학교
	16:20~17:00	학술 발표 5 및 질의응답 주 제   건설 분야 남북 전문용어의 연구 현황과 과제 발표자   송상훈, 토지주택연구원
17:00~17:10		폐회



## 목차

### 제15차 남북 언어 통합을 위한 국제학술회의 분야별 남북 전문용어 연구의 현황과 과제

---

#### [1부]

기조 강연   권재일 (서울대학교)	9
주제 남북 소통을 위한 전문용어 통합의 필요성과 방향	

학술 발표 1   김영훈 (고려대학교)	27
주제 보건 · 의료 분야의 남북 전문용어 연구 현황과 과제	

#### [2부]

학술 발표 2   정성희 (중국민족어문번역국)	31
주제 전문용어 한조번역에서 남북 용어의 활용 현황과 향후 과제	

학술 발표 3   류지성 (한국법제연구원)	43
주제 법률 분야의 남북 전문용어 연구 현황과 과제	


#### [3부]

학술 발표 4   신중진 (한양대학교)	59
주제 국어 분야의 남북 전문용어 연구 현황과 과제	

학술 발표 5   송상훈 (토지주택연구원)	79
주제 건설 분야 남북 전문용어의 연구 현황과 과제	







제15차 남북 언어 통합을 위한 국제학술회의  
분야별 남북 전문용어 연구의 현황과 과제

# 기조 강연

---

**권재일**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명예교수  
한글학회장

남북 소통을 위한  
전문용어 통합의 필요성과 방향



## 남북 소통을 위한 전문용어 통합의 필요성과 방향

- 차 례 -

1. 머리말
2. 남북 언어 차이와 그 극복 방안
3. 남북 전문용어 통합의 필요성
4. 남북 전문용어 통합의 방향
5. 맺음말

### 1. 머리말

남북한은 분단 이후 일상 생활용어로부터 전문용어에 이르기까지 많은 어휘가 달라졌다. 그것은 여러 원인에 근거한 결과이지만 앞으로 남북교류와 남북통일을 앞두고 통합해야 할, 남북 언어 문제에 있어 매우 절실한 과제이다. 그간 남북은 정부 차원에서 또는 민간 차원에서 이러한 어휘 통합에 노력을 기울여 온 바 있다. 그 결과 어느 정도 성과를 이루기도 하였고 또한 아직은 그 성과가 현실화되지 못한 점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 발표는 어휘 통합, 특히 전문용어 통합의 필요성과 앞으로 전개할 방향을 함께 모색해 보고자 한다.

그동안 남북 전문용어의 차이와 통합 방안에 대한 조사와 연구는 남북 언어 통합 과제에서 주요 대상이 되어 왔다. 1990년대에 남북한 컴퓨터 용어를 단일화하기 위한 노력이 전개된 이후(홍윤표·진용옥 1996), 2000년대 들어서는 남북 전문용어에 대한 최기선(2001·2002·2003), 김광수(2004)의 기반 연구에 이어, 남북 언어학 용어 표준화에 대한 기초 연구가 수행되었고(권재일 2006), 남북 체육 용어 단일화를 위한 노력도 있었다(최기호 2008). 그 이후 남북 무역 용어 비교 연구가 이어졌으며(조명철 2008),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의 13개 학문 분야의 남북 용어 비교, 한국표준협회와 정보통신기술협회의 관련 분야 남북 용어 비교, 한국학술진흥재단의 남북학술용어 비교사전 과제 추진 등으로 확대되었다. 특히 국립국어원에서 추진한 남북 교과서 학술용어 비교 연구를 비롯하여(김문오·전수태 2007, 김선철·김건희 2008), 최근 몇 해 동안 언어정책 차원에서 남북 전문용어 표준화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이 모든 것은 남북 전문용어 통합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한 결과라 하겠다.

이 가운데 남북 교과서 학술용어 비교 연구는 남북의 초·중등학교 교과서에서 용어를 직접 뽑아 대조함으로써 실제성과 현장성이 높은 전문용어를 분석한 것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2015년, 2016년, 2017년에 이루어진 남북 전문용어와 관련한 일련의 연구(신중진 외 2015·2016, 국립국어원 2017 등)는 남북

## 주제 | 남북 소통을 위한 전문용어 통합의 필요성과 방향

전문용어 통합의 기준과 지침을 확립하는 데 기여하였다.

이제 이러한 앞선 연구에 바탕을 두고 오늘 발표에서는 남북 전문용어의 현실과 이를 통합해야 하는 필요성을 살펴보고, 구체적인 통합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이에 앞서 먼저 남북 언어의 차이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일반적인 방안부터 살펴보고자 한다.

## 2. 남북 언어 차이와 그 극복 방안

### 2.1. 개관

남북교류가 잦아지면서 우리는 방송 뉴스에서 북한 사람의 말을 듣고는 한다. 남한말과 북한말의 차이가 의사소통이 안 될 정도일까? 그렇지 않다. 상당 부분 남북의 언어 구조는 같고, 얼마간의 어휘 차이가 있을 정도라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다.

다음 글은 북한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 전 소장 문영호 선생이 학술토론회에서 발표한 말을 옮긴 것이다(문영호 2002). 남한말과 얼마나 다를까? 보다시피 의사소통에 지장이 없을 정도이다.

“현시기 언어 분야에서 민족성을 고수하는 문제는 민족어의 고유성과 우수성을 지켜나가는 근본 원칙으로 될 뿐 아니라 민족의 자주성과 존엄을 높이고 북남 사이의 언어적 차이를 줄이는 기본 방도로 됩니다. 우리말과 글의 민족성을 특징짓는 가장 중요한 언어 수단은 우리 겨레가 오랜 옛날부터 창조 발전시켜 온 민족어 유산에 집중적으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민족어 유산이라고 하면 오랜 역사적 기간에 창조 계승하여 온 인민 대중의 언어 문화적 재부를 가리킬 수 있으나 우리는 여기에서 주로 묻혀 있는 입말 원천을 중심에 놓고 론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여 서사어로서는 정리되지 않아 문헌에서도 잘 쓰이지 않거나 국어사전에도 등록되지 않은 입말 형태의 좋은 고유어 원천을 좁은 의미에서 민족어 유산이라고 하기로 합니다. 그러한 민족어 유산 가운데는 방언, 민속어휘, 동식물 이명과 속칭, 현장용어, 사회계층별 생활어, 속어 등 여러 분야의 각이한 지역과 계층에 분포되어 있는 입말 고유어들입니다. 우리는 민족어 유산을 발굴 정리하는 어렵고 방대한 사업을 실속있게 진척시켜 나감으로써 겨레 앞에 지닌 자기의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남북 언어의 달라짐에 대한 개념을 남기심(2002)에서 인용해 보자. 이 글은 2002년 중국 베이징에서 당시 국립국어연구원이 주관하여 개최한 남북 언어 동질성 회복을 위한 국제학술회의에서 남한 대표로 기조 연설한 내용이다.

“예부터 남이나 북에 여러 지역 방언이 있었다. 이런 방언적 차이를 이질화라 할 수 있는가? 동일한 언



어가 지역 간의 교류가 깊음으로써 이질화하여 분화되기에 이르는 것은, 음운 체계의 변화, 문법의 변화로 인하여 어휘의 발음 구조가 달라지고 문장 구성 방법이 달라지고, 어휘 체계도 달라져서 의사소통이 불가능해지는 경우를 말한다. 현재 남북 간에는 의사소통에 지장이 될 정도의 심각한 이질화는 없다. 다시 말하면 현재 남북 간의 언어 사이에는 심각한 음운 체계상의 변화도 없고, 문법상의 차이도 없으며, 어휘 체계상의 차이도 크지 않다.”

그러나 실제 남북은 분단 이후 일상 생활용어로부터 전문용어에 이르기까지 어휘가 차이 나고 한글 표기법도 부분적으로 서로 다르며, 언어문화의 차이로 화법의 특징도 서로 다르다. 남북 어휘의 차이는 주로 광복 이후에 생겨난 말에서 나타나며, 남북의 언어문화 차이로 감사, 요청, 거절, 사과 등과 같은 화법에서 남한은 주로 간접 화법이, 북한은 주로 직접 화법이 쓰여 서로의 대화 방식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해서 나타나는 어려움이 있다.

## 2.2. 남북 언어의 차이

광복 이전 조선어학회(지금의 한글학회)가 1933년에 ‘한글마춤법통일안’을 제정하고, 1937년에 표준말을 사정하여 보급·교육한 결과, 남북은 표준화된 언어 및 문자 체계를 가지게 되었다. 분단 초기에도 남북은 이러한 표준화된 언어 및 표기법을 가졌는데 조선어학회 임원들이 남북으로 흩어져서 동일한 언어정책을 펼쳐 동질성을 유지할 수 있었다. 남한은 문교부 편수국을 책임진 한글학회의 최현배를 중심으로 하여 언어정책을 수립하였고, 북한은 남한에서 조선어학회의 간사장을 맡았던, 1948년 4월 남북 여러 정당 사회단체 연석회의에 참석하러 평양에 갔다가 잔류한, 이극로를 중심으로 하여 언어정책을 펼쳤다. 이렇듯 현재 남북이 분단 70년이 지났음에도 언어 체계의 근본 차이가 없고 표기법 원리가 기본적으로 같은 것은, 분단 이전 일제강점기에 조선어학회가 언어와 표기법을 표준화했다는 점과, 분단 이후 남북의 언어정책을 담당할 학자들이 모두 같은 조선어학회 뿌리 두고 있었다는 점이다.

그런데 분단의 세월이 흘러갈수록 언어 차이가 조금씩 나타나게 되었다. 분단 이후 이러한 남북 언어 차이의 원인은 다음 유형과 같다.

첫째, 북한에서 1966년 이후 김일성 교시에 따라 문화어를 제정하면서 평안방언, 함경방언을 문화어로 삼은 경우이다. 광복 이전부터 남북 언어에는 방언 차이가 존재하였는데 북한의 문화어 가운데 남한말과 서로 다른 경우는 이러한 평안방언이나 함경방언을 문화어로 삼았기 때문이다. ‘채소’에 대한 ‘남새’, ‘거위’에 대한 ‘개사니’, ‘누룽지’에 대한 ‘가마치’, ‘옥수수’에 대한 ‘강냉이’, ‘곶’에 대해 ‘인차’, ‘값이 헐하다’에 대한 ‘값이 늑다’ 등이다.

둘째, 같은 어휘를 남북이 서로 다른 의미로 쓰는 경우이다. 남한에서도 쓰고 있으나 북한에서 남한과 다른 뜻으로 쓰는 어휘는 광복 이후 사회 제도의 차이에서 온 것이다. ‘선동’의 경우, 남한에서는 대단히 부정적인 의미로 쓰나 북한에서는 정책 사업을 잘 수행하도록 부추기고 호소한다는 뜻으로 쓰인다. ‘바쁘다’의

## 주제 | 남북 소통을 위한 전문용어 통합의 필요성과 방향

경우, 일이 많거나 급히 해야 할 일로 겨를이 없다는 뜻도 있지만, 북한에서는 힘에 부치어 참기 어렵다, 매우 딱하다는 뜻으로 자주 쓰인다. ‘일없다’의 경우, 남한에서는 필요 없다는 뜻으로 상대방에 대하여 기분이 상하고 화가 났을 때 쓰는 말이지만, 북한에서는 예사롭게 괜찮다는 뜻으로 쓰인다.

셋째, 분단 이후 남북이 새로 만들어 쓰는 다듬은말과 외래어의 경우이다. 남북 분단 이후에 북한에서 새로 쓰는 어휘에는 다듬은말과 외래어가 있다. 196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된 북한의 말다듬기 사업에 따라 다듬은 ‘서커스’에 대한 ‘교예’, ‘홍수’에 대한 ‘큰물’, ‘혈액순환’에 대한 ‘피돌기’ 등이다. 소련이나 동유럽권에서 외래어를 받아들여 남한과 달라진 외래어, 외국지명의 경우로, ‘컴퓨터-콤퓨터, 로켓-로케트, 루마니아-로므니아, 폴란드-폴스카, 헝가리-웡그리아’ 등이 있다.

### 2.3. 남북 언어 차이의 극복 과제

이와 같은 남북의 언어 차이를 극복하는 것은 통일 시기에서 매우 절실한 과제이다. 언어가 의사소통의 원활한 도구로 기능하지 못한다면, 이로 인해 사회적·문화적 갈등이 일어난다. 실제로 남한 사회에서 북한 이탈주민, 조선족, 고려사람 등 다소 차이 나는 한국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대해 부당한 편견을 가지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진정한 통일 한국 사회를 위해서는 이러한 갈등 상황을 반드시 미리 극복하여야 한다. 남북 언어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쟁점 과제는 다음과 같다.

[1] 일반어휘의 차이 극복: 문법 체계의 차이는 거의 없지만, 일반어휘에서 남북 차이가 존재한다. 남한의 표준어와 북한의 문화어의 차이를 극복하는 문제와 남한에서 불필요하게 남용되는 외래어·외국어를 다듬어 차이를 극복해야 하는 과제이다.

[2] 공공언어의 차이 극복: 정치·경제·사회 등 체제의 차이로 인한 행정용어, 법률용어, 언론용어의 차이를 극복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이 문제는 정치·경제·사회 제도의 통합과 함께 극복해야 할 과제이다.

[3] 전문용어의 차이 극복: 초중등학교 교과서의 각 분야별 교육용 전문용어의 차이를 극복하는 문제와 각 학문 및 산업 영역별 전문용어의 차이를 극복해야 할 과제이다.

[4] 표기법의 차이 극복: 남한의 한글맞춤법과 북한의 표기법의 차이를 극복하는 문제와 외래어 표기법, 한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의 차이를 극복해야 할 과제이다.

[5] 언어문화와 화법의 차이 극복: 언어문화의 차이가 반영된 화법의 차이를 극복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특히 감사, 사과, 거절, 요청 등에 대한 남북의 대화 방식의 차이는 언어생활에서 서로 이해해야 할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6] 언어 정책의 또 다른 쟁점: 언어 교육 방안, 외국어로서 한국어의 보급 방안, 언어 소외계층, 특히 청각장애인 및 시각장애인의 언어에 대한 정책 등은 통일 시기에 새롭게 전개할 언어 정책 과제이다.

남북의 언어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위의 과제 가운데 특히 다음과 같은 문제는 남북 간의 의사소통을 원

활히 하기 위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과제이다.

첫째, 남한 사회에서 외래어, 외국어를 마구 쓰는 것을 줄여가야 할 일이다. 북한의 관점에서 본다면, 남한말에는 최근 수많은 외래어, 외국어가 쓰이고 있어서 남북 언어의 어휘가 차이 나는 원인이 된다. 북한 사람들이 남한에서 의사소통이 어려운 이유로 꼽는 것이 지나친 외래어, 외국어 사용이기도 하다. 그렇게 때문에 남북 언어의 통합, 단일화를 위한 절실한 과제는 바로 남한말에 불필요하게 지나치게 많이 쓰는 외래어, 외국어를 고유어나 쉬운 한자어로 다듬는 일이다.

둘째, 언어문화와 화법 차이에 대해 서로 이해해야 할 일이다. 예를 들어 고마움을 표현하는 사람에 대해 남한 사람들은 마음에 있는 고마움을 전하려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북한 사람들은 아첨하는 사람이라거나 사죄하는 사람과 같이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와 같은 인식으로 북한 사람들은 남한 사람들에 비해 감사 표현을 잘 하지 않는다. 그 결과 북한 사람들은 소소하게 고마운 상황에서도 감사의 표현을 하는 남한 사람들에 대해 쪽스러움도 모르고 대수롭지 않은 일도 말을 많이 하는 가벼운 사람들과 오해할 수 있고, 남한 사람들은 자신이라면 당연히 감사의 말을 해야 할 상황임에도 감사의 말을 하지 않는 북한 사람들이 감사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오해할 수 있다. 따라서 서로의 대화 방식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남북에서 서로 다르게 쓰는 전문용어를 통합하여 표준화해야 할 일이다. 현대 사회는 정보의 사회이다. 정보를 정확하게 받아들일 때만이 현대 사회에 잘 적응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그러한 정보는 해당 분야의 정확한 용어를 통해, 또 이러한 용어를 수록하고 풀이한 전문사전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러나 남북의 전문용어가 서로 다르다면 통일 시기에 문헌이 통일되지 못하고 정보 검색에도 장애가 발생하여 정보 사회로서의 혼란과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삶의 질 역시 하락할 수 있다. 이러한 뜻에서 이제 이러한 남북 전문용어의 통합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 3. 남북 전문용어 통합의 필요성

‘텍스트언어학’과 ‘본문언어학’은 어떠한 관계일까? 이는 text linguistics에 대한 각각 남한과 북한의 언어학 전문용어이다. 남한 학계에서는 영어 그대로 ‘텍스트’를 사용하고 있고 북한 학계에서는 text를 ‘본문’이라는 한자어로 사용하고 있다. 한두 예를 더 들어 보자. ‘코퍼스언어학’과 ‘말뭉치언어학’이 있다. 이는 corpus linguistics에 대한 각각 북한과 남한의 언어학 전문용어이다. 북한 학계에서는 corpus를 그대로 ‘코퍼스’라고 사용하고 있고, 남한 학계에서는 이를 ‘말뭉치’라는 고유어로 사용하고 있다. 또 ‘데이터베이스(DB)’와 ‘자료기지’가 있는데, 이는 database에 대한 각각 남한과 북한의 전문용어이다. 위에서 몇몇 언어학 용어를 들어보았듯이 남북에서 사용하는 전문용어가 서로 다르다.

## 주제 | 남북 소통을 위한 전문용어 통합의 필요성과 방향

### 3.1. 전문용어와 그 분류

전문용어란 ‘특정 분야에서 특정한 사물이나 개념을 지칭하기 위해 정확하게 규정된 과학적 개념과 학술적 내용을 담고 있는 특수 어휘’라 할 수 있다. 전문용어는 일반용어와 구별되는 조어 방식, 의미 특성을 지닌다. 또한 전문용어는 간결성과 정확성의 특징을 지닌다. 이러한 성격을 가진 전문용어는 해당 분야의 학문을 연구하는 도구로서 기능을 수행한다(김광수 2004, 신중진 외 2015).

전문용어는 어휘의 기원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뉜다. 언어학에서 음운론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말소리’와 같은 것은 고유어에 기원한 것이고, ‘음소’는 한자말에, ‘엑센트’는 (서양)외래어에 각각 기원한 것이라 하겠다. 고유어와 한자어, 또는 고유어와 외래어, 한자어와 외래어가 함께 쓰인 것도 있다. 전문용어는 조어 방식에 따라 단일어, 복합어로 나뉘 수 있으며, 복합어는 다시 합성어와 파생어로 나뉜다(권재일 2006 참조).

전문용어의 실제 양상을 남북 모두 가장 규범적인 저서라 할 수 있는 학교문법의 음운론 용어를 대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남한의 학교문법서인 《고등학교 문법》(2002)에 나타난 음운론 용어를 찾아 살펴보면, 모두 94개 용어가 나타난다. 그 가운데 고유어가 32개이며, 한자어가 62개이며, 서양외래어는 하나도 없다. 남한의 학교문법 용어는 이미 오래 전에 한자어 기원으로 통일한 바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한자어 용어가 중심이다. 그러나 다른 분야와는 달리 음운론의 경우는 고유어의 비율이 높은 편으로, 전체의 1/3을 넘어선다. 북한의 학교문법서인 《국어문법》(2001)에 나타난 음운론 용어를 찾아 살펴보면 모두 41개 용어가 나타난다. 그 가운데 고유어가 35개로 압도적이며, 한자어는 6개 나타난다. 아래에 몇몇 예를 들어 대조해 본다.

#### (1) 남북 음운론 용어 대조의 예

낱	낱
자음	자음
모음	모음
음절	소리마디
예사소리	순한소리
단모음	홀모음
된소리	된소리
이중모음	겹모음
거센소리	거센소리
울림소리	울림소리
구개음화	‘지, 치’로 되기



- 또한 전문용어는 그 수준, 또는 용도에 따라 교육용 전문용어와 학술·산업용 전문용어로 나눌 수 있다.
- [1] 교육용 전문용어란 초중등학교의 교육용 교과서를 중심으로 한 교육 현장에서 활용되는 전문용어이다.
  - [2] 학술·산업 전문용어란 학술 전 분야와 산업 현장에서 활용되는 전문용어이다.

한편 최근의 남북 전문용어 통합과 관련한 연구에서는 전문용어를 기초 전문용어와 심화 전문용어로 나누고 있다(신중진 외 2015). 기초 전문용어란 특정 분야의 기초적인 사물이나 개념을 지칭하기 위해 주로 사용하는 용어로 중등교육과정과 교재에서 쓰는 것이라 하며, 심화 전문용어란 특정 분야의 깊이 있는 사물이나 개념을 지칭하기 위해 사용하는 용어로 고등교육과정과 교재에서 쓰이는 것이라 한다.

### 3.2. 남북 전문용어의 차이

남북의 전문용어는 체제와 이념의 차이, 학문 연구와 교육 풍토의 차이, 외부 세계와의 학술 교류의 차이 등으로 말미암아 차이가 나타나게 되었다(권재일 2006).

국립국어원에서 기획하여 연구한 남북 교과서 학술 용어 비교 연구인 김문오·전수태(2007)는 국사, 세계사, 수학, 물리, 화학, 생물, 천문학, 체육 등 8개 분야의 교과서에 나타난 남북의 전문용어를 비교한 연구 결과이고, 이에 이어진 연구 김선철·김건희(2008)은 국어문법, 문학, 기술, 미술, 음악, 지구과학, 국토 지리, 세계 지리, 한문 등 9개 분야의 교과서에 나타난 남북의 전문용어를 비교한 연구 결과이다. 김선철·김건희(2008)의 연구에서 분석하여 제시한 교과서 용어에 대한 통계는 다음과 같다.

#### (2) 남북 교과서 어휘 대조 분석

분야	남한 용어수	북한 용어수	대응쌍 개수	동어쌍 개수	이어쌍 개수	대응쌍 동어비%	대응쌍 이어비%
국어문법	604	262	105	37	68	35.2	64.8
문학	462	229	41	31	10	75.6	24.4
한문	76	75	23	10	13	43.5	56.5
음악	1647	481	158	90	68	57	43
미술	493	257	49	30	19	61.2	38.8
국토지리	1149	478	58	37	21	63.8	36.2
세계지리	678	1104	155	91	64	58.7	41.3
지구과학	1914	580	258	137	121	53.1	46.9
기술	869	1333	116	62	54	53.4	46.6

## 주제 | 남북 소통을 위한 전문용어 통합의 필요성과 방향

실제 예를 국사 교과서, 남한의 《국사》와 북한의 《조선력사》의 경우를 통해 살펴보기로 하자. 남한 교과서에서는 1,040개 용어, 북한 교과서에서는 596개 용어가 대상이 되었다. 대응쌍이 있는 것 가운데서 남북의 용어가 같은 것은 168개 용어이고 차이가 있는 것은 109개 용어이다. 국사 교과서에서는 특히 북한에서 이념이 강하게 반영되어 ‘갑오개혁 / 1894년부르조아개혁’, ‘6·25전쟁 / 조국해방전쟁’, ‘만적의 난 / 개경노비들의 투쟁’, ‘임진왜란 / 임진조국전쟁’, ‘통일신라 / 후기신라’ 등으로 대응된다. 다음 (3)은 용어가 같은 예이고 (4)는 용어가 서로 다른 예이다.

### (3) 남북 국사 교과서의 같은 용어 (168개)

1. 고유어(5)  
무명, 설기떡, 수리취떡, 시루, 움집
2. 한자어(156)  
가야, 간석기, 갑신정변, 금당벽화, 금속활자, 금오신화, 단군신화  
당파싸움, 대도호부, 파한집, 팔만대장경, 평양천도 등
3. 외래어(1)  
카프
4. 고유어+한자(5)  
거북선 등
6. 한자어+외래어(1)  
레닌주의

### (4) 남북 국사 교과서의 서로 다른 용어 (109개)

1. 고유어↔고유어(1)  
고인돌↔고인돌무덤
2. 한자어↔한자어(70)  
6·25전쟁↔조국해방전쟁, 고려청자↔고려비색자기, 광개토대왕릉비↔광개토왕릉비,  
군장국가↔노예 소유자국가, 임술농민봉기↔1862년(전국)농민폭동,  
임오군란↔1885년(임오)군인폭동, 임오군인폭동,  
임진왜란↔임진조국전쟁, 통일신라↔후기신라
3. 외래어↔외래어(3)  
러시아↔로씨야
4. 한자어↔고유어(2)  
토기↔질그릇, 삼국시대↔세나라시기, 왕오천축국전↔다섯개의 천축국에 갔다온 이야기,  
위화도회군↔위화도군사돌림, 한산도대첩↔한산도큰승리

남북이 서로 다른 것은 대개 어문규범의 차이에 의한 것과 말다듬기의 차이에 의한 것이다. 먼저 어문규범의 다름에 따른 차이인데, 두음법칙의 적용 여부에 따른 것 11개, 외래어 표기의 차이에 따른 것 12개이다. 어문규범 차이의 중요한 예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한자어에서는 ‘고령가야 / 고녕가야’, ‘나당연합군 / 라당연합군’, ‘상경용천부 / 상경룡천부’, ‘상정고금예문 / 상정고금례문’, ‘양반 / 량반’, ‘양반전 / 량반전’, ‘여진 / 려진’, ‘여진인 / 려진인’, ‘여진족 / 려진족’, ‘역사유적 / 력사유적’, ‘용비어천가 / 룡비어천가’, ‘유배지 / 류배지’, ‘이두 / 리두’ 등으로 대응된다. 물론 인명에서 두음법칙 적용 여부로 차이가 나는 것도 많다.

외래어에서는 ‘러시아 / 로씨야’, ‘차르러시아 / 짜르로씨야’, ‘우즈베키스탄 / 우즈베키스탄’으로 대응되고 ‘외래어+한자어(남)↔한자어(북)’ 유형에서는 ‘러 · 일전쟁 / 로일전쟁’, ‘메이지유신 / 명치유신’, ‘운요호 / 운양호’, ‘운요호사건 / 운양호사건’ 등으로 대응되며 ‘외래어+한자어(남)↔외래어+한자어(북)’ 유형에서는 ‘헤이그특사사건 / 헤그밀사사건’, ‘미쓰야협정 / 미쯔야협정’, ‘야마토조정 / 야마또왕정’ 등으로 대응된다.

다음은 말다듬기의 차이이다. 남한에서 한자어 용어를 쓰는 사례에 대응해 북한에서는 고유어 용어를 쓰는 사례가 있다. ‘한자어(남)↔고유어(북)’ 유형에서 ‘토기 / 질그릇’, ‘송하보월도 / 달밤에 소나무밑을 거닐며’ 등 2개 용어이다. 그리고 ‘한자어(남)↔고유어+한자어(북)’에서 ‘강서고본 / 강서 세무덤’, ‘노량해전 / 노량바다싸움’, ‘명량해전 / 명량바다싸움’, ‘목판인쇄 / 나무판인쇄’, ‘몽유도원도 / 꿈에 본 동산’, ‘보부상 / 보집장사군’, ‘살수대첩 / 살수싸움’, ‘삼국 시대 / 세나라시기’, ‘석등 / 돌등’, ‘세형동검(細型銅劍) / 좁은뿔단검’, ‘안시성전투 / 안시성싸움’, ‘왕오천축국전 / 왕오천축국전(다섯개의 천축국에 갔다온 이야기)’, ‘위화도회군 / 위화도군사돌림’, ‘장군총 / 장군무덤’, ‘자격루 / 자동물시계’ 등 15개 용어이고, ‘외래어+한자어(남)↔한자어(북)’ 유형에서 ‘러 · 일전쟁 / 로일전쟁’, ‘메이지유신 / 명치유신’, ‘운요호 / 운양호’, ‘운요호 사건 / 운양호사건’ 등 4개 용어이다.

남한에서 한자어 용어를 쓰는 사례에 대응하여 북한에서는 상대적으로 조금 더 쉬운 한자어 용어를 쓰는 사례가 있다. 북한에서는 ‘대첩(大捷)’을 ‘대첩’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대승리’라고 하기도 한다. ‘귀주대첩 / 구주대첩, 구주대승리’, ‘한산도대첩 / 한산대첩, 한산대승리’ 등의 2개 예가 보인다. 북한에서 ‘한자어’ 용어를 쓰는 사례에 대응하여 남한에서는 ‘고유어+한자어’의 합성 용어로 쓰는 사례가 있다. ‘고유어+한자어(남한)↔한자어(북한)’ 유형에서 ‘뎨석기 / 타제석기’, ‘간석기 / 마제석기’ 등의 예가 보인다.

### 3.3. 남북 전문용어 통합의 필요성

통일 시기의 남북 언어 차이, 특히 전문용어의 차이를 극복하고 단일안으로 통합하여 보급 · 교육하는 것은 통일 이후에 통일 국가 국민들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것이다.

남북 전문용어의 차이는 통일 국가의 효율적 운영과 남북 주민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어렵게 할 수 있다. 특히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행정용어가 다를 경우에는 사회 갈등이나 불만이 발생할 수 있으며, 교육 분야의 전문용어가 다를 경우에는 통일 국가 미래 세대의 소통과 공동체 의식 함양에 장애

## 주제 | 남북 소통을 위한 전문용어 통합의 필요성과 방향

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그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사회 비용도 적지 않을 것이다. 통일 국가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들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모든 영역의 전문용어 표준화가 우선적이고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언어의 차이, 전문용어의 차이로 말미암아 남한 주민이든 북한 주민이든 차별을 느끼거나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여, 언어 차이로 인한 남북 갈등과 불만을 극복해야만 진정한 통일을 이룩할 것이다.

### 4. 남북 전문용어 통합의 방향

#### 4.1. 원칙

남북 전문용어를 통합할 때, 또는 그 논의를 전개할 때 미리 전제해 두어야 할 원칙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평화 통일을 전제로 하여 남북의 언어 차이를 서로 존중하는 한편, 일방적으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해야 한다.

둘째, 전문용어 통합에는 언어학적 합리성을 존중하며, 언어생활의 편의성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 4.2. 고려 사항

남북 전문용어 통합할 때, 또는 그 논의를 전개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 이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남북 전문용어의 통합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까지의 성과와 조직을 최대한 활용해야 할 것이다. 그간 남북의 언어정책기관인 국립국어원과 조선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가 학술회의를 통해 어휘 표준화에 대해 학술 토론을 이어 왔으며, 겨레말큰사전편찬위원회가 실제로 남북 어휘 표준화를 실천해 왔다. 따라서 남북 전문용어 통합의 실질적 추진 방식은 겨레말큰사전의 올림말 선정 기준을 따를 수 있을 것이다. 즉, 남북의 대표 사전을 바탕으로 공통적인 것은 그대로 표준화한 어휘로 삼고, 형태나 의미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1] 남한의 어휘로 표준화하거나, [2] 북한의 어휘로 표준화하거나, [3] 제3의 새로운 어휘를 제시하거나, [4] 남한과 북한의 어휘를 함께 쓰는 복수 어휘로 삼는다.

둘째, 남북 전문용어 통합은 연구 단계에 멈춰서는 안 될 것이다. 관련 기구에서 표준화한 성과는 언어 사용자들로 구성된 전문용어 통합 검증단의 검증을 거쳐 확정된 후, 실제 사용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과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 학교에서는 통합안을 적극 교육하고, 언론은



이를 널리 보급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한국어의 동질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국어를 사용하는 국외에도 보급해야 할 것이다. 외국어로서 한국어를 학습하는 외국인, 제2언어로서 한국어를 사용하는 국외동포들에게도 보급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중국 조선족의 《조선말규범집》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권장해야 할 것이다.

셋째, 남북 전문용어 통합안의 정착을 위하여 분야별 남북 전문용어 대조집을 편찬하여, 즉 남한의 전문용어, 북한의 전문용어, 남북의 통합 전문용어를 정리한 대조집을 제작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보급해야 할 것이다. 특히 정보화산업을 바탕으로 인터넷, 스마트기기, 다양한 전자장치 등을 활용하여 검색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일 것이다.

덧붙여, 고려해야 할 매우 중요한 사항 하나는 전문용어는 반드시 분야별 전문성을 고려해야 하는 것이다. 과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일관된 절차로 통합 과제를 수행할 수도 있겠지만, 전문용어의 특성상 분야별 전문성과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 4.3. 추진 단계

남북 전문용어 통합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다음과 같은 세 단계를 설정해야 할 것이다.

#### [제1단계] 통합 구축 단계

- 남북 전문용어 통합을 위한 자료 구축, 법령 및 조직 체계 구축

#### [제2단계] 통합 접근 단계

- 남북 전문용어 통합을 위한 과제 수행 및 이의 교육·보급

#### [제3단계] 통합 정착 단계

- 남북 전문용어 통합안의 수정 및 보완, 언어 통합 정착

남북 전문용어 통합 구축에 앞서 언어 표준 체계 수립을 위한 법령(예: ‘국어기본법’) 등을 정비하고, 필요한 행정 조직(예: ‘국립국어원’, ‘국어심의회’ 등) 및 관련 조직(예: 각 지역의 ‘국어문화원’)을 확대 개편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행정 조직은, 예를 들어, 국립국어원을 언어 표준 체계 통합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정책을 수립하고, 그리고 정책을 집행하는 중심 기구로 하고, 관련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을 것이다.

[제1단계], 통합 구축 단계에서는 기존의 남북 전문용어 실태를 분석하여 보완할 부분을 찾아 분야별 전문용어 통합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 동시에 문어 및 구어 자료 말뭉치를 확대 구축하여 전문용어 통합의 기본 자료로 활용한다.

[제2단계], 통합 접근 단계에서는 남북 전문용어 통합을 위한 과제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보급하

## 주제 | 남북 소통을 위한 전문용어 통합의 필요성과 방향

여 확산해야 할 것이다. 전문용어 통합안의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기관, 상담기관을 마련하여 국민들이 일상 언어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인적자원을 확보한다.

[제3단계], 통합 정착 단계에서는 표준안을 실제 교육, 학술, 산업 현장에서 활용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수정하고 보완한다. 그리고 이를 현장에 지속적으로 반영한다.

### 4.4. 교육용 전문용어 통합을 위한 단계

교육용 전문용어를 통합하는 것은 초중등학교의 교과서 용어를 통합하고 이를 보급·교육하여 교육력을 향상하는 것이다. 교과서 용어를 통합하여 표준화하는 것은 교육 각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통일 한국의 미래를 건설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하여 남북의 초중등학교 교과서를 비교하여 서로 다른 교육용 전문용어를 가려내어 자료를 구축하고, 이를 통합하여 표준화하는 것이다.

[제1단계], 남북의 초중등학교 각종 교과서를 대상으로 서로 다른 교육용 전문용어를 대상으로 남북의 차이를 대조·분석하여 자료를 확보한다.

[제2단계], 남북의 서로 다른 교육용 전문용어를 대상으로 하여, 표준화 방식은 (1) 남한의 어휘로, (2) 북한의 어휘로, (3) 새로운 어휘로, (4) 복수 어휘로 한다. 표준화한 내용은 국어정책가, 국어학자, 교육자, 언론인을 포함한 각계 다양한 인사로 구성된 전문용어 통합 검증단을 통해 검증하여 최종 확정한다. 표준화한 내용은 ‘교육용 전문용어 편수자료집’을 제작하여 각종 교과서 편찬 사업에 반영한다. 아울러 인터넷, 스마트기기, 다양한 전자장치 등을 활용하여 검색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한다.

[제3단계], ‘교육용 전문용어 편수자료집’을 활용한 결과를 바탕으로 수정하고 보완한다. 그리고 이를 각종 교과서 편찬 사업에 지속적으로 반영한다.

### 4.5. 학술·산업 전문용어 통합을 위한 단계

학술·산업 전문용어를 통합하는 것은 관련 학술 분야 내부 소통과 산업발전을 위하여 궁극적으로는 학술 및 산업 현장의 비용을 최소화하고 한국어의 장기적 발전을 향상하는 것이다. 따라서 학술 전 분야 및 산업 현장의 전문용어는 실제 국내외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어야 하며, 분야 간 통용이 가능해야 하며, 한국어 정체성도 유지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남북의 분야별 학술·산업 전문용어를 비교하여 서로 다른 전문용어를 가려내어 자료를 구축하고, 이를 통합하여 표준화하는 것이다.

[제1단계], 각 분야의 학술단체를 통해 서로 다른 전문용어를 대상으로 남북의 차이를 대조·분석하여 자료를 확보한다. 행정, 의학·보건, 정보통신, 경제·금융, 법률, 교육 분야를 우선적으로 추진한다. 다

른 분야는 연차적으로 점차 확대한다.

[제2단계], 남북의 서로 다른 학술·산업 전문용어를 대상으로 하여, 표준화하는 방식은 (1) 남한의 어휘로, (2) 북한의 어휘로, (3) 새로운 어휘로, (4) 복수 어휘로 한다. 표준화한 내용은 국어정책가, 국어학자, 교육자, 언론인을 포함한 각계 다양한 인사로 구성된 전문용어 통합 검증단을 통해 검증하여 최종 확정한다. 표준화한 내용은 분야별로 '학술·산업 전문용어 대조집'을 제작하여 해당 학계와 현장에 제시한다. 아울러 인터넷, 스마트기기, 다양한 전자장치 등을 활용하여 검색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한다.

[제3단계], '학술·산업 전문용어 대조집'을 해당 학계와 현장에서 활용한 결과를 바탕으로 수정하고 보완한다. 그리고 이를 각종 교과서 편찬 사업에 지속적으로 반영한다.

마지막으로 남북 전문용어 통합과 관련한 현실적인 문제 한 가지를 언급하고자 한다. 그 동안 국립국어원을 비롯하여 학술단체총연합회와 민간 학술단체 등에서 남한의 전문용어 정비 사업을 꾸준히 수행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용어 표준화 작업 자체가 복잡하고 또한 전문가들 사이에 의견이 서로 달라 이를 조정하고 통합하는 데에는 무척 어려운 점이 많았다. 이처럼 남한에서조차 전문용어 표준화가 어려운 상황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남북의 전문용어 표준화는 무척 어려운 일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남북 전문용어 통합 정책은 필요성과 현실성을 함께 조화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라 믿는다(강현화 2011 참조).

## 5. 맺음말

지금까지 남북의 전문용어의 현실과 이를 통합해야 하는 필요성을 살펴 보고, 구체적인 통합 방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교육용 전문용어를 통합하는 것은 초중등학교의 교과서 용어를 통합하고 이를 보급·교육하여 교육력을 향상하는 것이다. 이는 교육 각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통일 한국의 미래를 건설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학술·산업 전문용어를 통합하는 것은 관련 학술 분야 내부 소통과 산업발전을 위하고 궁극적으로는 학술 및 산업 현장의 비용을 최소화하고 한국어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통일 시기에 이러한 전문용어를 통합하는 정책이야말로 통일 국가 언어정책에서 대단히 중요한 과제라 믿는다. 국어정책 당국과 학계와 산업 현장에서의 지속적인 관심을 바탕으로 정부로부터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여 실행하기를 간곡히 요청하는 바이다.

끝으로 전문용어의 국어화와 통합의 또 하나의 가치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그것은 바로 사라질지도

## 주제 | 남북 소통을 위한 전문용어 통합의 필요성과 방향

모르는 한국어를 지키는 일이다.

언어학자들은 미래에 언어의 소멸 속도가 급속도로 가속화될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다. 앞으로 300년 이후에는 영어, 중국어, 스페인어만 살아남을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그렇다면 한국어도 절멸할까? 그러나, 한국어는 저 만주어처럼 절멸하지는 않을 것이라 본다. 우리가 국가를 유지하고 정치·경제적으로 안정을 유지하는 한 그러할 것이다.

그렇지만 언어 다양성이 사라지고 정보와 경제가 앞선 국가의 언어를 중심으로 언어 통합이 빠르게 진행되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다면, 저 부탄의 종카어나 필리핀의 타갈로그어처럼 한국어도 가정언어 또는 일상 생활언어에 머물고 교육용 전문용어, 학술·산업 전문용어와 같은 전문언어로서의 지위를 잃어버릴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무엇보다도 한국어를 지키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그 대표적인 노력이 바로 전문용어의 국어화이다.


영어에서 쏟아져 들어오는 전문용어의 국어화를 위한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언어의 절멸 과정이 급속히 일어나는 현 시점에서 한국어 보전을 위해 각 분야의 전문용어를 한국어로 다듬어 보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세계의 많은 언어가 지금 일상 생활용어로만 사용되고 전문용어는 외국어를 그대로 사용함으로써 위상이 낮아지고 사용 범위도 줄어들고 있다. 한국어도 예외가 아니어서 많은 전문용어가 외국어 그대로 쓰이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 한국어를 보전하기 위해 전문용어의 국어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남북 전문용어의 통합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 이제 우리 앞에 다가와 있다.

## 참고 문헌

- 강현화(2011), 《전문용어 표준화 제도 정착 및 활성화 방안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 구현정·권재일·전정미·양수경(2016), 《남북한 의사소통 방식 차이 극복 방안 연구》, 통일준비위원회 정책연구용역 결과보고서, 상명대학교 천안 산학협력단.
- 국립국어연구원(1996), 《컴퓨터 처리 분야 남북한 언어동질화 방안 연구》, 문화관광부.
- 국립국어원(2017), 《2017년 남북언어와 중국조선어 소통을 위한 학술회의 - 남북언어와 중국조선어의 전문용어 표준화 및 어문규범 통합 방안 -》, 국립국어원.
- 권재일(2006), 남북한의 언어학 전문용어 표준화 방안 연구 - 분류 체계 수립을 위하여 -, 《한글》 274, 231-266, 한글학회.
- 권재일(2014), 《남북 언어의 어휘 단일화》,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 권재일(2016), 언어 표준 체계 통합, 미간행.
- 김광수(2004), 《남북한 전문용어 비교 연구》, 도서출판 역락.

- 김문오 · 전수태(2007), 《남북 교과서 학술 용어 비교 연구》, 국립국어원.
- 김선철(2009), 국립국어원의 북한어 연구 현황에 대하여, 《2009년 남북 언어 학술대회 논문집》, 15-23, 국립국어원.
- 김선철 · 김건희(2008), 《남북 교과서 학술 용어 비교 연구 2》, 국립국어원..
- 남기심(2002), 남북 언어의 이질화와 그 극복 방안, 《남북 언어 동질성 회복을 위한 제1차 남북 국제 학술 회의 논문집》, 7-12, 국립국어연구원
- 문영호(2002), 언어의 민족성을 구현하는 것은 우리 말의 통일적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기본방도, 《남북 언어 동질성 회복을 위한 제1차 남북 국제 학술 회의 논문집》, 14-22, 국립국어연구원.
- 신중진 외(2015), 《2015년 남북 기초 전문용어 분석 - 수학 및 자연과학 분야》, 국립국어원.
- 신중진 외(2016), 《2016년 남북 전문용어 구축》, 국립국어원.
- 양수경(2013), 북한이탈주민의 언어 적응 실태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대성 외(2015), 남북 언어 통합 사업의 현황과 과제, 《광복 70주년 기념 겨레말 통합을 위한 국제학술회의 자료집》, 185-210, 국립국어원.
- 이승재(2002), 《남북 언어 순화 자료집 1, - 남과 북이 서로 같게 순화한 용어를 중심으로 -》, 국립국어연구원.
- 이승재(2003), 《남북 언어 순화 자료 협의를 위한 기초 연구》, 국립국어연구원.
- 이찬규 · 양명희 · 임현열 · 최유숙 · 이대성(2014), 《남북 언어통합 종합계획 수립》, 국립국어원.
- 조명철(2008), 《남북한 무역용어 비교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조태린(2017), 통일 시기 남북 전문용어 표준화를 위한 정책 제언, 《2017년 남북언어와 중국조선어 소통을 위한 학술회의 - 남북언어와 중국조선어의 전문용어 표준화 및 어문규범 통합 방안 -》, 33-52, 국립국어원.
- 최기선(2001 · 2002 · 2003), 《전문용어 표준화를 위한 기반 조성》, 문화관광부 · 국립국어연구원.
- 최기호(2008), 《남북 체육 용어 통일을 위한 국제학술회의 결과보고서》, 국립국어원 · 국어단체연합.
- 홍윤표 · 진용옥(1996), 《컴퓨터 처리분야 남북한 언어동질화 방안 연구》, 국어정보학회 · 문화체육부.
- 홍종선 · 최호철(1998), 《남북 언어 통일 방안 연구》, 문화관광부.





제15차 남북 언어 통합을 위한 국제학술회의  
분야별 남북 전문용어 연구의 현황과 과제

# 학술 발표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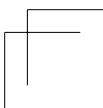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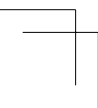
---

**김영훈**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남북보건의료교육재단 운영위원장

**보건 · 의료 분야의  
남북 전문용어 연구 현황과 과제**





## 보건 · 의료 분야의 남북 전문용어 연구 현황과 과제

분단된 조국이 지난 70여 년간 서로 멀어져만 가며 다른 나라가 되고 만 오늘, 그래도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의 끈을 놓지 못하는 그 저변에는 우리는 같은 민족, 같은 언어로 소통할 수 있다는 사실이 크게 기여한다고 본다.

앞으로 미래 한반도의 통일과 공동 평화를 꿈꾸고 준비하는데, 땅과 제도의 통합뿐만 아니라 진정한 사람의 통일이 중요하며 사람과 사람의 통합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 중의 하나가 언어의 이질성을 극복해 나가는 것일 것이다. 지난 70여 년간 각자 다른 길을 걸어온 남과 북의 정치, 문화, 사회, 의료 및 생활방식을 서로 인정하고 깊이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오늘이다. 먼저 서로를 이해하고 자신만의 것을 주장하지 않아야 새로운 미래를 준비해 나갈 수 있다.

이러한 면에서 각 분야에서 쓰이고 있는 언어와 용어의 차이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노력은 앞으로의 통합을 위해 가장 기초적인 작업이 되리라 본다.

의료는 특히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며 미래 건강한 한반도를 준비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분야이다. 의료의 통합이나 교류는 남북 사회와 사람의 통일을 위한 기반을 놓는데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분야이기도 하다.

한반도 건강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의료는 다음과 같은 준비를 해야 한다고 본다.

1. 남한과 북한만의 각자가 아닌 한반도 전체 보건의료의 문제점과 과제를 생각하고 준비해야 한다.
2. 남한의 보건의료 체계를 북한에 확대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통합 의료 체계의 구축을 준비해야 한다.
3. 단순히 보건의료 영역이 아닌 사회, 환경, 경제개발 등 포괄적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
4. 보건의료의 긴급성과 연속성을 고려해야 한다.
5. 남북한 이질적인 용어를 이해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통합을 준비해야 보건의료 통합의 지속성과 사회 확산성이 가능할 것이다. 의학용어는 의료인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일반인들도 널리 쓰고 있으며,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켜 주는 매개체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건의료 분야의 차이나 다름을 이해하고자 할 때는 질병의 패턴, 의료 체계의 구조, 건강지표의 분석, 교육 체계, 인력 현황, 의료시설과 장비의 현황 및 의학 연구의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과 함께 중요한 과정으로 의 · 치의학, 약학, 간호학 및 보건의료 전반에 걸친 용어의 차이를 파악하는 것이다. 용어의 차이에서 오는 혼란은 환자 진료의 현장에서 그대로 표출될 수 있으며 때로는 환자의 생명에도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의학용어의 이질성을 먼저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진행되는 통합 의학용어 사전의 편찬 작업은 미래 건강한 한반도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데에 초석이 될 것이라 믿는다.

- ① 왜, 북한 의료 현황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가?
- ② 보건 의료의 통합을 준비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 ③ 남북 의학용어 사전 편찬이 왜 중요한가?

이러한 노력을 통해 남북 보건의료 분야 동질성을 회복하고 창의적인 남북 보건의료 교류협력의 초석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해 본다.





제15차 남북 언어 통합을 위한 국제학술회의  
분야별 남북 전문용어 연구의 현황과 과제

## 학술 발표 2

---

**정성희**

중국민족어문번역국 역심(譯審)

전문용어 한조번역에서  
남북 용어의 활용 현황과 향후 과제



## 전문용어 한조번역에서 남북 용어의 활용 현황과 향후 과제\*

— 차례 —

1. 한조번역에서 남북 용어 참고의 필요성
2. 전문용어 한조번역에서의 참고 자료
3. 남북 전문용어의 구체적인 활용 상황
4. 향후의 과제

### 1. 한조번역에서 남북 용어 참고의 필요성

중국 조선어는 중국 조선족의 민족언어로서 한국어, 조선어와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다. 1945년 8.15 광복전까지 세계의 모든 조선민족은 다같이 1933년 조선어학회에서 공표한 《한글 맞춤법통일안》과 1936년에 사정한 《조선어 표준말 모음》에 준하여 언어생활을 영위해왔기에 한국어, 조선어, 중국 조선어 사이에는 언어적 차이가 거의 없었다. 하지만 남북의 분단으로 남과 북이 서로 다른 언어정책을 실행하고 한국어, 조선어, 중국 조선어에 대량의 새말이 생겨나면서 언어에 일정한 차이가 생기게 되었다.

중국에서의 조선어는 해방초기부터 계산하면 지금까지 70여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중국에서 조선어의 발전방향을 둘러싸고 처음으로 논의된 것은 1957년 《연변일보》에서의 조선어 순결화에 대한 지상토론이라 할 수 있는데 이 토론에서는 조선어 표준어 체계속에 있는 기존어휘는 그대로 써야 하며 기존어에 없는 새 명사, 술어는 고유어나 우리 말로 굳어진 한자어로 만들어 써야 하며 어려운 한자어휘와 외래어휘는 되도록 알기 쉬운 우리 말로 다듬어 써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그 당시 중국 국내 정치의 “좌”적 편향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출판보도물에서는 조선어의 내적 발달법칙에 맞지 않는 한어차용어가 범람하였다. 1963년에 이르러 주은래 총리가 조선족들은 조선인민들도 알 수 있는 평양표준에 따라 글을 쓰고 말을 하라고 지시하면서 1966년 연변력사언어연구소에서 《조선어 명사, 술어 규범화 잠정방안(초안)》을 작성하였다. 이 초안에서는 조선어 명사, 술어는 조선인민과 우리 나라 조선족이 모두 알 수 있게 하는 원칙에 따라 규범화하되 일부 어휘는 우리의 습관용법에 의하여 규범화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그때까지 중국 조선어는 자체의 규범이 없었던 것으로 조선의 규범을 따랐는 바 어휘사용은 주로 조선의 《조선말사전(1960-1962년)》에 준하였다. 10년동란이 끝난 후 1978년에 이르러서야 동북3성 조선어문사업 제2차실무회의에서 정식으로 《조선어 명사, 술어 규범화 원칙》과 《조선말 명사 술어 규범화의 구체적 방안》을 채택하였다. 이 방안에서는 언어기준을 조선어 기존단어에 두고 새 명사, 술어는

\* 표준어와 중국조선어의 어문 규범 차이로 인한 표기 차이는 그대로 유지함.

## 주제 | 전문용어 한조번역에서 남북 용어의 활용 현황과 향후 과제

기존어휘를 바탕으로 하여 만들어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이에 기초하여 1985년 최초의 《조선말규범집》이 출판되었고 1996년에 《조선말규범집(수정본)》이 출판되었다. 그후 2007년에 《조선말규범집(수정본)》의 부분적 내용을 수정하여 《조선말규범집》을 새로 내왔으며 2016년에는 최근 10여년간 중국 조선어사용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현상에 비추어 《조선말규범집》을 새로 내왔다. 이러한 규범집에서는 중국 조선어 그리고 남과 북의 언어차이를 인정하고 민족화, 대중화, 과학화의 요구에 따라 중국 조선어를 중국 조선족들의 의사교환에 유리할 뿐만 아니라 전체 우리 민족의 의사교환에도 유리한 방향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중국 조선어는 한국어와 조선어를 갈라놓고 고찰할 수 없다.

본고에서 한조번역이란 한어를 중국 조선어로 번역하는 것을 말한다. 한어를 한국어로 번역하는 한한 번역이라면 북측의 조선어를 참고할 필요가 없으며 한어를 조선어로 번역하는 한조번역이라면 한국어를 참고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앞에서도 언급했다 싶이 중국 조선어의 발전력과 민족화, 대중화, 과학화의 요구에 따라 중국 조선어를 중국 조선족들의 의사교환에 유리할 뿐만 아니라 전체 우리 민족의 의사교환에도 유리한 방향으로 발전시킨다는 중국 조선어 발전의 기본원칙에 의하면 한어를 중국 조선어로 번역하는 한조번역에서는 한국어와 조선어의 참조가 필수적이다.

본고에서는 번역실천의 각도에서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와 중국공산당 당대회를 비롯한 회의 문건과 중요 법률, 법규 문서 등 공적 문서의 전문용어 한조번역에서 남북 용어의 활용 현황을 소개하고자 한다. 일반행정은 물론 역사, 법률, 정치, 경제, 사회, 제도, 농업, 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용어를 다룰 것이다.

## 2. 전문용어 한조번역에서의 참고자료

전문용어는 특정분야의 사물이나 개념을 지칭하기 위해 사용하는 용어로서 명료성, 단의성, 일관성을 주요특징으로 한다. 그러므로 전문용어를 번역할 때는 출발어 용어에 대한 전면적이고 체계적이며 명확한 이해에 기초하여 도착어의 언어습관에 맞게 정확하게 옮겨야 한다. 그러자면 많은 자료를 참고해야 하는데 때론 용어 하나를 해결하는데 며칠씩 걸리기도 한다. 하지만 체계적이고 권위적이며 실용적인 참고자료목록을 갖추고 있으면 이러한 수고로움을 덜 수 있다. 한조번역에서 많이 사용하는 참고자료들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 1) 사전, 도서류

#### ◆ 중국의 참고자료

현대한어사전(상무인서관); 사해(상해사서출판사); 중국대백과전서(중국대백과전서출판사); 법률사전



## 학술 발표 2 | 정성희

(중국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 중국소수민족대사전(중국길림교육출판사); 경제학사전(사회과학문헌출판사); 중화인민공화국지명대사전(상무인서관); 외국지명역명수책(상무인서관); 정치학사전(상해사서출판사); 세계인명번역대사전(중국대외번역출판공사) 등이 있다.

조선말규범집(중국조선어사정위원회 2007): 조선말‘4칙’과 조선어 어휘규범이 규정되어있다. 그중 어휘규범에는 조선말 명사, 술어의 규범화원칙; 조선말 명사, 술어 규범화의 구체적 방안; 다듬은 말 처리세칙; 방언어휘사정원칙, 방언어휘사정세칙; 조선말 자연과학기술용어의 규범화원칙; 한어 단어의 조선말표기법; “외국어표기법”통일안; 외래어표기세칙; 외래어표기통일안; 지명표기세칙; 나라(지구) 및 수도(수부)이름 통일안; 조선말 화학원소명 통일안; 외국인명의 조선말표기세칙; 중국 소수민족명칭의 조선말표기세칙; 조선말 명사, 술어 통일안; 기관, 공장, 기업소, 사업소의 조선말명칭통일안; 형법죄명통일안; 체육구령통일안; 축구용어통일안; 외국음악가이름표기통일안이 제시되어있다.

조선말규범집(중국조선어사정위원회 2016): 2007년에 출판된 조선말규범집을 수정, 보충한 것으로 2007년~2015년 명사 술어 통일안과 약기의 조선어명칭이 보충되었으며 부록에 한국과 조선의 맞춤법 합의안, 한국에서 규범화한 한자어, 일본어식 한자어 및 외래어, 한국과 조선의 외래어 합의안, 한국과 조선의 띄어쓰기 합의안이 보충되어있다.

중국민족어문번역국 데이터 베이스: 모택동선집을 비롯한 역대 지도자들의 저서와 량희 및 당대회 문건 그리고 법률, 법규 문서를 포함하여 중국민족어문번역국에서 번역한 거의 모든 자료들을 7개(몽골어, 장어, 위글어, 까자흐어, 이어, 쩡어, 조선어) 어종으로 검색할 수 있다.

중국민족어문번역중심 신어집: 2010년부터 해마다 동북3성의 조선어 관련 언론사, 대학교 등 기관의 책임자, 전문가, 학자 총 30여명이 참가하는 조선어문 신어번역 전문가회의를 개최하고 신조어 한조대역본을 내고 있다.

회의문건 질의응답 합본집: 업무시스템 상 회의문건번역 시 문건기초소조에 질의응답을 요청할 수 있다. 그 질의응답내용을 모아 비정기적으로 합본집을 발간하고 있다.

그 외 한조대역사전으로 한조법률법규집(연변인민출판사); 한조법률용어집전(민족출판사); 중조·조중법률소송용어사전(민족출판사 2008); 한조대역법률문서전본(연변인민출판사)이 있다.

### ◆한국의 참고자료

표준국어대사전을 기본 참고자료로 한다. 그 외 동아세계백과사전; 세계백과대사전; 21세기 정치학대사전; 대법전(법전출판사 2017); 법률용어사전(현암사 2017년 개정판)을 참고한다.

### ◆조선의 참고자료

조선말대사전(2007)을 기본 참고자료로 한다. 그 외 경제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85); 정치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73);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법전(제2판 2012)을 바탕으로 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

## 주제 | 전문용어 한조번역에서 남북 용어의 활용 현황과 향후 과제

물휘집(한조대역)을 참고하며 자료집으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법규집, 조선법령집(1961)을 참고한다.

### 2) 사이트류

#### ◆ 중국어 사이트

전국 과학기술명사 심사결정위원회 <http://www.cnctst.cn>

중국 과학원과 중국 과학기술 위원회의 협력하에 설립되고 국무원의 수권하에 국가를 대표하여 과학기술명사를 심의결정하고 발표하는 기구로 중국과학기술명사사업의 방침, 정책, 원칙, 계획을 제정하고 각 분과의 명사를 심의결정하고 발표하며 응용 및 보급을 책임진다. 국제 전문 용어 기구 그리고 홍콩, 마카오, 대만 관련 기관과의 교류, 연계를 책임지고 과학기술명사술어의 연구와 국내외학술교류활동을 조직한다.

2015년까지 125개 종류의 전문 용어 표준을 발표하였는데 전문 용어에 대응하는 영어가 표기되어있고 어떤 용어는 대응되는 프랑스어, 로씨야어 혹은 기타 언어도 기록되어있기에 활용이 매우 편리하다.

중국술어정보망 <http://www.cnterm.org>

전문 용어 어휘 데이터베이스에서 전문용어 검색이 가능하며 전문용어학과 전문 용어 표준화 관련 정보, 연구 논문 검색이 가능하다.

중국특색담론대외번역표준화술어데이터베이스 <http://210.72.20.108/index/index.jsp>

중국외문국 산하 중국번역연구원의 다언어 전문용어 데이터베이스로 중국특색의 전문용어의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에스빠냐어, 로씨야어, 일본어, 이팔리아어, 뽀르뚜갈어, 아랍어, 한국어 대응어를 검색할 수 있다.

#### ◆ 한국어 사이트

국립국어원 <http://www.korean.go.kr>

한국 법제연구원 <http://www.klri.re.kr/>

한국 법체처 <http://www.law.go.kr/>

매일 경제용어사전 [http://dic.mk.co.kr/dic\\_index.html](http://dic.mk.co.kr/dic_index.html)

그 외 각종 인터넷 포털에서 제공하는 사전 등.

#### ◆ 조선어 사이트

우리민족끼리 <http://www.uriminzokiri.com/>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남과 북의 자료를 비교해 보면 남측의 자료가 훨씬 많다. 정보기술의 발달과 보급으로 인터넷 포털에서 다양한 사진이 제공되고 있고 경제, 문화 그리고 인적 방면의 활발한 교류로 자료 확보와 활용이 용이하다. 특히 국립국어원의 누리집은 그 활용빈도가 높다. 다만 사전별 특히는 웹 사전별로 용어와 그 해석이 통일되지 못해 혼란을 느낄 때가 있다.

중국 조선어는 줄곧 남과 북의 영향을 받으면서 발전해왔는데 한중 수교를 기준으로 한중수교 이전에는 북측의 영향을 크게 받았고 한중수교이후에는 한국어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한조번역에서도 새말을 만들거나 받아들일 때 이전에는 조선말대사전을 비롯하여 북측의 자료를 우선적으로 활용했다. 하지만 한중수교와 더불어 양국간의 정치, 경제, 문화, 과학 등 영역에서의 거래가 밀접해짐에 따라 특히 최근에는 정보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인터넷을 통한 자료 검색과 열람이 용이해지면서 남측의 자료를 더 많이, 우선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 3. 남북 전문용어의 구체적인 활용 상황

대응어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나누어 살펴본다.

본고에서 대응이란 의미의 대응을 말한다. 대응어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자료범위내에서 찾아낼 수 있는 경우를 말하고 찾아낼 수 없는 경우에는 대응어가 없다고 한다. 그러므로 절대적이지 않다.

#### 1) 남과 북에서 같이 쓰는 대응어가 있는 경우

그대로 받아들여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례: 경제제재; 무역장벽; 국제통화기금; 나노공학; 국제금융시장; 국민총생산; 소비자물가; 국제수지; 농산물수매가격; 물가지수; 보호무역주의; 본위화폐; 최저생활비; 최저임금제; 공예작물; 주식시장; 환시장; 생명과학; 예금보험제도.

그러나 중국의 정치, 경제, 문화 생활의 특성에 맞지 않는 것들은 다른 말로 바꾸어 쓴다.

례: 出入境 출입국→출입경

#### 2) 남과 북에서 같은 의미로서 다른 형태로 된 대응어가 있는 경우

례: 자국민불인도(북)-자국민불인도원칙(남); 대외돈자리(북)-해외계좌(남); 팔고사기계약(북)-매매계약(남); 비법점유(북)-불법점유(남); 공민원칙(북)-속민주의원칙(남); 령역원칙(북)-속지주의원칙(남)

이러한 현상은 남북 분단 후 서로 다른 언어정책을 실시하면서 남에서는 국어순화를 진행하고 북에서

## 주제 | 전문용어 한조번역에서 남북 용어의 활용 현황과 향후 과제

는 말다듬기를 진행했으며 각자 새말을 만들고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국어순화와 말다듬기에 의해 달라진 용어는 중국의 《조선말 명사, 술어의 규범화 원칙》의 규정을 기준으로 선택한다.

즉 ‘우리 나라 언어생활의 현실적 요구에 맞고 과학성 있게 잘 다듬어진 말은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구체적 실정에 비추어 과학적 개념이 정밀하지 못한 일부 다듬은 말은 받아들이지 않거나 고쳐 다듬어 쓴다.

몇개의 다듬은 말이 있지만 하나로 고착시키기 어려운 것은 잠시 받아들이지 않고 본래말을 그대로 쓴다.

단어화되지 못하고 해석식으로 풀이되었거나 어색하게 다듬어져 우리 나라 대중들속에서 자리를 잡기 어려운 일부 다듬은 말은 잠시 받아들여 쓰지 않고 본래말을 그대로 쓴다.

다듬은 학술용어가 일반어적인 색채를 띠거나 용어의 체계성을 보장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고 본래말을 그대로 쓴다.’

하지만 새말로서 서로 다르게 만들어졌거나 받아들인 용어의 경우에는 선택의 고민에 빠지게 된다.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있지 않기 때문이다. 실천에서는 둘 다 틀리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각자 나름대로 알아서 택해 쓰고 있다. 그러므로 용어사용이 통일되지 못하고 각 기관별로 차이를 보인다. 필자는 중국 조선족의 언어생활적 요구에 립각하고 전문용어 관련 선행연구와 기존의 전문용어 한조번역경험에 비추어 그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괄한다.

### ①명료성

개념이 분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그 용어만 보고서도 용어의 의미를 류추할 수 있는 용어를 우선적으로 선택한다는 것이다.

례: 局域网 국부망(북)→근거리통신망(남)→근거리통신망; 护岸林 호안림(남)→강기슭보호림(북)→강기슭보호림

### ②단의성

하나의 언어 형식이 하나의 의미를 가지는 용어를 우선적으로 선택한다는 것이다.

례: 基础建设 하부구조건설(북)→기반시설건설, 인프라건설(남)→기반시설건설, 인프라건설; 晶体 정체(북)→결정체(남)→결정체

### ③일관성

개념의 체계와 용어의 체계가 일관된 방식으로 대응되는 용어를 우선적으로 선택한다는 것이다.

례: 개인법인(북)→사법인(남)→사법인; 버림물(북)→폐수(남)→폐수

### ④중립성

비속적이거나 차별성을 띠지 않는 용어를 우선적으로 선택한다는 것이다.

## 학술 발표 2 | 정성희

례: 精神病人刑事责任 정신병자의 형사책임(북)→정신장애인의 형사책임(남)→정신장애인의 형사책임

### ⑤ 친숙성

우리 나라 언어생활의 현실적 요구에 맞고 대중들이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용어를 우선적으로 선택한다는 것이다. 특히 대중에게 널리 알려져 있거나 그전부터 사용하던 용어를 우선적으로 선택한다.

례: 反倾销关税 반투매관세(북)→반덤핑관세(남)→반덤핑관세; 国际妇女节 국제부녀절(북)→국제 여성의 날(남)→국제부녀절; 被告人 피소자(북)→피고인(남)→피고인; 核不扩散条约 핵무기전파방지조약(북)→핵비확산조약(남)→핵비확산조약

### ⑥ 간결성

짧고 간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음절수가 짧은 용어를 긴 용어보다 우선적으로 택한다는 것이다.

례: 越权代理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북)→월권대리(남)→월권대리; 批准逮捕申请书 체포명장발급신청서(북)→체포명장청구서(남)→체포명장청구서

### ⑦ 고유성

외래어나 한자어로 된 용어보다 고유어로 된 용어를 우선적으로 선택한다는 것이다.

례: 流水作业 흐름식생산(북)→컨베이어 시스템(남)→흐름식생산; 工业设计外观专利权 공업도안권(북)→디자인권(남)→공업도안권

그러나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전문용어는 그 기원에 따라 그대로 받아들인다. 례를 들면 石墨稀 그래핀; 云计算 클라우드 컴퓨팅; 勒索病毒 랜섬웨어 바이러스; 国家治理体系 국가거버넌스체계; 深蓝 딥블루 등이 있다.

한자말과 고유어가 뜻이 같으면서도 뜻폭이 꼭같지 않은 경우에는 투명성을 기하여 한자말을 택한다. 례를 들면 伪证罪 거짓진술죄(북)→위증죄(남)→위증죄

동의적 관계를 이루는 외래어용어와 고유어용어가 다 대중 속에 일정한 기초가 있는 것은 두가지를 다 쓸 수 있다. 례를 들면 网页 홈페이지=누리집; 集装箱运输 짐함수송=컨테이너수송 등이 있다.

이상 7가지 기준에서 1부터 4까지는 의미적 층차이고 5-7까지는 형태적 층차로 의미적 층차를 상위에 둔다.

그러나 어느 하나로 가려잡기 어려운 것은 두가지를 다 쓸 수 있다. 례를 들면 호상존중(북)=상호존중(남); 탈류제(북)=탈황제(남); 자국민대우제도(북)=내국민대우제도(남) 등이 있다.

### 3) 남이나 북 어느 한쪽에만 대응어가 있는 경우

대부분 받아들여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중국 조선어의 실정에 부합되지 않는 것은 바꾸어쓴다.

## 주제 | 전문용어 한조번역에서 남북 용어의 활용 현황과 향후 과제

▶ 조선어와 같이 쓰는 용어: 批评与自我批评 비판과 자기비판; 感化教育 감화교양; 个别谈话 개별담화; 经营单位 경영단위; 军民一致 군민일치; 群众路线 군중로선; 党的思想工作 당사상사업; 领导艺术 령도예술; 组织生活 조직생활; 共产党人 공산주의자 등이 있다. 이러한 용어들은 사상, 정치, 제도 등 분야의 용어들이 많다.

▶ 한국어와 같이 쓰는 용어: 固体废弃物 고형폐기물; 扁平化管理 수평화관리; 智库 두뇌집단; 反规避措施 반우회덤핑; 体面劳动 량질의 노동; 创新药物 혁신신약; 无人驾驶 자율주행; 大数据 거대자료, 빅데이터; 金融租赁 금융임대; 主权基金 국부펀드; 宏观审慎政策 거시적신중정책; 话语体系 담론체계; 可及性 접근성; 普惠性金融 포용적 금융; 导航仪 네비게이션, 길도우미; 非物质文化遗产 무형문화유산; 物联网 사물인터넷; 区块链 블록체인 등이 있다. 이러한 용어들은 경제, 사회, 문화, 과학기술 분야의 새말이 대부분이며 세계화의 발전에 따라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용어가 많다. 이런 용어는 복측의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였기에 참고할 래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 ▶ 바꾸어쓰는 용어

官兵一致를 조선어에서는 관병일치라 하지만 중국 조선어에서는 장병일치라고 바꾸어쓰고 있으며 发展党员工作를 조선어에서는 당장성사업이라 하지만 우리는 당원발전사업이라고 바꾸어쓰고 있다.

主要经济体를 한국어에서는 주요경제권으로 쓰고 있지만 중국 조선어에서는 주요경제체라 쓰며 懂事を 리사라 하지만 중국 조선어에서는 동사라고 한다.

### 4) 대응어가 없는 경우:

정치, 경제, 문화의 발전과 더불어 중국에서는 중국 특색의 새 용어들이 대량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면 科学发展观 과학적 발전관; 互联互通 상호 연결; 倒逼机制 역압박기제; 社会主义荣辱观 사회주의영욕관; 共享经济 공유경제; “红船”精神 ‘홍선’정신; 红色旅游 홍색관광; 管治权 관치권; 看齐意识 일치의식; 获得感 획득감; 脱贫攻坚战 빈곤퇴치공략전; 供给侧改革 공급측 개혁; 丝路基金 실크로드기금 등이 있다.

이러한 용어는 앞에서 제시한 7가지를 기준으로 의역하거나 음독, 음차한다.

의역은 경우에 따라 1대1일 대응번역할 수도 있고 축소 또는 확대 번역할 수도 있는데 되도록 음절을 줄여야 한다. 예를 들면 正风肃纪活动 기풍시정 및 기강확립 활동; 看齐意识 일치의식; 多赢 다자간 상생; 小康社会 초요사회; 脱贫攻坚战 빈곤퇴치공략전; 特困人员供养制度 극빈자 급양제도; 孤寡老人 독거로인 등이 있다.

음독은 글자와 용어의 뜻이 두 언어에서 같고 우리말의 한자어체계와 한자어사용습관에 맞아야 한다. 예를 들면 社会主义荣辱观 사회주의영욕관; 一带一路建设 일대일로건설; 一国两制 일국량제; 民族区域自治制度 민족구역자치제도; 三网融合 3망융합; 获得感 획득감; 裸官 라관 등이 있다.



음차는 용어의 기원에 따라 음을 차용해야 한다. 예를 들면 刮痧 과사; 糰粿 참과 등이 있다.

조선족의 언어생활의 현실적 요구와 특징, 전문용어의 특징에 근거하여 남북전문용어 활용의 기준으로 이상의 7가지를 라렬해보았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필자 자신의 미흡한 소견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학자, 전문가 층에서는 서로 다른 견해와 주장을 보이고 있는바 남과 북의 언어가 통일되기 전에는 중국의 조선어사용자들이 계속 고민해야 할 문제다. 그들 중의 일원으로서 필자는 남북의 언어가 하루빨리 통합되기를 바란다.

#### 4. 향후의 과제


언어는 사회적 현상이다. 중국이라는 환경에서 사용되며 한어의 직접적인 영향과 이중언어의 영향하에 발전되어온 중국 조선어는 남북과 다른 자체의 특징을 띠고 있다. 지금까지 중국에서 조선어 전문용어에 대한 연구는 한어의 영향을 받은 용어에 대한 규범화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자연과학기술용어의 규범화원칙과 규범화세칙을 제시해주었다. 하지만 용어학적 각도에서의 연구가 많지 않은 실정이다. 경제, 법률, 체육 등 일부 분야의 전문용어에 대한 통일안은 있으나 체계를 이루지 못했으며 통일 원칙과 기준이 제시되어있지 않다. 그러므로 향후 중국 조선어 전문용어에 대한 연구는 새말을 중심으로 분야별 전문용어를 수집하고 그 특징을 분석하고 개괄하여 분야별 통일 원칙과 기준을 내오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이는 남북 전문용어통합기준의 제정에도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 문헌

- 김영수(2018), 중국의 조선어규범화사업에 대한 고찰과 소견, 《국제고려학》 제17호.  
최윤갑(1994), 《중국 조선 한국에서의 조선어차이에 대한 연구》, 연변인민출판사.  
중국조선어사정위원회(2016), 《조선말규범집》, 연변교육출판사.  
신중진(2015), 《2015년 남북 기초 전문용어 분석(수학 및 자연과학 분야)》, 국립국어연구원 11-1371028-000583-01.  
조은경(2001), 전문용어의 어휘형태적 특성연구, 《국어정보학》 2001. 2., 연세대학교 대학원.  
권재일(2014), 《남북 언어의 어휘 단일화》,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제15차 남북 언어 통합을 위한 국제학술회의  
분야별 남북 전문용어 연구의 현황과 과제

## 학술 발표 3

---

류지성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법률 분야의  
남북 전문용어 연구 현황과 과제



## 법률 분야의 남북 전문용어 연구 현황과 과제

— 차례 —

1. 들어가며
2. 북한 법령용어의 분석
3. 남북 언어통합 관련 법제
4. 법령용어 통합을 위한 교류협력
5. 향후의 과제

### 1. 들어가며

본 발표는 남북한의 법문(法文)을 구성하는 법령용어의 개념, 용례 등을 분석하여 남한의 법령용어와 북한의 법률용어를 비교하여 남북한 언어 통합에 있어 법령용어의 통합방법에 관하여 미리 예측하고 제안하고자 하는 작은 시도이다. 북한의 법령용어를 분석하는 것은 남북교류협력의 시대 및 통일시대를 대비하여 북한의 현행법을 파악하여 북한 사회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미래 남북한 간의 법문화 및 법체제의 갈등을 최소화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남북 주민의 기본권 보장 내지는 강화에 기여하기 위함이다.<sup>1)</sup>

이를 기초로 남북한의 교류협력과 통합을 위해 상호 이해를 증진할 수 있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가운데 4대 전략은 남북 관계의 법제화인바, 이러한 맥락에서 본다면 남북이 합의한 사항에 관하여 상호 간에 국내법적 절차를 거치도록 약속하는 과정이 있을 것이다. 그러한 과정은 첫째, 남북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에서 시작하여 둘째, 남북한이 각각 국내법적 절차에 입각하여 남북합의를 법제화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원만한 남북합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북한 법령용어의 특징을 알아야 하고 그 위에 남한과의 비교, 향후 통합 단계의 모습을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sup>2)</sup> 그러나 필자의 연구역량의 부족으로 이러한 중요성 있는 법령용어의 통합상을 가늠하는 것은 매우 힘든 작업이다. 차후에 이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를 약속하면서 본 발제에서는 북한법령용어에 대한 소개와 그에 대한 국내의 연구의 현황을 검토하여 향후 법령용어 통합상을 전망하는 데에 주안을 두어 발제하고자 한다.

1) 같은 취지로 “북한법제의 법문장을 구성하고 있는 법률용어는 북한사회의 언어습관과 습속 그리고 정치·경제·사회적 현실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북한법제연구와 통합 내지 통일지향성의 목적달성에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고 한다. 박상철 외 《北韓法律用語의 分析(憲法編)》, 한국법제연구원, 1995년, 11면.

2) 윤관석 의원실 주최, 한반도 신경제 구상 실현을 위한 법·제도 개선 토론회, 김미숙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주택연구원 북한연구센터장은 “남북 법률 용어의 개념 차이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남북 법률 용어 현황을 파악하고 정비해야 한다”면서 “북한은 개정된 법률을 공개할 때 전문을 교체해 개정 내용을 알기 쉽지 않은데, 북한 법의 개정 전후를 비교할 수 있게 하고 이를 데이터베이스화해 제공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출처: 세계일보 <http://www.segye.com/newsView/20180922000705>. 최종검색일: 2018. 9. 27.

## 2. 북한 법령용어의 분석

### 2.1. 북한법령용어 분석의 의의

그 사회를 보고자 한다면 그 나라의 법을 보면 된다고 할 정도로 법은 그 사회의 대부분의 지표로서 기능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법령용어는 단순한 정치, 학술, 언론, 생활에서 사용되는 일상용어와는 달리 법규범성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강한 논리적 정합성과 명확성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 특수성이 있다.

북한 언어와 북한법령용어는 일정 부분 연관성을 갖고 있을 것이나 북한법령용어에 대한 정확한 개념, 법적 성격과 효력, 용례를 분석하여 남한의 그것과 비교하는 것은 북한법제를 통해 북한 사회를 이해하는 데에 깊이 관여하게 된다. 따라서 북한법령용어가 어떠한 특징을 갖는지 살펴보는 것은 북한 사회의 전체적인 체계와 시스템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 2.2. 북한의 법령용어 관련 자료 현황

북한법령용어와 관련한 북한 자료로는 2004년에 처음으로 발간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전(대중용)》(평양: 법률출판사, 2004)을 비롯하여 《법학사전》(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1), 《민사법사전》(평양: 사회안전부 출판사, 1997), 《국제법사전》(평양: 사회과학출판사, 2002), 《재정금융사전》(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5) 등이 있다.

남한에서는 지금까지 북한법령용어에 대한 연구로서 한국법제연구원이 발간한 《북한법률용어의 분석》(1~5)을 비롯하여 《북한법률용어의 분석》(헌법편, 형사법편, 민사법편, 상사 및 대외경제개방방법제편) 등의 4권이 있으며, 2017년에 한국법제연구원이 최근의 추세를 반영해 출간한 《북한법령용어사전》 정도를 꼽을 수 있다.

정부 차원에서는 법무부가 2016년에 《남북법률용어 비교자료집》을 간행하였는데 여기서는 남북이 서로 다르게 사용하는 법률용어 157개를 11개의 장으로 분류하여 깊이 있는 비교와 분석을 가하였다.

### 2.3. 북한법령용어의 특징

#### (1) 두음법칙

북한법령용어의 특징은 북한어(조선어) 표기를 그대로 따른다. 따라서 두음법칙을 인정하지 않는 북한

### 학술 발표 3 | 류지성

의 언어법칙이 법령용어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가령, 영토는 ‘령토’로 영해는 ‘령해’로 노동은 ‘로동’으로 표기되는 것이다. 이러한 법령용어상의 차이는 굳이 법령용어의 통합 작업이 아니라도 국어통합에 따라 순조롭게 통합이 가능한 부분으로 보인다.

#### (2) 법령용어의 일상어화

남한의 경우 법령용어나 법령문은 법규범을 함축하거나 문장화한 것이므로 문학작품이나 학술서 등에 비추어 그 의미나 문장구조에 있어서 논리성, 추상성, 간결성, 명확성, 유형성 등 많은 특색을 갖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북한 법령용어의 경우 이와는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즉 일상용어가 길게 법령용어로 그대로 묻어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sup>3)</sup> 물론 우리의 경우 법령용어의 추상적, 복잡성 등 한글로는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표현이 많다는 점은 일반인들로 하여금 늘 난해한 별개의 언어로서, 받아들일 수도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없는 문제의 언어였다는 측면은 부인하기 어렵다고 생각된다.

#### (3) 이데올로기성

북한법령용어는 체제유지를 위하여 자기 체제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경향이 강하다. ‘영광스러운 혁명 투쟁’,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 ‘붉은기쟁취운동’, ‘위대한 주체사상’, ‘혁명의 꽃’, ‘숨은 영웅들’, ‘조국 통일의 위업’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sup>4)</sup>

가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2012)의 서문을 보면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는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위업을 받들어 우리 공화국을 김일성동지의 국가로 강화발전시키시고 민족의 존엄과 국력을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우신 절세의 애국가, 사회주의조선의 수호자이시다.”라든가 “김정일동지께서는 세계사회주의체계의 붕괴와 제국주의련합세력의 악랄한 반공화국압살공세속에서 선군정치로 김일성동지의 고귀한 유산한 사회주의전취물을 영예롭게 수호하시고 우리 조국을 불패의 정치사상강국, 핵보유국, 무적의 군사강국으로 전변시키시였으며 강성국가건설의 휘황한 대통로를 열어놓으시였다.”와 같은 표현에서 이데올로기적 표현, 체제선전성을 읽을 수 있다.

#### (4) 적개심 유발적 표현

체제유지와 관련하여 적개심을 유발하는 표현이 관련되는데, 구체적으로는 ‘적대분자’, ‘계급적 원쑤’, ‘미제’, ‘살인마’ 등과 같은 표현은 적개심을 유발하여 규범의 수범자로 하여금 비판의 대상을 정당화하는 역할을 한다. 남한 법령용어에서 전혀 사용되지 않는 용어들이다.

1) 박상철 외, 《北韓法律用語의 分析(1)-憲法編-》, 한국법제연구원, 1995년, 15면.

2) 위의 책, 15면.

## 주제 | 법률 분야의 남북 전문용어 연구 현황과 과제

### (5) 우상화 표현의 빈발

이 또한 체제유지와 관련되는 것인데 김일성, 김정일에 대한 우상화 표현이 빈발하고 있다. 가장 먼저 헌법 서문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구현한 주체의 사회주의조국이다.”(2012), “위대한 김일성동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자이시며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시다.”로 표현하여 최고 규범에서부터 왕국과 같은 수준의 절대권한을 정당화한다. 기본적으로 김일성은 위대한 수령으로 김정일은 위대한 령도자로 표현하는 경우가 다수이다.

이러한 용어나 표현은 대한민국 헌법 제1조에서 말하는 민주공화국, 국민주권 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서 법령용어통합의 걸림돌로 작용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 2.4. 북한법령용어의 사용 예시

### (1) 정체성을 나타낸 표현-헌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2012 및 2013) 제1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체 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국가이다.”, 제2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제국주의침략자들을 반대하며 조국의 광복과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실현하기 위한 영광스러운 혁명투쟁에서 이룩한 빛나는 전통을 이어받은 혁명적인 국가이다.”라고 규정한 것을 볼 수 있다. 여기서 우리와 다른 용어는 ‘이익’을 ‘리익’으로, ‘혁명’이나 ‘투쟁’과 같은 계급투쟁적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인데 남한에서 절대 법문(法文)으로 사용하지 않는 용어이다. 이는 제국주의 ‘침략자’와 같은 적개, 분노의 표현 또한 마찬가지이다. 나머지 표현들은 국가의 정체성과 방향성을 나타내는 특징을 갖는 헌법이기에 선언적 의미에서 사용하는 부분은 다른 국가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렇다면 다른 법률의 표현을 보자.

### (2) 국민에 대한 행정적 처벌-행정처벌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제15조(늙은이, 어린이보호책임회피행위)는 “늙은이, 어린이 또는 로동능력이 없는 사람을 보호할 의무를 지닌자가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는 3개월이하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노인’으로 표현하는 우리와 달리 ‘늙은이’로 표현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사회적 물의’라는 표현은 벌칙을 가하는 규정의 경우 매우 구체적인 표현을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용되는데 사회적 물의의 구체적 형태, 범위 등에 대한 규정은 있기 어렵다. 이런 부분은 법령용어의 통합이 모색될 부분이 아니라 법령용어로서 사용이 금지되어야 하는 부분이다. 이러한 규정은 동법의 이하 제216조, 제222조에서도 나타난다.



### 학술 발표 3 | 류지성

제216조(부모, 시부모, 계자녀학대궤시행위) 부모, 시부모, 계자녀를 학대궤시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에게는 3개월이하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제222조(사회주의생활양식을 어긴 행위) 옷차림과 몸차림을 사회주의생활양식에 맞지 않게 하고 다닌 자에게는 벌금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사회적 물의뿐만 아니라 생활양식에 관하여 법에 규정하여 벌칙을 부과하는 것은 법령용어의 통합 이전에 이미 우리 헌법정신에 어긋나는 기본권 침해 영역으로 볼 수 있다. 옷차림, 몸차림을 법령용어로 통합하기에도 어렵지만 법률 속에서 애초에 규율될 수 없는 용어에 해당한다. 또한 본문 이하 단서 규정에서 “정상이 무거운 경우”를 규정하는데 우리식으로는 양형의 기준으로 제시하는 문구에 해당하는데 ‘정상참작’과 같은 우리식의 표현이 가능하다. 마찬가지로 양자를 계자녀로 표현한 부분은 어느 쪽으로든 통합이 가능하다고 보인다.

중개행위에 대한 문구는 거간행위로 표현하는데 거간행위가 우리식으로 풀어서 보자면 중개인지 확실하지 않다. 행정처벌법 제225조의 내용을 보면 중개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확실하지는 않은데 이러한 경우의 표현은 구체적인 입법 취지를 확인하여 통합을 진행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제225조(거간행위) 거간행위를 하여 부당리득을 얻는 자에게는 벌금 또는 3개월이하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 (3) 추상적 처벌표현-형법

형법은 2009년에 제27조 제7호에서 벌금형을 신설하였는데 형의 순서는 사형, 무기로동교화형, 유기로동교화형, 로동단련형, 선거권박탈형, 재산몰수형, 벌금형, 자격박탈형, 자격정지형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자본주의적 요소가 법문에 진입하는 중대한 변화로 볼 수 있으며 향후의 북한 입법 또한 이러한 방향으로의 보편화가 예상된다.

그러나 형법 제62조는 조국반역죄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규정이 여전히 존재한다.

제62조(조국반역죄) 공민이 조국을 배반하고 다른 나라로 도망쳤거나 투항, 변절하였거나 비밀을 넘겨준 조국반역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주제 | 법률 분야의 남북 전문용어 연구 현황과 과제

배반이라는 표현의 추상성에 따라 형법에서 규정되어서는 안 되는 표현인데 이는 본문에서 ‘변절’과 같은 표현에서 다시 반복된다. 이러한 표현은 북한으로서는 체제 단속용으로 필요한 영역이 되겠으나 우리 식의 법치주의 속에서는 양심의 자유라는 기본권 보장 관점에서도 법문에 수용될 수 없는 표현이라 하겠다. 법령용어의 통합에 있어서 단순히 기술적으로 용어의 매칭을 넘어 법제정비가 함께 필요한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 (4) 한글을 풀어서 표현-소방법, 재정법

한편, 한글을 그대로 풀어서 사용하는 경우로서 소방법은 ‘불끄기’라고 규정하는데 우리의 경우 불끄기 대신에 ‘소화(消火)’라는 한자어를 사용한다. 이러한 현상은 대부분의 법률에서 나타나는데 재정법은 국가재정을 “나라살림살이”로 표현한다.

우리의 경우 한자어를 사용하는 편이 보다 명확한 의미를 전달할 수 있다는 전제 아래에서 법문에 한자어를 매우 많이 사용하다가 최근에는 누구나 알기 쉬운 표현, 국어를 사용하고자 하는 노력 중에 있다.

북한법의 경우 ‘소화’를 ‘불끄기’로, ‘국가재정’을 ‘나라살림살이’로 표현하여 알기 쉽게 규정하고 있지만 한자어를 사용할 것인지 국어를 알기 쉽게 풀어서 사용할 것인지 명확한 구별 기준이 필요하다. 남북한 어느 쪽을 개정하든 법령용어 정비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법제처의 경우 어려운 법령용어를 알기 쉬운 한글로 바꾸기 위해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사업을 추진하여 민법의 일본식 한자어 표현을 한글로 바꾼 민법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었으나 국회에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험을 갖고 있다.

소방법(2005) 제3조(불끄기사업원칙) 불끄기는 화재로부터 국가재산과 국민의 생명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

재정법(2007) 제1조(재정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재정법은 재정의 기능과 역할을 높여 나라살림살이에 필요한 화폐자금을 계획적으로 마련하고 통일적으로 분배, 리용하는데 이바지 한다.

### (5) 국민의 사생활에 관한 개입-민법, 가족법

국민의 사적 생활에 관한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민법에 있어서도 북한은 깊은 개입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가령 제6조는 국가의 간섭에 대한 근거를 설정하고 가족법 제9조의 경우는 혼인에 대하여 국가에 대한 선의무를 강조한다.

민법(2007) 제6조(인민의 복리증진원칙) 인민들의 생활을 책임지고 돌보는 것은 사회주의국가의 본성적 요구이다. 국가는 기관, 기업소, 단체가 공민과 재산관계를 설정하고 실현하는 데서 인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시책이 근로자들에게 더 잘 미치도록 하는 데 깊은 관심을 돌린다.

가족법(2007) 제9조(결혼년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결혼은 남자 18살, 여자 17살부터 할 수 있다. 국가는 청년들이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보람있게 일한 다음 결혼하는 사회적 기풍을 장려한다.

### 3. 남북 언어통합 관련 법제

#### 3.1. 국어기본법

##### (1) 제정의 의의

남북언어 통합과 관련한 법률로서 거론할 수 있는 것은 우선 우리의 국어기본법이 있다.

국어기본법은 2005년 1월 제정 당시 “세계화·정보화·문화의 시대인 21세기에 언어는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문화자원으로 널리 인식되고 있으나 그동안 국어에 관한 법적 제도가 미비하여 국어의 발전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왔”으며 “이에 국어정책의 수립·시행,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 국어의 국외 보급 및 국어정보화 등을 통한 국어의 보전과 발전의 기틀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창조적인 사고력을 증진하고 민족문화의 창달에 기여”하려는 취지에서 제정되어 현재까지 6차례의 개정을 거쳐 왔다.(타법 개정 제외)

이 법률은 국어 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국민의 창조적 사고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고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제1조)

## 주제 | 법률 분야의 남북 전문용어 연구 현황과 과제

### (2) 국어기본법의 법체제와 주요 내용

장	조	제목	내용
1 총칙	1	목적	법제정의 목적
	2	기본 이념	국어가 민족 제일의 문화유산임을 선언
	3	정의	국어, 한글, 어문규범, 국어능력에 대한 정의
	4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언어사용 환경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
	5	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어기본법이 기본법임을 근거
2 국어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등	6	국어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문화체육부장관의 기본계획 수립 의무
	7	시행계획의 수립 등	문화체육부장관의 시행계획 수립 의무
	8	보고	정부의 시행결과 국회보고 의무
	9	실태조사	국민의 국어능력, 국어의식, 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
	10	국어책임관의 지정	국가와 지자체의 국어책임관의 지정 근거
3 국어 사용의 촉진 및 보급	11	어문규범의 제정 등	문화체육부장관의 어문규범 제정, 개정 의무
	12	어문규범의 영향평가	문화체육부장관의 어문규범 영향평가 정책 반영
	13	국어심의회	국어심의회의 설치 근거, 심의사항 규정
	14	공문서의 작성	공문서작성의 국어사용 의무
	15	국어문화의 확산	올바른 국어사용을 위한 시책을 시행
	16	국어 정보화의 촉진	문화체육부장관의 국어정보화 사업 시행 의무
	17	전문용어의 표준화	국가의 각 분야별 전문용어 표준화, 체계화, 보급 의무 및 전문용어의 표준화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에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설치 근거 마련
	18	교과용 도서의 어문규범 준수	교과서의 어문규범 준수 의무
	19	국어의 보급 등	국가의 외국인, 재외동포에 대한 국어보급 의무
	19조의2	세종학당재단 설립 등	세종학당재단 설립 근거, 재단의 형태 및 사업내용
	20	한글날	한글날의 법적 근거
	21	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국어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
4 국어능력의 향상	22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정책 등	국가와 지자체의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정책 수립 의무
	23	국어능력의 검정	국어능력검정의 법적 근거 마련
	24	국어문화원의 지정 등	문화체육부장관의 국어문화원 지정권, 국어문화원 경비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
5 보칙	25	협의	중앙행정기관장의 국어 관련 법령 제·개정 시 문화체육부장관과 협의 의무
	26	청문	국어문화원 지정 취소의 경우 청문을 거칠 의무
	27	권한의 위임·위탁	문화체육부장관의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등에 대한 권한 위임·위탁

#### (3) 평가

상기와 같은 중요한 의의에 따라 제정된 국어기본법은 남북법령용어 등의 통합에 있어서는 몇 가지 개선점이 필요하다.

우선 법 제3조 제1호에서 ‘국어’란 북한이 아닌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어, 법률의 문언적 해석상 대한민국이 아닌 북한 언어가 우리 언어에서 제외되고 있는 부분은 북한 언어도 우리의 영토 내에서 사용하지 않으나 우리 민족의 언어라는 토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는 것이다. 이는 제1조의 제정목적 “민족문화의 발전”을 위하여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북한에서 사용하는 언어에 대해서도 우리의 국어 내지 언어임을 선언적으로 규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남북언어통합의 법률적 근거를 보다 확고히 마련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따라서 법률분야를 비롯한 전문분야의 용어 통합에 있어서 우선 국어기본법상의 적용범위, 국어의 정의가 새롭게 이루어져야만 하고 관련하여 다른 조항의 내용도 언어통합의 근거와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의 추가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보인다.

전반적으로 이 법률에는 남북언어통합, 북한 언어의 연구나 이해 등에 대한 토양을 전혀 확보하지 못한 채 남한의 국어만을 중심으로 하는 법체계를 갖추고 있는 것이다.

### 3.2. 겨레말큰사전 편찬위원회법

#### (1) 배경

겨레말큰사전 편찬위원회는 2004년 4월 남한의 통일맞이와 북한의 민족화해협의회 간의 사전 편찬 의향서 체결로 시작되어 동년 12월에 《겨레말큰사전》 편찬합의서와 부속합의서가 체결되었다. 이후 2006년 1월에는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가 설립되었고 2007년 4월에는 법률이 제정되기에 이르렀다. 2005년 2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남북공동편찬회의는 20회, 남북공동집필회의 총 4회 개최되면서 2016년 1월 남북공동회의가 중단되기까지 25차례에 걸쳐 남북공동편찬회의가 개최되었다.

#### (2) 겨레말큰사전 편찬위원회법의 법체계와 주요 내용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이하, ‘겨레말사업법’)은 겨레말을 남한과 북한이 공동으로 채집·연구하고 겨레말큰사전을 편찬함으로써 남과 북이 각각 사용하는 말과 글의 통일에 이바지함을 목적(제1조)으로 2007년 4월 27일에 시행되었으며 2011년, 2013년 두 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다.(타법 개정 미포함)

## 주제 | 법률 분야의 남북 전문용어 연구 현황과 과제

조	제목	주요 내용
1	목적	법률의 목적 규정
2	정의	거래말, 거래말큰사전의 정의
3	법인격	편찬사업회의 법인격
4	설립	편찬사업회의 설립등기에 관한 사항
5	정관	편찬사업회의 정관사항
6	사업	편찬사업회의 사업내용
7	임원	임원의 구성사항
8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규정
9	임원의 직무	이사장, 감사
10	임원의 결격사유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자 등 결격사유 규정
11	이사회	이사회의 구성
12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의 심의·의결사항
13	남측편찬위원회	남측편찬위원회의 구성
14	사무처	사무처의 조직 근거
15	보조금 및 출연	국가, 지자체의 경비보조 근거규정, 개인·법인 또는 단체의 재산출연, 기부 근거
16	회계연도	정부의 회계연도에 맞춤
17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사업계획 및 예산의 통일부 장관 승인 근거
18	결산보고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의 통일부장관 제출
19	자료제공의 요청	국가기관·지자체·교육기관·연구기관 등에 자료의 요청 근거
20	지도감독	통일부 장관의 편찬사업회에 대한 지도·감독근거, 공무원 파견 근거
21	준용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

### (3) 평가

거래말사업법은 한시법으로서 부칙 제2조에 따라 유효기간을 12년으로 한정한 법률로서 시간적 한계성을 갖도록 되어 있다. 또한 과거 사업을 이력을 추적해보면 편찬사업이 남북 관계의 국면에 따른 많은 저항과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효력을 두고 있는 경우 남북 관계의 전례상 필요에 따라 임시적으로 기간을 연장하는 조치가 예상되므로 사전 편찬의 안정성을 법률로 담보하기 어렵게 되는 문제가

있다. 이는 거시적인 관점에서는 장시간이 걸리는 언어통합의 장애 요소로 작동하게 된다.

또한 북한은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 주도로 인력 변동이 적어 안정적 운영이 가능한 반면 우리는 편찬사업회법상 기관을 임의적 기구로 설립하여 종사원의 지위와 신분보장 및 안정성이 취약하다. 즉, 법률로서 설립의 근거를 두고 있으면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이 법률은 남한과 북한이 공동으로 겨레말을 채집·연구한다고 하고 있으나 규범 현실상 북한에 대한 구속력은 당연히 없고 동위원회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담고 있어 국어기본법과의 어떤 연결성을 찾아보기 어렵다. 그리고 위원회 임원에 관한 사항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는 당연히 제외하고는 있는 것도 다소 납득하기 어렵다. 왜냐면 법 제2조에서 겨레말을 우리 민족이 남한과 북한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우리말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 국적을 둔 우리 동포나 남북언어에 대한 전문성을 지닌 외국 국적자를 당연히 제외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 4. 법령용어 통합을 위한 교류협력

### 4.1. 교류협력의 현실적 방법

북한과의 법령용어 통합을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법령관리시스템의 교류, 법제인력의 교류가 매우 유효적절하다. 방법론적으로는 최근 개소한 남북연락사무소를 통한 교류<sup>5)</sup>, 경제특구 내에서의 교류, 국제기구와의 공조, 오디에이(ODA) 사업 등을 통한 교류협력 속에서 법령용어에 대한 통합작업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sup>6)</sup>

특히 법령용어 통합작업에는 사회주의 법제도에 정통하고 법령용어 정비사업에 참여한 경력을 갖춘 남한 인력과 외국에서 연구한 북한의 법학자들이 공동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가령 정부에서는 법제처나 법무부, 통일부가 주도하여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방식이 타당하며, 전문용어의 통합 이후에는 이 전문용어에 대한 개념을 남북한 주민이 모두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여야 하는데 이는 대국민 홍보, 학교 및 사회교육 등을 동원할 수밖에 없는 문제로서 정부가 주도해야 할 필요가 있다.

### 4.2. 법률의 제정

상기와 관련하여서는 ‘겨레말사업법’을 기본으로 이 법률에 전문용어 통합을 위한 별도의 장을 구성하

5) 실제로는 남북연락사무소를 통해 많은 대북교류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6) 손희두, 《북한 법이념의 변화와 남북한 법제협력》, 한국법제연구원, 2014년, 147-155면 참조.



## 주제 | 법률 분야의 남북 전문용어 연구 현황과 과제

여 추가 개정입법을 하는 방법과 전문용어 통합 또는 언어통합을 추진하는 별도의 조직법제를 제정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전자의 경우는 어디까지나 사전편찬을 위한 사업회의 조직법적 성격을 갖는 것이나 후자의 경우 남북 한 언어소통의 문제는 한반도 전체를 아우르는 법질서 속에서 커다란 장애가 될 수 있다면 점에서 제정의 정당성을 갖는다 할 것이다. 각 분야별 언어통합을 위한 작업의 볼륨과 중요성을 감안할 때 법률의 형식으로 조직과 활동내용을 민관이 합동으로 참여할 수 있는 범국민적 거버넌스 구축을 생각해 봄이 타당하다고 본다.

특히 법률부문의 전문용어 통합작업은 추후 발생하게 될 법적 분쟁의 양을 가늠해 본다면 가장 우선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과제로 꼽을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예를 보면 남한 사회에 정착하는 데 있어 처음부터 부딪히는 애매한 법령용어에서 많은 좌절을 맛보기도 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전문가의 설문조사에서도 북한이탈주민의 언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전문 용어를 중심으로 대화하는 경우를 전체의 46%로 꼽을 만큼 중요하고도 장애요인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sup>7)</sup>

법령용어의 통합은 법질서의 혼란을 방지한다는 측면에서만이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칠 것이고 의학용어의 경우는 그 중요도에 비추어 보면 북한 지역에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남한 인력의 투입과 협진 체계를 위해 매우 시급히 통합이 될 필요가 있다. 관련하여 금융이나 예술 부문의 용어도 통합의 수순을 밟게 될 것이다.

상기의 언어통합작업의 규모에 비추어 보면 남북 전문용어의 통합작업은 주먹구구식이 아닌 정부가 중심으로 조직을 갖추어 민관이 합동하여 참여하는 모델로의 법제를 제정함이 타당하다.

### 4.3. 루마니아의 사례

체제 전환을 겪은 루마니아의 경우 혁명 이후 새로운 제도에 맞는 법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매우 빈번하게 새로운 법을 만들어 온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오히려 새로운 법체계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혼란을 가중시킨 것으로 조사되었다.<sup>8)</sup> 이는 법률이 자주 개정된 것에 기인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일반인이나 행정 공무원조차 새로운 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부분도 있었으며 새로 받아들인 정치-경제 체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법률용어에 대한 적절한 설명과 정의의 방법이 부재하였기 때문에 더욱 심각했던 것으로 보인다.<sup>9)</sup>

7) 강진웅, <남북한의 언어통합-북한이탈주민의 언어 사용실태를 중심으로>, 《교육문화연구 제23권 제2호》, 인하대학교 교육연구소, 2017년, 358면.

8) 강현철 외, 《동유럽체제전환기의 법률용어 변화에 관한 연구》, 강현철, 한국법제연구원, 2003년, 40면.

9) 위의 책, 41면.

루마니아의 예에서 볼 때 새로운 법률 개념과 용어에 대해서 일반인들이나 공무원이 적응하는 시간을 부여할 필요가 있고, 법령용어가 사용되는 환경에 있어서의 의사소통의 명확성과 접근가능성을 높이는 방안도 필요하다.

## 5. 향후의 과제

남북 간의 언어교류 가운데 법률용어 분야의 교류는 다른 영역에 비해 관련 흔적을 거의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연구도 부족하고 교류 실적도 전무한 실정이다.

그 원인으로는 우선, 북한에서 법률은 매우 특수한 영역에 속하는 것이라는 점을 꼽을 수 있다. 사회주의 체제의 특성상 법은 계급사회에서 경제적 지배계급이 자신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한 정치권력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며, 지배계급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본다. 또한 그것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간주되는 것으로서 계급 간의 갈등에서 생겨난 통치 수단이자 압제도구라는 인식<sup>10)</sup>에 있다고 한다. 또한 북한에서 법령용어와 가장 밀접한 관련을 갖는 법조인은 체제에 충성도가 매우 높은 특정 소수의 초엘리트 계층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러한 특성은 법령용어의 통합에 대한 장애 요소로 작동한다.

한편, 시간적으로 법령용어의 통합은 미래 통일 이후의 일이 아니라 지금부터 점진적으로 달성되어야 한다. 당장은 남북합의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있어 법령용어가 등장하게 되는데 상호 의미가 잘못 전달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법령용어의 통합은 매우 광범위한 작업이므로 단시간에 해결되기 어려운 특징을 갖는다. 양적인 측면에서 볼 때 남한의 법령용어보다 일상어나 이데올로기적인 표현을 많이 쓰는 북한의 법령용어를 합하면 엄청난 양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남북의 법령용어를 서로 통합한다면 일본식 한자어를 주로 쓰는 남한식의 통합인가 이데올로기적이고 우리말로 풀어쓰는 북한식의 통합인가는 상호 간 쉽게 풀리지 않은 문제가 될 것이다. 다만 그나마 다행인 것은 법령용어 이전에 남북한의 문법범주는 대부분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표준화에 큰 문제가 없다는 지적이 있다.<sup>11)</sup> 법률의 숫자나 입법 밀도를 비교한다면 당연히 남한 중심의 법령용어와 법제통합이

10) 윤대규, 《사회주의 체제전환에 대한 법제도적 비교연구》,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북한연구 시리즈 26, 한울아카데미, 2008년, 39-41면.

11) 권재일, <우리말의 미래와 남북 언어 통합 방안>, 《우리말글 제31집》, 우리말글학회, 2004년, 14면.

## 주제 | 법률 분야의 남북 전문용어 연구 현황과 과제


달성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남북한이 통일되기 이전 단계인 화해·협력의 단계와 남북연합 수준의 단계에서는 남한 중심의 통합은 달성되기 어려울 것이다. 이 단계에서는 남북의 법제 전문가와 국어학자 등이 함께 남북한 법령용어 목록을 만들어야 하고 그 다음 목록의 용어들을 사용할 대상에 맞게 정의 내리고 전문용어와 일반 어휘 등에 접목시킴으로써 법령용어의 사용과 법률의 제정에 있어서 남북 상호 간의 혼돈과 혼란을 최소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sup>12)</sup>

이러한 작업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추진조직을 법제화하여 상설조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어기본법에 남북언어 통합의 기초를 규정하는 취지의 조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고, 거래말큰사전 편찬위원회법에도 위원회의 설립기간 제한을 폐지하여 안정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이루어져야 한다.

## 참고 문헌

- 강현철 외(2003년), 《동유럽체제전환기의 법률용어 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권재일(2004년), 〈우리말의 미래와 남북 언어 통합 방안〉, 《우리말글 제31집》, 우리말글학회.  
강진웅(2017년), 〈남북한의 언어통합-북한이탈주민의 언어 사용실태를 중심으로-〉, 《교육문화연구 제23권 제2호》, 인하대학교 교육연구소.  
박상철 외(1995년), 《北韓法律用語의 分析(1)-憲法編-》, 한국법제연구원.  
손희두(2014년), 《북한 법이념의 변화와 남북한 법제협력》, 한국법제연구원.  
윤대규(2008년), 《사회주의 체제전환에 대한 법제도적 비교연구》, 한올아카데미.  
세계일보 <http://www.segye.com/newsView/20180922000705>.

12) 강현철 《동유럽체제전환기의 법률용어 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3년, 44면.



제15차 남북 언어 통합을 위한 국제학술회의  
분야별 남북 전문용어 연구의 현황과 과제

## 학술 발표 4

---

신중진

한양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국어 분야의  
남북 전문용어 연구 현황과 과제



## 국어 분야의 남북 전문용어 연구 현황과 과제

- 차례 -

1. 머리말
2. 국어 교과 자료 수집과 전문용어 목록 정리
3. 남북 국어 교과 전문용어의 언어학적 분석
4. 남북 전문용어의 통합 알고리즘과 방향
5. 맺음말

### 1. 머리말

올해로 한민족은 광복 73주년을 맞았다. 그러나 남북이 분단된 지 68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 올해는 남북 정상이 수시로 만난 기념비적인 해로 기억될 것이다. 촛불혁명 이후 한반도의 정세는 세계가 주목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긴장감이 완화되었다. 돌이켜 보면 70여 년이라는 시간 동안 한민족의 역사는 파란만장하였다. 그 사이 동서 냉전으로 인해 한민족이 갈라서는 시련을 겪었다. 그 결과 동족상잔의 비극이 발생하였다. 잦고 긴 대립과 반목의 시기 그리고 짧은 화해의 시기가 반복되면서 국민 특히 이산가족의 애간장을 녹이는 세월이었다. 그러는 사이에 남측과 북측의 이질감은 점차 심해졌다. 따라서 계획적이든지 갑작스럽든지 앞으로 다가올 통일 시대에 남북 간의 이질성을 극복하는 것은 한반도가 연합하기 위한 선결 과제이다.

한민족이 당면한 가장 시급한 과제는 언어의 이질성을 극복하는 일이다. 남측과 북측이 동족이라는 가장 확고한 근거는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데에 있다. 그러나 분단 기간 동안 남측과 북측의 언어는 당국의 언어정책이 가미되면서 점점 달라져 왔다. 아직 문법 체계상의 큰 차이는 잘 포착되지 않지만 어휘의 이질감은 적지 않다. 따라서 남북 어휘의 통합을 이루어내는 일은 남북의 이질감을 극복하고 통일로 가는 길이다. 아니 필연적으로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통일, 그리고 그 이후의 동족 간 연합을 위해 우선적인 일이다. 아울러 언어 통일은 남측과 북측을 하나로 묶어주는 구심점이 된다.

물론 어휘의 통합은 짧은 기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넓은 안목을 바탕으로 단계별로 진행해야 한다. 즉 어휘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분류하고, 이에 따른 정치한 통합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남북의 어휘를 통합할 때 먼저 논의되어야 할 대상은 고빈도 일반어휘이다. 그러나 남북의 고빈도 일반어휘에 큰 차이가 없다. 같은 한국어이므로 고빈도 일반어휘 역시 순위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유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휘 통합의 물꼬를 트고 실생활에 직접 도움을 주기 위해 우선적으로 생각해볼 만한 것은 전문용어의 통합이다. 분야마다 전문용어는 남북의 차이가 적지 않다. 따라서 남측과 북측의 전문용어를 통

## 주제 | 국어 분야의 남북 전문용어 연구 현황과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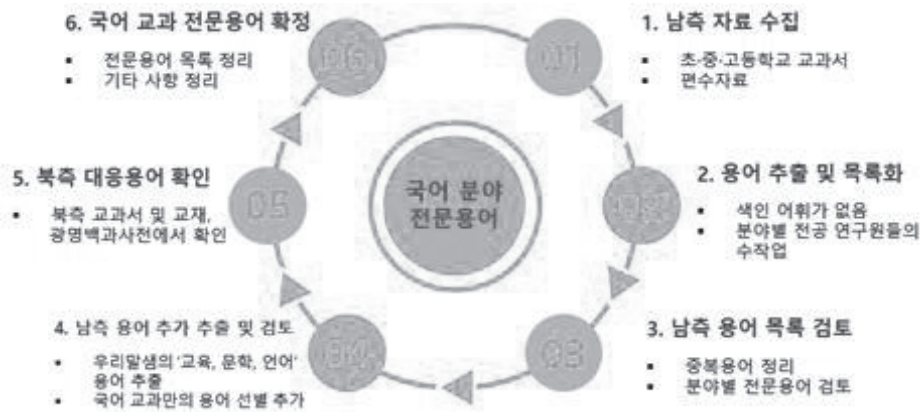
합하는 일은 남북의 언어 이질성을 극복하는 것에 기반이 된다. 아울러 일반어휘의 통합에도 적지 않은 밑거름이 된다. 하지만 모든 전문용어를 짧은 기간에 통합할 수는 없다. 우선 통일 세대의 교과 전문용어를 통합해야 한다. 그 결과를 통해 심화된 전문용어 혹은 전수의 전문용어 통합에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현실적인 방향이다.

따라서 이 글은 남북에서 현용하는 국어 교과서에 드러난 전문용어를 대상으로 분석하고 그 현황을 표와 그림으로 비교하면서 통합의 길을 소개하고자 한다. 아울러 체육 분야의 전문용어 분석과 통합의 사례도 비교하면서 정합적인 통합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2. 국어 교과 자료 수집과 전문용어 목록 정리

최근 전문용어 구축(정비, 통합, 조화, 관리)은 국제 표준화 기구[ISO]를 비롯하여 다국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다. 남북 전문용어의 구축도 이런 세계적인 추세에서 바라보아야 하는데, 다음과 같은 필요성이 뒤따른다. 첫째 통일 시대에 남북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사회 대통합의 효율성을 도모한다. 둘째 통합의 비용을 축소함으로써 전문용어가 통용되는 산업의 기술 표준화를 증진한다. 셋째 통합된 전문용어를 기반으로 통일 세대의 교과서 개발을 위한 기초를 마련한다. 이 모든 필요성은 남북의 언어 이질성을 극복하고 한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는 데에 수렴한다.

이 중에서 가장 실용적이고 다급한 필요성은 통일 시대의 교과서 개발이다. 그 초석이 되는 교과 학술 전문용어의 구축은 남북의 교과서 자료를 수집하고 전문용어의 목록을 정리하는 데에서 시작한다. 나아가 남북 국어 교과 전문용어 통합의 첫걸음은 뜻풀이의 합치까지 고려한 남북의 전문용어 대비 목록을 확정하는 것에서 토대가 마련된다. 남측과 북측이 공히 받아들일 수 있는 대응용어 목록은 다음의 6단계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림 1] 남북 국어 교과 전문용어 목록 추출 과정



## 학술 발표 4 | 신중진

무엇보다도 [그림 1]의 1~4단계에서 추출한 남측의 국어 교과 전문용어 목록에 대응하는 북측 전문용어를 찾는 것이 관건이다. 우선 국어 교과 전문용어 목록인 만큼, 1순위로 북측 교과서의 대응 전문용어의 확인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북측 교과서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북측의 실제 교육 내용을 담고 있으며, 통합의 전제가 되는 학술 전문용어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1순위에서 찾아지지 않는 대응용어는 2010년 이후에 평양에서 출간된 《광명백과사전-국어편》을 2순위로 참조한다.



[그림 2] 북측 국어 교과 전문용어 대응 목록 설정 자료

그런데 이것만으로 남측의 국어 교과 전문용어에 모두 대응하지 않는다. 다음으로는 《조선말대사전》을 3순위 참고자료로 활용하였다. 이 자료는 남측의 《표준국어대사전》과 마찬가지로 국가 주도로 만들어져 규범적 성격을 갖는다. 또한 전문용어의 뜻을 확인할 수 있어 남측의 그것과 비교할 수 있는 장점도 가진다. 그럼에도 대응용어를 찾기 어려울 때 4순위로 《남북한 학술용어 비교사전》을 참조하였다. 끝으로 5순위에는 2007년 국립국어원의 《남북 교과서 학술 용어 비교 연구》를 활용하였다. 이 자료는 비교적 최근 교과서를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한 장점이 있는 반면, 이 글에서 마련한 목록과는 차이가 있어 주요 자료로는 활용되지 못하였다. 보이지 않는 여러 한계가 있었지만, 위의 자료들과 6단계의 과정을 활용하고 남측과 북측 국어 전문가의 자문과 감수를 거쳐 총 2,200개의 남북 국어 교과 전문용어 대응 목록을 방대한 엑셀 파일로 구축하면서 확정하였다.

12) 초급 중학교 1, 2, 3의 《국어》, 고급 중학교 1, 2, 3의 《국어문학》, 고등 중학교 1, 2, 3의 《국어문법》을 연구진이 북수로 교차 검토하여 목록을 추출하였다.

<표 1> 남북 국어 교과 전문용어 목록 사례(총 2,200개)

<표 2> 남북 국어 교과 세부 분야별 전문용어 대응 유형 및 분포

<표 3> 남북 체육 분야 전문용어 대응 유형 및 분포\*

## 학술 발표 4 | 신증진

〈표 1, 2, 3〉에서 ‘AA, Aa, AB’ 유형은 남북의 전문용어의 형태적 일치도를 나타낸다. 즉 ‘남측과 북측의 전문용어가 일치하여 동질성이 확인되는 것’은 AA형, ‘남북의 서로 다른 어문 규정으로 인한 표기 차이만 가지며 사실상 동질성이 확인되는 것’은 Aa형, ‘남측과 북측의 전문용어가 각기 달라서 이질성이 드러나는 것’은 AB형으로 구별한다. 큰 틀에서 Aa형은 AA형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표 2〉에서 남북 국어 교과 전문용어의 동질성(AA(a)형)과 이질성(AB형)의 비율은 63.6%와 36.4%이다.\*\* 세부 분야별로 비율의 차이가 드러나기는 하지만, 그간 이질성에 대한 편견을 극복할 만큼 동질성이 크다는 판단이다. 〈표 3〉은 남북 체육 분야 전문용어의 형태적 유형 및 분포를 보여준다. 인문학적 특히 국학적 성격이 강한 국어 전문용어의 사례와는 극명한 차이를 보인다. 체육 분야에서는 AA(a)형 20.3%와 AB형 79.7%이다. 정반비례라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그만큼 이질성이 크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체육 분야는 전문성, 학술성 보다는 대중성이 강조되면서 표준화가 덜 되기도 하였고, 남측에서는 방송 등에서 지나치게 외래어를 직접적으로 남용하면서 생긴 결과이다. 남측 체육 분야의 전문용어는 인위적인 정비가 시급하다. 반면 국어 교과 전문용어는 자연스러운 조화의 길을 모색할 수 있을 정도로 동질성이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신증진 외(2015, 2016)에서 수학 및 자연과학 분야에서도 드러난다.

끝으로 형태 유형별 사례와 대응용어 공백의 사례를 표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대응용어 공백의 사례는 통일 시대에 국어 교과서를 더욱 풍성하고 알차게 꾸리는 데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유형		국어 교과 전문용어의 예(남-북)
AA	AA	가사-가사, 사실주의-사실주의, 주어-주어 등
	Aa	논제-론제, 오류-오유, 클라이맥스-클라이막스 등
AB		결말-마감, 동음어-소리같은말, 모음탈락-모음빠지기 등
추가 유형		전문용어의 예
AX (남측에만 있는 전문용어 유형)		공손성의 원리-X, 교차조사식 토론-X, 압존법-X 등
XB (북측에만 있는 전문용어 유형)		X-개략수사, X-맺음술어 등

〈표 4〉 남북 국어 교과 전문용어의 대응용어 공백 사례

\* 체육 분야 전문용어 목록은 다양한 종목을 고려하여 구축하였다. 대표적인 종목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검도, 골프, 농구, 럭비, 레슬링, 배구, 배드민턴, 복싱, 볼링, 사격, 사이클링, 소프트볼, 수상스키, 수영, 스케이트링, 스키, 씨름, 아이스하키, 야구, 양궁, 역도, 요트, 유도, 육상, 체조, 축구, 카누, 탁구, 테니스, 태권도, 하키, 핸드볼 등. 북측의 《광명백과사전》 체육 편이 큰 도움이 되었다.

\*\* 여기서 우리는 작지만 고마운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즉 남북 교과서에서 쓰이는 전문용어가 이미 60% 이상이 일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직은 가설 단계이지만 적어도 교과 전문용어를 통해서 상식 이상으로 이질성보다는 동질성이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한편 한용운(2015)에서 《표준국어대사전》과 《조선말대사전》의 전문어 표제어를 비교하였는데, 대략 66%의 전문어를 서로 모르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것은 타입(type) 중심의 사전의 표제 전문용어와 토큰(token) 중심의 실제 현장에서 사용되는 교과 전문용어와의 차이 때문이다. 실제 언어 사용의 측면에서는 이질성보다 동질성이 더 높아서 생각보다 갈등의 소지가 적고 자연스러운 통합의 가능성은 높다.

### 3. 남북 국어 교과 전문용어의 언어학적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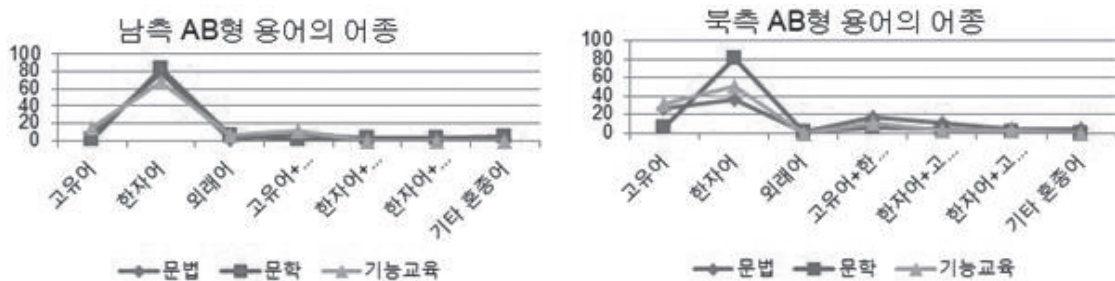
#### 3.1. 어종 분석

이 글에서 제시하는 통합의 알고리즘에서 직접적인 근거를 가지지는 않지만 어종 분석을 통해서도 남측과 북측의 동질성과 이질성의 사유를 확인하고 동질성의 근거를 확보할 수 있다. 아래 <표 5>는 남북 국어 교과의 세부 분야에서 나타난 고유어, 한자어, 혼종어 등의 다양한 어종 유형의 개수를 형태 유형별로 보여주고 있다.

분야	유형	AA형	Aa형(남/북)	남측 AB형	북측 AB형
문법		8	5/6	10	13
문학		5	4/5	8	6
기능교육(일반)		5	1/2	4	5

<표 1> 남북 국어 교과 전문용어 목록 사례(총 2,200개)

남북이 동일한 전문용어를 사용하는 AA형에서는 문법 분야가 더 다양한 어종 결합을 이룬 전문용어가 나타난다. Aa형에서 조사 '-의'를 사용한 북측의 전문용어(김수로 신화-수로의 출생담, 반의 관계-반의의 관계)로 인해 북측이 남측보다 어종 유형이 다양하였다. 문법 AB형에서 남측의 '시옷불규칙활용', '러변칙활용' 등의 전문용어를 북측에서 '《ㅅ(ㅈ)-X》탈락', '《X-리》삼입' 등과 같이 로마자를 사용하여 풀어쓰므로써 북측이 남측보다 어종 유형이 다양하다. 반면에 문학 AB형에서 남측의 '사회주의리얼리즘', '러시아12월파당원문학' 등의 외래어가 포함된 전문용어를 북측에서는 '사회주의적사실주의', '십이월파문학' 등과 같이 한자어로만 나타내어 남측이 북측보다 어종 유형이 다양하다. 기능교육 AB형에서 북측에서 '외래어'를 사용한 전문용어는 없었으나 남측보다 한자어와 고유어의 혼종 유형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그림 3] 남측과 북측 국어 교과 전문용어의 어종 비율



## 학술 발표 4 | 신증진

[그림 3]은 대응용어의 차이를 보이는 AB유형에서 남측과 북측의 국어 교과 전문용어의 어종 비율을 보인 것이다. 극복해야 할 이질성의 측면에서 보면, 남측은 한자어가 월등히 높고 기타 어종은 '한자어+고유어'의 혼종어 사용이 보이거나 대부분의 어종 유형은 미미하게 나타난다. 반면 북측은 세부 분야에서 눈에 띄는 차이를 보이지만 한자어가 높은 빈도를 보이기는 마찬가지이다. 한편 고유어 사용 빈도도 남측과 비교했을 때 월등히 높고, 혼종어(고유어+한자어, 한자어+고유어)도 제법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남북에서 세세한 차이도 드러났지만 전반적인 그래프의 형상은 비슷한 흐름을 보인다. 남측과 북측의 어종 분포가 거시적으로는 동일한 양상을 보인다는 동질성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남북이 공히 '한자어' 유형이 많다. 다만 남측에 비해 북측의 비율이 조금 더 적을 뿐이나 '고유어+한자어, 한자어+고유어'까지 포함하면 서로 대동소이하다. 향후 통합된 결과의 어종 분포도 이러한 방향을 유지하면 갈등을 극복하는 자연스러운 조화를 이룰 것이다.

그러나 체육 분야의 어종 비율은 이와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먼저 남측 체육 분야 전문용어에서는 외래어의 사용이 89%로 높게 나타나 한자어 우위의 국어 교과 전문용어와 대조를 이룬다. 북측의 체육 분야 전문용어는 또 다른 어종 비율을 보여주는데, 고유어 37%, 한자어 31%, 고유어+한자어 27%가 정발(鼎足)을 이룬다. 어느 어종이 월등히 높다고 할 수 없다. 이 결과는 남측이 체육 분야 전문용어에서 외래어를 남용하고 반면 북측은 고유어 중심으로 언어 순화 정책을 따르기 때문이다. 향후 체육 분야의 통합에서는 북측의 전문용어가 많은 참조가 될 것이다.

### 3.2. 조어 분석

다음으로 남북 국어 교과 전문용어의 조어 과정에서 확인되는 품사 빈도와 원어 빈도를 확인하면서 그 동질성과 이질성을 파악해 보겠다.

남측 품사 표지 (빈도)	북측 품사 표지 (빈도)	남측 품사 표지 (빈도)	북측 품사 표지 (빈도)
보통명사(941)	보통명사(930)	관형사(3)	용언의연결형(9)
접미사(198)	접미사(157)	용언의연결형(2)	부사(8)
어근적합태소(62)	용언의명사형(126)	의존명사(2)	수사(1)
접두사(39)	용언의관형형(61)		
용언의명사형(17)	조사(38)		
용언의관형형(16)	접두사(33)	남측 원어 표지	북측 원어 표지
표지 보류(15)	표지 보류(24)	한자어(1,099)	한자어(748)
고유명사(10)	어근적합태소(18)	고유어(200)	고유어(655)
조사(6)	고유명사(166)	외래어(16)	혼종어(22)
부사(4)	관형사(12)		외래어(8)

<표 6> 남북 국어 교과 전문용어 AB형의 품사 및 원어 현황

\* 고마운 암시는 북측 전문용어에서 한자어의 선택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달혀 있거나 거북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결과로 남북 언어의 통합 가능성은 전문용어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판단도 다시 한번 내릴 수 있다.

## 주제 | 국어 분야의 남북 전문용어 연구 현황과 과제

〈표 6〉은 남측과 북측이 대비되도록 품사의 빈도를 보여준다. 동질성의 차원에서 보면, 역시 전문용어의 품사가 명사 위주로 형성되는 특징 때문에 남북 모두 보통명사의 빈도가 월등히 높게 나타난다. 아울러 명사 파생 접미사도 공히 2순위로 드러났는데, 모두 전문용어 명사를 조어하는 표지인 셈이다. 그리고 빈도 순에서 차이가 드러나지만 남북이 공히 같은 품사 유형을 통해서 조어 과정을 거쳐 전문용어를 형성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반면 향후 극복해야 할 이질성도 드러난다. 남측과 북측의 AB형 전문용어를 비교했을 때, 북측의 전문용어를 구성하는 품사 중 용언의 활용형이 눈에 띈다. 가령 '순경음(남) - 가벼운입술소리(북)', '원순모음(남) - 둥근모음(북)', '음성모음(남) - 어두운모음(북)'이 그 사례이다. 이것으로 북한의 전문용어는 구절 구조로 풀이식 용어를 채택하는 경향이 드러난다. 한편 남측에 비해 북측의 원어 표지 중 고유어의 비중이 높는데, 이것은 북측의 모든 분야 전문용어의 특징이다.

다음은 남북 국어 교과 중에서 문학 분야의 68.3%를 차지하는 AA형 전문용어의 조어 구조 그 빈도 그리고 예시를 보여주는 표이다. 즉 〈표 7〉은 사실상 문학 분야의 7할을 차지하므로 동질성을 확보할 수 있는 문학 분야의 대표적인 조어 구조를 분석한 결과인 셈이다.

	유형	빈도	예
형태 결합 (22개 유형)	nc	286	문학, 복선, 산문, 시, 운문, 은유 등
	nc <sup>nc</sup> nc	124	고전 <sup>문학</sup> , 구전 <sup>설화</sup> , 국문 <sup>시가</sup> 등
	nc <sup>xs</sup> xs	105	간결 <sup>체</sup> , 강조 <sup>법</sup> , 예 <sup>학</sup> , 문학 <sup>성</sup> 등
	nc <sup>xs</sup> xs <sup>nc</sup> nc	7	국 <sup>적</sup> 적 <sup>갈등</sup> , 시대 <sup>적</sup> 적 <sup>배경</sup> 등
	mm <sup>nc</sup> nc	6	단문 <sup>시</sup> , 단형 <sup>시</sup> , 평 <sup>시</sup> 조 등
원어 결합 (12개 유형)	ch	263	감상, 극, 단편, 문제, 소재, 시점 등
	ch <sup>ch</sup> ch	239	가면 <sup>극</sup> , 구비 <sup>전설</sup> , 낭만 <sup>주의</sup> 등
	ch <sup>ch</sup> ch <sup>ch</sup> ch	14	고전 <sup>문학</sup> 적 <sup>작품</sup> , 일 <sup>인칭</sup> 적 <sup>소설</sup> 등
	ko	13	가락, 곳, 굴, 줄거리, 판소리 등
	ie	11	다다이즘, 드라마, 모더니즘, 카프 등
형태/원어 결합 (31개 유형)	nc/ch	263	가사, 극, 막, 소설, 소재, 주제, 형 등
	nc/ch <sup>nc</sup> nc/ch	113	가정 <sup>소설</sup> , 구전 <sup>문학</sup> , 칠연 <sup>절구</sup> 등
	nc/ch <sup>xs</sup> ch	104	간결 <sup>체</sup> , 과장 <sup>법</sup> , 서정 <sup>성</sup> 등
	nc/ko	13	곳, 굴, 줄, 줄거리, 판소리 등
	nc/ie	10	다다이즘, 모더니즘, 몽타주 등

〈표 7〉 문학 분야 AA(Aa)형 용어의 형태·원어적 결합 관계\*

\* 약호는 다음을 뜻한다. nc-보통명사, xs-접미사, mm-관형사, ch-한자어, ko-고유어, ie-외래어.

결과적으로 형태 결합 유형은 총 22개가 나타나고 <표 7>은 그 중에 빈도가 높은 4개의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원어 결합 유형은 12개인데 상위 빈도 5개의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이 두 정보가 결합된 유형이 31개로 다양한 조어 구조로 나타난다. <표 7>은 그 중에 상위 5개를 예와 함께 제시해 본 것이다. 상위에 박스 처리한 사례와 같이 이미 남북이 모두 문학 분야에서 이질감 없이 일반명사를 활용한 조어방식을 두드러지게 사용하고 있으며 문학 분야는 특히 단일어가 많은 것이 특징이다. 이것은 수학 및 자연과학과 체육 분야와는 달리 자생적인 성격이 강한 학문 분야이기 때문이다. 또 문학 분야는 하위에 박스 처리한 사례와 같이 한자어 전문용어가 절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자어끼리의 결합이 많은 것도 특징인데, 역시 한국 근대화 이후 자생 학문 분야이기 때문이다.

#### 4. 남북 전문용어의 통합 알고리즘과 방향

다가올 통일 시대에 AB형 전문용어들은 형태적으로 달라 의사소통에 불편을 준다. 그래서 원활한 소통을 위해 통합이 필요하다. 대개 그 통합 방식은 새로운 전문용어를 만드는 방법과 남북의 전문용어 중 하나를 선택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새로운 형태의 전문용어를 만들어 통합하는 방식은 자칫 남북의 갈등을 초래하고 치밀한 합의를 위해 장고를 요하면서 교각살우할 수 있다. 한편 분단의 현 상황에서는 국가의 정책적인 지원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른다. 설사 국가의 지원이 전제된다고 하더라도 전문용어 통합을 위한 예비적 단계가 충분히 수립되고 진행된 후에나 실천적인 연구를 진행할 수 있다. 따라서 남측과 북측의 전문용어 중에서 학술적으로 검증된 기준들에 더 잘 부합하는 하나의 전문용어를 선택하거나 복수를 인정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실용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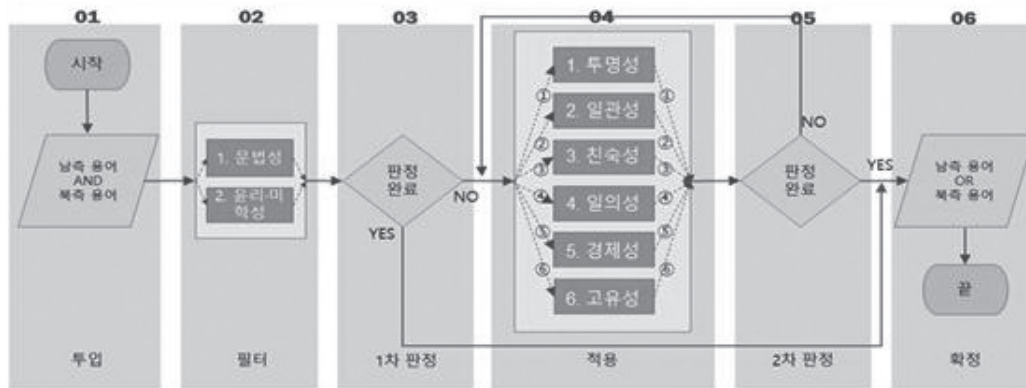
[그림 4] 국제 표준화 기구(ISO)에 입각한 남북 전문용어의 통합 기준



## 주제 | 국어 분야의 남북 전문용어 연구 현황과 과제

[그림 4]에서 통합 기준들의 적용 순서를 보여주기 위해 1~8의 번호를 부여하였다. 앞선 번호가 남북 전문용어 통합에 필요한 우선 적용 기준이다. 그런데 그림을 자세히 보면 기준마다 마치 퍼즐 맞추기의 조각처럼 떼어낼 수 있게 되어 있다. 이것은 기준들의 적용이 고정식이 아니라 변이식이라는 점을 드러낸다. 즉 전문용어 분야마다 용어의 특색이 있는데, 남북이 상호 합의할 수 있는 분야별 특색에 따라서 기준들의 적용 순위를 바꿀 수도 있다. 이것은 마치 아이들 장난감으로 유명한 레고(Lego)의 블록처럼 상황에 따라 순서를 바꿔 떼었다 붙였다 할 수 있는 개념이다.

여기서는 남북 국어 교과 전문용어의 총목록, 유형, 어종, 조어 방식 등 학술적이고 객관적인 용어의 특색을 파악하여 아래와 같은 적용 기준의 순위를 반영한 통합 알고리즘을 권장한다.



[그림 5] 남북 전문용어의 통합 판정 알고리즘

남북 전문용어의 통합 알고리즘의 원리는 이렇다. 대응하는 남측의 전문용어(A)와 북측의 전문용어(B)가 필터 단계에서 먼저 선택 판정을 받는다. 대응용어들 중에 어느 하나가 비통사적이거나(역행동화(남)-올리닫기(북)에서 '올리닫기'는 비통사적 합성어) 욕설, 비하, 혐오 등의 부정적 가치 개념을 가지거나 연상시키면(언어학사(남)-언어학설사(북)에서 '설사'는 혐오적 개념을 연상시킴) 1차 판정이 되어 우선적으로 걸러지고 바로 확정 단계로 가서 대응 전문용어가 선택된다. 그런데 이미 남북 교과에서 전문용어로 사용되고 있기에 대부분의 대응용어들은 이 과정을 통과한다. 대부분의 대응용어들은 적용 단계에서 위계적 순환적으로 기준 적용을 받는데, 투명성에서 우위가 판정이 나면 확정 단계로 넘어가고 그렇지 못하면 순환하여 일관성의 적용을 받는다. 여기서 우위가 판정이 나면 확정 단계로 넘어가고 그렇지 못하면 친숙성의 적용을 받는다. 판정이 계속 동등할 때는 고유성의 적용까지 판정을 받는다. 남북 전문용어의 대다수가 적용 단계에서 우위가 판정이 난다. 그렇지 못한 경우는 복수 전문용어로 남겨나 제3의 전문용어를 권장하게 된다.

## 학술 발표 4 | 신증진

기 준	용 어	통 합 기 준	남	북
			기의	실체
필터 기준	문법성	두 용어 모두 문법성에 어긋나지 않음	=	
	윤리미학적성	비속성 없음, 미학적성 동일	=	
위계 기준	투명성	'실체'보다 '기의'가 그 뜻(소쉬르의 기호 이론에서, 말에 있어서 소리가 나타내는 의미를 이르는 말)을 추론해내기 유리하므로, 남측어 우세	>	
	일관성	기의(남측어) 기표가 일관성이 있으므로 남측어 우세	>	
	친숙성	기초어휘 목록에 북측어 '실체'가 있으므로 북측어 우세	<	
	일의성	남측어 5개(동음어 5개), 북측어 2개(동음어 1개, 다의어 1개)이므로 북측어 우세	<	
	경제성	두 용어 모두 2음절로 동일	=	
	고유성	'한자어'로 동일	=	
최종 판정	위계 판정		기의(남)	

<표 8> 남북 국어 교과 전문용어 '기의-실체'의 판정 사례

가령 문법 전문용어 'signifié'에 대해 남측의 '기의'와 북측 대응용어 '실체'는 문법성을 어기거나 윤리 미학적성을 어기는 사례가 아니므로 필터 단계를 대등하게 통과한다. 그리고 적용 단계에서 위계 기준의 적용을 받게 된다. 이 경우 상위 위계인 투명성에서 북측의 '실체'는 소쉬르의 개념인 'signifié'를 뜻하기에는 광범위하고 모호해서 불투명한 것으로 판정되고 '기의'가 상대적으로 그 의미를 추론하기 쉬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확정단계에서 최종 판정은 남측의 '기의'가 권장된다. 물론 상위의 기준에서 판정이 나더라도 그 하위의 기준들에서도 모두 판정한다. 왜냐하면 이 위계 기준은 국어 교과 전문용어 통합을 위한 권장 알고리즘이고 레고 블록처럼 언제든지 현장에서 전문가들이 합의하면 위계 기준의 순서가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림 5]와 <표 8>과 같은 과정을 통해 남측 전문용어와 북측 전문용어가 판정되었는데, 총 801개의 AB형 중 남측의 전문용어는 307개 선택되었고 북측의 전문용어도 307개 선택되었다. 그리고 끝내 판정되지 않은 187개의 전문용어도 있었다. 이미 남북의 국어 교과 학술 전문용어는 아카데미한 기준들에 잘 맞도록 선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음의 표는 기준 순서와 그 변형별로 남북 전문용어가 판정된 현황을 나타낸 표이다.

\* 남북 전문용어를 통합하기 위한 기준 8개에 대해 위계를 떠나서 남측 전문용어와 북측 전문용어가 어떠한 분포로 선택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 기준들의 분포를 살펴보는 것은 남측과 북측의 전문용어가 어떠한 특징을 가지는지 확인할 수 있고 또한 국제 표준화 기구[ISO]에서 선정한 기준들이 실제 전문용어 통합에 있어 얼마나 큰 효용성이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주제 | 국어 분야의 남북 전문용어 연구 현황과 과제

[그림 5]와 <표 8>과 같은 과정을 통해 남측 전문용어와 북측 전문용어가 판정되었는데, 총 801개의 AB형 중 남측의 전문용어는 307개 선택되었고 북측의 전문용어도 307개 선택되었다. 그리고 끝내 판정되지 않은 187개의 전문용어도 있었다. 이미 남북의 국어 교과 학술 전문용어는 아카데미한 기준들에 잘 맞도록 선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음의 표는 기준 순서와 그 변형별로 남북 전문용어가 판정된 현황을 나타낸 표이다.

기준	기준 순서	남	북	동일
1. 기본 기준	문법성-윤리미학성-투명성-일관성-진숙성-일의성-경제성-고유성	307	307	187
2. 변형 1	문법성-윤리미학성-진숙성-경제성-투명성-일관성-일의성-고유성	306	308	187
3. 변형 2	문법성-윤리미학성-투명성-일의성-경제성-진숙성-일관성-고유성	346	268	187
4. 변형 3	문법성-윤리미학성-투명성-고유성-경제성-진숙성-일관성-일의성	364	250	187

<표 9> 남북 국어 교과 AB형 전문용어 801개의 최종 판정 결과

여기서 변형1은 국어 교과에서 높은 변별력을 보이는 기준을 중심으로 설계되었고, 변형2는 <ISO 704>의 주요 기준을 중심으로, 변형3은 자연과학의 통합을 위한 기준을 중심으로 설계된 결과이다. 변형2와 변형3은 다소 남측 편향적 판정 결과를 보여주기 때문에 권장하기 어렵다. 그러나 우연인지 필연인지 본 연구의 권장 알고리즘을 통한 결과는 남측과 북측이 각각 307개씩 선택된 절묘한 결과이다. 진숙성과 경제성을 앞세운 변형1도 협의에 따라서 협상 카드로 사용할 수 있겠다.

기준	기준 순서	남	북	동일
1. 기본 기준	문법성-윤리미학성-투명성-경제성-고유성-진숙성-일관성-일의성	385	536	14
2. 변형 1	문법성-윤리미학성-진숙성-일관성-경제성-고유성-투명성-일의성	86	835	14
3. 변형 2	문법성-윤리미학성-일관성-진숙성-경제성-고유성-투명성-일의성	118	803	14
4. 변형 3	문법성-윤리미학성-경제성-고유성-진숙성-일관성-일의성-투명성	375	546	14

<표 10> 남북 체육 분야 AB형 전문용어 935개의 최종 판정 결과

참고로 <표 10>은 남북 체육 분야 전문용어의 판정 결과이다. 남북 체육 분야 전문용어의 총목록, 유형, 어종, 조어 방식 등 학술적이고 객관적인 용어의 특색을 파악하여 적용 기준의 순위를 반영한 통합 알고리즘에 따르면 남측 385개, 북측 536개가 우위를 보인다. 결과는 북측 편향적으로 판정되는데, 남측은 외래어 남용이 심한 것이 학술적인 검정의 결과에도 고스란히 반영된 셈이다. 변형1과 변형2에서는

숫제 북측 전문용어 위주로 판정된다. 북측의 체육 분야 전문용어는 자체 순화를 겪었던 것이 반영된 결과이다. 그나마 경제성을 앞세운 변형3이 권장 알고리즘에 가까운 결과를 보인다. 향후 체육 분야의 전문가들이 전문용어를 통합할 때, 협의만 이루어진다면 활용할 수도 있는 협상 카드의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 있겠다.

## 5. 맺음말

이것으로 남북의 전문용어 현황과 통합의 실재를 국어 교과 전문용어를 중심으로 체육 분야와 비교하면서 분석해 알아보았다. 이 글의 내용이 바로 남북 전문용어 통합의 정답이 될 수는 없다. 다만 통일로 가는 길에 혹은 그 이후,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최상의 결과를 가져올 소통을 위해 전문용어 통합의 테이블에 앉았을 때 자연스럽게 대화의 물꼬를 트는 데 하나의 카드로 내밀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이 글의 의도이다. 당연히 이 카드는 어느 한쪽이 이기는 카드가 아니다. 이 글이 서로 상생하고 협력하면서 언어의 이질성을 극복하는 카드 중에 하나로 받아들여졌으면 좋겠다.

남아 있는 문제점과 향후 방향에 대한 제안을 남기는 것으로 글을 마무리하겠다. 대응용어의 개념 대응이 사실 매우 중요하다. 형태 중심의 통합 알고리즘을 소개했지만 밑 작업과 전제에서 남북의 사전 뜻풀이, 전문가들의 개념 확인 자문, 탈북민의 면담과 설문 조사에서 늘 개념의 합치를 바탕으로 하였다. 개념 일치율을 보이는 대응용어가 많았지만, 개념 부분 일치, 미세하더라도 개념 자체가 사실 다르다고 볼 수 있는 대응용어도 있었다. 이런 세밀한 부분의 통합 논의도 상호 수용의 자세에서 뒤따라야 한다. 전문용어 분야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개념 체계에 따라 전문용어의 형태 체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가령 아래의 그림처럼 남측과 북측의 문법 용어는 애초에 체계가 다르다.



[그림 6] 남북 문법 분야 전문용어 '어미-토'의 체계

## 주제 | 국어 분야의 남북 전문용어 연구 현황과 과제

이처럼 남측과 북측의 개념 체계가 달라서 형식을 통합하는 일이 이 글의 알고리즘만으로는 쉽지 않고 이 글의 알고리즘이 적용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협의가 되어야 할 중요한 부분이다. 즉 전문용어 체계와 개념 체계를 동시에 정비하고 통합하는 '조화(Harmonization)' 작업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이것은 통일 이후 국어 분야의 이해나 연구의 깊이를 더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놓치면 안 되는 사항이다. 이와 더불어 필자는 앞에서 남북 전문용어 사이에는 AX형, XB형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언급하였다. 마찬가지로 향후 국어 분야의 교과가 알차고 국어 분야의 연구가 깊이 있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공백과 우연한 공백을 구별하고 그 X를 버리지 않고 채워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연구가 단기에 그치면 안 되겠다. 비록 교과 과정의 차원이나 수학, 물리, 생물, 화학 등 자연과학 및 체육, 그리고 본 연구의 영역인 국어 분야에서 남북 교과 전문용어를 자원으로 해당 분야의 통합 방안을 다년간 꾸준히 제시해 보았다. 올해는 역사 분야의 전문용어 통합안을 용감하게(?) 마련 중이다. 향후 음악, 미술의 예체능 분야도 통합 방안을 마련하고 기존의 연구 결과와 비교하면서 발전적으로 통합 방안이 다듬어져야 한다. 교과 과정의 통합 방안이 마련되고 나면 실제 생활과 밀착된 분야 가령 IT, 법률, 농수산, 의학, 건설, 교통 등의 전문용어 통합도 모색해야 한다. 이러한 방향이 안정적으로 지속되고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정부 기관이 주관이 되어서 '남북 전문용어 통합 협의체'를 구성하고 실제 남북의 해당 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마련하면 부족한 연구의 결과가 조금이라도 밑그림이 될 것이다.

## 참고 문헌

- 강보선 외(2016), 북한의 2013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의 특징, 《국어교육연구》 62, 국어교육학회.
- 고영근 외(2010), 《북한의 문법연구와 문법교육》, 박이정.
- 고정희 외(2015), 남북한 초중고등학교 국어교육 통합을 위한 기초 연구, 《국어교육연구》 36,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 구본관 외(2002), 《남북한어의 공동 순화 방안 연구》, 국립국어원 연구 용역 보고서.
- 국립국어원(2005), 《21세기 세종계획. 전문용어의 정비 연구보고서》, 문화관광부 국립국어원.
- 권재일(2006), 《남북 언어의 문법 표준화》, 서울대학교 출판부.
- 권재일(2014), 《남북 언어의 어휘 단일화》,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 김광수(2004), 《남북한 전문용어 비교 연구》, 역락.
- 김남돈(2003), 《('토'를 중심으로 본) 북한 문법 이론의 발전 과정》, 한국문화사.
- 김문오(2007), 《남북 교과서 학술 용어 비교 연구 1》, 국립국어원.



## 학술 발표 4 | 신중진

- 김병문·주영훈(2017), 남북 통합 국어사전에서의 언어학 용어 처리 방안 연구, 《한국사전학》 29, 한국사전학회.
- 김선숙(2014), 남북한 규범문법의 격 표시 형태소 처리의 비교, 《한어문교육》 31, 한국언어문학교육학회.
- 김선철(2008), 《남북 교과서 학술 용어 비교 연구 2》, 국립국어원.
- 김유진·신중진(2016), 남북 수학 과학 교과서에 나타나는 전문 용어 분석, 《동아시아문화연구》 64, 한양대학교 동아시아문화연구소.
- 김유진·신중진(2017), 남북 자연과학 심화 전문용어의 형태적 분석, 《겨레어문학》 58, 겨레어문학회.
- 김정선(2015), 국어교육의 북한어 이해 교육에 대한 비판적 검토, 《국어교육연구》 58, 국어교육학회.
- 김진숙(2015), 《통일 대비 남북한 통합 교육과정 연구 1》,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김진용 외(2007), 《전문용어 구축 연구》,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 배선미·시정곤(2004), 한국어 전문용어 조어 분석에 대한 통계적 연구 -물리, 화학, 생물, 의학 용어를 중심으로-, 《한국어학》 25, 한국어학회.
- 신중진·엄태경(2016), 심화 전문용어의 조어 분석과 그 실제 -물리 분야를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화》 60, 한국언어문화학회, 165-190.
- 신중진 외(2015), 《2015 남북 기초 전문용어 분석》, 국립국어원 연구 용역 보고서.
- 신중진 외(2016), 《2016 남북 전문용어 구축》, 국립국어원 연구 용역 보고서.
- 신중진·이성우(2016), 기초 전문용어의 개념 확립을 위한 시론, 《한국언어문화》 59, 한국언어문화학회.
- 양명희(2003), 《북남 대역 사전을 위한 기초 연구》, 국립국어원 연구 용역 보고서.
- 엄태경(2015), 남북 수학 기초 전문용어 통합을 위한 제언, 《한국사전학》 26, 한국사전학회.
- 엄태경·신중진(2017), 남북 전문용어의 조어분석과 통합-수학, 물리 분야를 중심으로-, 《국어학》 82, 국어학회.
- 오세진·신중진(2016), 남북 체육 기초 전문용어의 어종 분석, 《우리말글》 70, 우리말글학회.
- 유현경(2013), 표준문법의 개념과 필요성, 《문법교육》 19, 문법교육학회.
- 유현경(2015), 학교문법 정립에 있어서 표준문법의 역할, 《우리말연구》 43, 우리말학회.
- 이대성 외(2013), 《남북 언어 예절 비교 연구》, 국립국어원 연구 용역 보고서.
- 이대성(2015), 남북 언어 통합 사업의 현황과 과제, 《겨레말 통합을 위한 국제학술회의 발표자료집》, 국립국어원·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
- 이성우·신중진(2016), 심화 전문용어의 개념 확립을 위한 시론, 《동아시아문화연구》 66, 동아시아문화연구소.
- 이향근(2017ㄱ), 통일 시대 초등 국어교과서 설계를 위한 한국 북한 연변의 초등 국어과 교육내용 비교, 《한국어문교육연구회 제201회 학술대회 발표자료집》, 한국어문교육연구회.
- 이향근(2017ㄴ), 남한 북한 연변의 기초 문식성 교육 내용 비교, 《초등교육연구》 28-1, 서울교육대학교.
- 이현주(2007ㄱ), 외국 사례를 통해 본 전문용어: 프랑스, 캐나다의 경우, 《새국어생활》 17-1, 국립국어원.

## 주제 | 국어 분야의 남북 전문용어 연구 현황과 과제

- 이현주(2007ㄴ), 전문영역 표기의 사전적 기능에 대하여: 일반언어사전을 중심으로, 《한국사전학》 9, 한국사전학회.
- 이현주(2015ㄱ), 전문용어 사전의 이론적 배경과 그 흐름, 《프랑스학연구》 74, 프랑스학회.
- 이현주(2015ㄴ), 전문용어 연구의 이론과 실제, 《한국사전학》 26, 한국사전학회.
- 이현주(2015ㄷ), 전문용어학의 이론적 토대를 위한 개념 연구, 《제42회 한말연구학회 전국학술대회 발표자료집》, 한말연구학회.
- 이현주·신중진(2017), 남북 전문용어 통합 방안을 위한 물리 분야 용어 이질성 연구, 《한국언어문화》 62, 한국언어문화학회.
- 이현주 외(2007), 《외래 전문용어 번역 및 조어법 연구》, 국립국어원 연구 용역 보고서.
- 전수태(1990), 《남북한 언어 차이 조사3. 한자어 외래어》, 국어연구소.
- 전수태(2005), 《남북한 어문규범 연구사》, 국립국어원 연구 보고서.
- 전수태(2010), 남북 통일시대의 국어교육의 방향, 《국어교육》 131, 한국어교육학회.
- 전수태·최호철(1989ㄱ), 《남북한 언어 차이 조사1. 발음·맞춤법》, 국어연구소.
- 전수태·최호철(1989ㄴ), 《남북한 언어 차이 조사2. 고유어》, 국어연구소.
- 조은경(2001), 《전문용어의 어휘 형태론적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은경·서상규(2000), 전문용어와 전문언어 말뭉치, 《전문용어연구》 2, 전문용어언어공학연구센터.
- 주재우 외(2017), 남북한 초등학교 쓰기교육 내용 비교, 《작문연구》 33, 한국작문학회.
- 조태린(2017), 통일 시기 남북 전문용어 표준화 정책에 대한 소고, 《사회언어학》 25-3, 한국사회언어학회.
- 최용기(2010), 《남북한 학술용어 비교사전: 인문》,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15), 《2015 교과서 편수 자료Ⅱ: 인문·사회과학/체육·음악·미술 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한국학술단체총연합회(2007), 《학술 전문용어 정비 및 표준화 결과보고서》, 한국연구재단.
- 한용운(2015), 남과 북의 사전, 《새국어생활》 25-2, 국립국어원.
- 허재영(2014), 전문용어 정책의 역사, 《어문학》 125, 한국어문학회.
- 홍종선 외(2011), 《국어사전학개론》, 제이앤씨.
- Antia, B.A. (2000), Terminology and Language Planning, An alternative framwork of practice and discourse,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Amsterdam/Philadelphia.
- Grice, H. P.(1967), Logic and Conversation, Unpublished MS. of the Willaim James Lectures, Harvard University.
- ISO 704 (2009), Terminology work – Principles and methods.
- ISO 860 (2007), Terminology work – Harmonization of concepts and terms.




## 학술 발표 4 | 신중진

- ISO 1087-1 (2000), Terminology work – Vocabulary. Part 1: Theory and application.
- ISO 10241 (1992), International terminology standards – Preparation and layout.
- ISO 22134 (2007), Practical guidelines for socioterminology.
- ISO/IEC Guide 2 (2004), Standardization and related activities – General vocabulary.
- Maurais, J. (1993), “Terminology and Language Planning” in Terminology. Applications in Interdisciplinary Communication, ed. H. Sonneveld & K. Loening,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Amsterdam/Philadelphia.
- Rey, A. (1995), Essays on Terminology,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Amsterdam/Philadelphia.
- Strehlow, R. (1993), “Terminology Standardization in the Physical Sciences” in Terminology. Applications in Interdisciplinary Communication, ed. H. Sonneveld & K. Loening,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Amsterdam/Philadelphia.
- UNESCO (2005), Guidelines for terminology policies. Formulating and implementing terminology policy in language communities, UNESCO, Paris.
- Wright, S. & Budin, G. (1997), Handbook of Terminology Management, Basic Aspects of Terminology management, vol. 1.,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Amsterdam/Philadelphia.
- Wright, S. & Budin, G. (2001), Handbook of Terminology Management, Application-Oriented Terminology management, vol. 2.,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Amsterdam/Philadelphia.

### 사전 및 누리집

- 백과사전출판사(2008), 《광명백과사전》 6, 백과사전출판사.
- 백과사전출판사(2011), 《광명백과사전》 7, 백과사전출판사.
- 사회과학언어연구소(1992), 《조선말대사전》, 동광출판사.
- 사회과학출판사(2006), 《조선말대사전 증보판》, 사회과학출판사.
-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2014), 《한국어교육학사전》, 하우.
- 표준국어대사전 검색 웹사이트: <http://stdweb2.korean.go.kr/main.jsp>.
- 우리말샘 검색 웹사이트: <https://opendict.korean.go.kr/main>





제15차 남북 언어 통합을 위한 국제학술회의  
분야별 남북 전문용어 연구의 현황과 과제

# 학술 발표 5

---

송상훈

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

건설 분야 남북 전문용어의  
연구 현황과 과제



## 건설 분야 남북 전문용어의 연구 현황과 과제

- 차례 -

1. 서론
2. 건설 분야 남북 전문용어 연구의 필요성
3. 건설 분야 남북 전문용어 관련 연구 현황
4. 건설 분야 남북 전문용어 연구 사례: 『북한건설용어집』발간
5. 향후 과제

### 1. 서론

남과 북은 분단 이후 오랜 기간 서로 다른 언어문화를 지속하면서 용어의 이질성이 심화되어 왔다. 「겨레말 큰사전」과 같은 대규모 작업이 정부 차원에서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것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공동 노력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 실질적인 남북 교류를 확대해 가기 위해서는 민족의 언어 유산을 집대성하는 이 노력과 함께 각 전문분야에서 남북 간 용어 차이를 심도 있게 분석하고 대안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최근 한반도에 불고 있는 평화의 바람이 남북 교류에 대한 기대를 높여가면서 가장 먼저 관심을 받고 있는 분야는 건설 분야라고 할 수 있다. 건설 분야는 학술적으로 상당히 다양한 전문분야를 포괄하고 있으며, 건설개발사업 과정에도 많은 조직과 인력이 참여하는 특징을 가진다. 남북협력사업에 상당한 규모의 남한의 자본과 기술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남북 기술인력 사이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사업의 성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의미에서 남과 북이 서로 참조할 수 있는 공통의 건설 분야 관련 용어를 구축하는 것은 남북관계 회복과 북한지역 개발 참여에 대한 기대를 바탕으로 건설산업의 새로운 기회를 모색함에 있어 다른 모든 노력에 선행해야 하는 중요한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건설 분야에서는 남북의 건설 관련 전문용어 사이의 차이를 살펴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시도가 오랫동안 계속되어 왔다. 본 고에서는 남북 교류와 협력에서 전문용어가 갖는 중요성을 건설 분야를 중심으로 검토하고, 남북 건설용어와 관련한 연구 현황을 살펴보았다. 아울러 남북 건설용어를 정리한 대표적인 연구 사례를 보다 상세히 소개하고, 앞으로 건설 분야 전문용어 연구를 위해 필요한 과제를 논의하였다.

## 2. 남북 건설 분야 전문용어 연구의 필요성

### 2.1. 전문용어 연구의 필요성

남북 간 언어 통합은 분단 이후 남북의 사회 체제 차이가 가져온 언어적 이질감을 서로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민현식(2014); 이찬규 등(2014); 이대성(2015)). 남북 정부에서 편찬한 표준국어대사전과 조선말대사전을 기준으로 보면 일반어에서 35% 차이가 나고, 전문어에서 64% 정도 차이가 나는 등 특히 전문어에서 이러한 이질화가 심각하다. 분야별 전문가들의 교류가 장기간 이어지지 않으면서 이러한 차이도 깊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전문용어의 경우 거래말큰사전에서도 많이 누락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며<sup>1)</sup> 해당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자기 분야 용어의 통합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전문분야마다 남북 간에 쓰이는 용어의 양상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작업을 위해 남북 간에 협의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한 상황이다.

### 2.2. 건설 분야 연구의 수요

#### 1) 북한 건설인프라와 남북 협력 사업

과거 노무현 정부는 대북 포용정책을 계승한 평화번영정책과 동북아시아대 구상을 제시하였고, 북핵 해결과 남북관계의 진전을 병행 추진하였다. 2007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의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10 4 공동선언)'에서 남과 북은 6 15 공동선언을 고수하고 적극 구현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남북 협력 사업을 제시하였다(이상준 등, 2008). 여기에는 개성공단 추가 개발, 고속도로와 철도 개보수 등 건설 분야의 참여가 필요한 다수의 사업이 포함되었다.

현재 북한의 건설인프라는 일제 강점기에 건설된 것을 개보수하는 수준으로 전반적인 노후화가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 상황이 공기를 중시하고, 건설자재와 장비가 부족함에 따라 파손이 자주 발생하고 신규 건설과 개보수가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또한 전기공급이 원활하지 못하여 시설물의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이다(김효진 등, 2017). 따라서 남북개발 협력 단계에서 북한의 경제발전을 위한 경제특구의 사업참여와 이를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 개발을 중심으로 상당한 건설 수요가 예상되고 있다.

독일의 경우에도 통일 전후로 건설 분야에 대해 막대한 투자가 이루어진 바 있다(박용석, 2016). 즉 독일 전체에서 균형 있는 삶의 조건을 창출하겠다는 통일 독일의 최우선 과제에 따라 구동독 지역의 발전을 위해 주택, 교통 인프라, 산업단지 등에 대한 독일 연방정부 등의 본격적인 투자가 추진되었다. 독일은 통일 이후 건설투자 붐이 1992년부터 2001년까지 약 10년 가까이 지속되었고, 지금까지도 구동독 지역에 대한 건설투자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신민영과 최문박, 2015).

1) 최기선 등(2005)은 특정 집단에서 통용되는 것으로 새로 형성된 어휘가 많고, 단의어 명사로 일반사전에 등장하지 않는 점을 전문용어의 특징으로 정의함.

## 2) 건설 분야 전문용어 연구의 필요성

북한 개발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서는 다양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고 전문 인력의 확보가 필요한 바, 분야별 제도 개선 및 인력 양성에 대한 핵심 과제의 추진이 요구되고 있다. 북한 개발에 있어 8개 분야<sup>2)</sup>의 제도와 인력 측면의 과제를 정리한 이상준 등(2012)에 따르면 모든 분야에서 용어와 표준을 통일하기 위한 남북 간 공동 연구가 중단기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요구되었다.

과거 남북 협력 사업으로 진행하여 남한의 자본과 북한의 인력이 공동으로 투입된 개성공업지구, 금강산지구 등에서 시공 경험이 있는 건설인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를 보면, 남북의 건설용어가 상이함에 따라 정확한 정보전달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도록 하고 있다(대한건설정책연구원(2015); 박용석(2008)). 즉 북한에서 시공 경험이 있는 건설인 대상으로 북한 건설시장 진출시 북한 인력 사용 상의 애로점을 설문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22.9%가 “문화적 차이 및 언어 등 의사소통 문제”를 지적하여 “북한 기능공의 완성도와 숙련도, 생산성 부재”(58.3%) 다음으로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향후 북한 개발수요와 현지의 인력 사정, 남북 협력 사업에서의 교훈 등을 고려할 때 남북 건설 분야 전문용어 통합을 위한 작업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 3. 남북 건설 분야 전문용어 관련 연구 현황

### 3.1. 총괄 개요

건설 분야 전문용어와 관련하여 개별 유관기관에서 전문분야에 대한 연구를 통해 남북의 용어를 정리한 경우도 있고, 타 분야와 연계하여 공동으로 작업한 경우도 있었다. 현재까지는 공식적으로 북측 전문가와의 교류 하에 용어를 정리한 사례는 없었으며, 이에 따라 대부분 연구는 용어의 추출과 상호 비교를 중심으로 수행되어 용어 통합을 위한 세부 논의까지는 구체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건설 분야 전문용어와 관련한 주요 선행 연구와 개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3.2. 주요 연구 실적

북한의 건설 분야 용어에 대해서는 초기 사례인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의 「남북 과학기술 용어집」과 통일문제연구협의회의<sup>3)</sup> 「남북학술 전문용어비교사전」 등을 비롯하여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다음은 그에 해당되는 주요 실적이다.

- 2) 북한 개발 분야를 국토조사 및 계획, 산업입지, 도시 및 농촌개발, 주택, 교통인프라, 에너지 및 통신, 수자원 및 방재, 문화 및 관광 등 8개 분야로 구분함.
- 3) 각 분야별 전문 13개 기관으로 통일연구원, 국토연구원, 산업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평화문제연구소,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등이 참여함.



## 주제 | 건설 분야 남북 전문용어의 연구 현황과 과제

### 1) 「남북 과학기술 용어집」(2005) 발간

「남북 과학기술 용어집」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의 주관 하에 2005년 편찬된 물리, 화학, 정보공학, 수학, 생물, 건축, 금속분야 전문용어 단순 비교 용어집이다. 용어집 집필과정에 북측이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제3국(중국, 일본 등) 학자들과의 교류를 통해 북측 과학원 함흥분원 등이 발행한 바 있는 용어사전을 수집하였으며 이를 남측 용어와 비교해 리스트를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용어집 내에서 표제어는 한국어로 하여 가나다순으로 배열하고, 표제어에 해당하는 조선어와 영어 대역을 기술하고 있다(김철환 등, 2015).

### 2) 「남북학술 전문용어비교사전」(2007) 발간

통일문제연구협의회는 2006년 북한의 “고려전자출판사”와 관련 협의서를 체결하고, 2007년에는 북한의 사회과학원과 사업 관련 상호 의견을 교환하여 사전 편찬을 위한 기반 작업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2008년 이후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남북간 협력은 추진되지 못한 채 남측에서만 일회성 사업으로 끝나고 말았다. 「남북학술 전문용어비교사전」은 기본적으로 남측용어, 북측용어, 관련어 한자 원어, 남측 뜻풀이, 북측 뜻풀이, 전문분야 동의어 및 출처들을 포함하고 있어 남북한의 용어 뜻과 활용 예를 쉽게 알 수 있다. 남측 뜻풀이는 표준국어대사전을 중심으로 하되, 없는 경우 참조한 사전에 대한 출처를 밝혔다(김철환 등, 2015).

### 3) 「남북한 건설기술(항만분야) 용어집」(2010) 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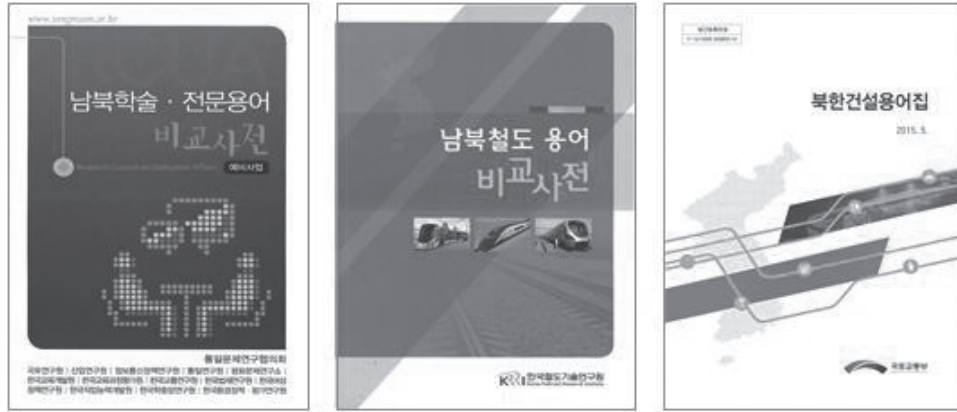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남북한 해운항만분야의 관련 법률, 항만건설 관련 학술지, 건설기준 등에서 항만건설기술 관련 용어를 선정하고, 이에 대해 남측용어, 북측용어, 관련어, 남측의 의미, 북측의 의미 등으로 구성된 용어집을 「남북한 건설기술(항만분야) 표준화 방안」 내에 수록하였다.

### 4) 「남북한 철도용어 비교사전」(2012) 발간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조선말대사전(1997) 등을 출처로 하여 철도, 물류, 무역 분야에서의 전문용어들에 대해 남한용어, 북한용어, 남한용어 뜻, 북한용어 뜻을 정리한 「남북한 철도용어 비교사전」을 2012년에 발간하였다.

### 5) 「남북한 건설관련 용어사전」(2012) 발간

LH의 남북협력처는 조선말대사전(1997)에 있는 전체 용어 중 건설 분야와 관련된 단어만을 별도로 정리하여 「남북한 건설관련 용어사전」을 발간하였다. 사전의 내용은 북한용어, 의미, 남한용어(유의어) 등으로 구성하였다.



[그림 1] 건설 분야 남북 전문용어 주요 실적

#### 6) 「북한건설용어집」(2015) 발간

국토교통부는 남한의 건설기술자 또는 학술연구자들이 북한 문헌 검토 시 발생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7개 전문분야, 23개 영역에 대해 총 5,364개 용어를 정리한 「북한건설용어집」을 2015년에 발간하였다. 용어집은 북한 건설 경험을 보유한 전문가와의 공동작업을 통해 북한용어, 북한해설, 남한용어, 영어유사어, 분야(영역) 등을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남한용어에 상응하는 북한용어를 용이하게 찾아볼 수 있는 색인으로 '남한용어 찾아보기'를 수록하였다. 아울러 일상적인 주거생활과 관련된 남북한 용어를 비교하여 제시하고, 북한의 살림집에 대한 용어, 북한 건설 관련 법령 용어 등을 추가로 포함시켰다.

#### 7) 「남북 정보통신공사 용어 비교집」(2017) 발간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은 남측의 각종 기술자료를 분석하여 정보통신 분야 핵심 용어를 추출하고, 이에 대한 북한용어를 대응하는 방식으로 「남북 정보통신공사 용어 비교집」을 발간하였다. 이 비교집에서는 총 1,476개 남한용어에 대해 북한용어, 영어용어, 남한에서의 용어정의를 제시하였다.

### 3.3. 시사점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건설 분야 남북 협력 사업에 대한 기대에 비해 다른 모든 작업에 선행되어야 하는 용어와 기준의 정리에 있어서는 큰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국토교통부와 국토교통 분야의 연구개발을 총괄하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은 2016년 건축분야와 토목분야로 구분하여 북한 개발과 관련된 기획과제를 수행한 바 있다. 그중 북한 건축산업 인프라 개선을 위해 필요한 기반을 마련

## 주제 | 건설 분야 남북 전문용어의 연구 현황과 과제

하기 위한 기술 수요를 조사한 연구에서<sup>4)</sup> 남북한의 언어적 차이에 의한 건축재료 자재, 설계 및 시공상의 용어 차이점을 분석하여 언어장벽을 해소할 수 있는 “건축관계 용어사전집” 발간이 필요하다고 제의되었으나, 이후 실질적인 연구는 시행되지 않고 있다. 향후 건설용어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건설산업 내 산 학 연 전반을 아우를 수 있는 노력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명칭	발간 기관	발간 년도	분야	구성요소	용어 및 정의 출처	형식
남북 정보통신 공사 용어 비교집	한국 정보통신 산업연구원	2017	정보통신 (1,476개)	남한용어, 북한용어, 영어용어, 용어정의 (남한)	표준국어대사전 ITA 정보통신 용어사전 온라인백과사전 표준품셈	책자
북한건설 용어집	국토교통부 / LH 토지주택 연구원	2015	건설 전반 (5,364개)	북한용어, 북한해설, 남한용어, 영어유사어, 분야(영역)	영어-중국어-조선어 과학기술용어대사전(2003) 영조대사전(1992) 건설사전(1985) 조선말대사전(1997)	책자
남북한 건설관련 용어 사전	LH 남북 협력처	2012	건설 전반	북한용어, 의미, 남한용어(유의)	조선말대사전(1997)	책자
남북한 철도용어 비교사전	한국 철도기술 연구원	2012	철도, 물류, 무역	남한용어, 북한용어, 남한용어 뜻, 북한용어 뜻	조선말대사전(1997) 등	책자
남북한 건설 기술 (항만분야) 표준화 방안	한국 해양수산 개발원	2010	항만	남측용어, 북측 용어, 관련어, 남측 의미, 북측 의미	※ 남북한 해운항만분야의 관련 법률, 항만건설 관련 학술지, 건설기준 등에서 항만건설기술 용어 선정	책자
남북학술· 전문용어 비교사전	통일문제 연구 협의회	2007	건설, 교통, 기계, 전기 등	남쪽용어, 북쪽 용어, 관련어, 한자, 영어, 남쪽 뜻풀이, 북쪽 뜻풀이, 전문분야, 동철어, 동의어, 출처	표준국어대사전(1999) 국어대사전(1991) 철도자동화상식(1990) 과학기술대사전(2005) 조선말대사전(1992) 조선말사전(2004) 조선교통운수사(1988)	책자 (일부 온라인 서비스)
남북 과학기술 용어집	한국과학 기술단 체 총연합회	2005	건축공학 등 13개 분야	북한용어, 남한용어	조선말대사전(1997) 등	책자

[표 1] 건설 분야 남북 전문용어 관련 연구

4) 안병욱 등(2016), 「통일대비 북한 건축산업 인프라 개선을 위한 기술개발 기획 기획보고서」, 대한건축학회, 국토교통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 4. 건설 분야 남북 전문용어 연구 사례: 『북한건설용어집』발간

4장에서는 앞서 3장에서 정리한 건설 분야 남북 전문용어 관련 연구 실적 가운데 2015년 배포된 「북한건설용어집」을 작성했던 과정과 결과를 소개하고자 한다.

### 4.1. 용어집 발간 개요

국토교통부는 남한의 건설기술자 또는 학술연구자들의 북한 문헌 검토 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용어집 작성을 기획하였다. LH 토지주택연구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발주한 학술연구용역 “북한 건설 제도 및 계획현황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과업 중 하나로 북한에서 사용하는 건설 분야의 주요 용어를 정리하여 2015년 공개하였다.

### 4.2. 용어집 작성 방법과 절차

용어집 작성을 위해 북한 내 건설 용어와 관행에 정통한 중국 연변대학교 과학기술대학 연구진을 포함한 국내외 연구자들은 빈번하게 사용되는 필수 북한건설 용어를 추출하여, 그 뜻을 정리하고 분야를 구분하는 기초 작업을 진행하였다.<sup>5)</sup> 나아가 용어집 내용을 감수할 수 있는 건설 전문분야별 전문가를 유관 학회에서 추천받아 기초 작업을 보완하고 내용상 오류를 최소화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 1) 용어의 추출

정리 대상 건설 용어는 당초 용어집 제작 목적을 반영하여 북한 현지 건설산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북한건설용어 데이터는 가능한 범위에서 최신 정보·자료를 입수하여 활용하였다. 우선 국외 전문가가 1차로 용어(안)를 추출하고, 국내 연구진은 아래 세 가지 방향에서 이를 보완하였다.

- ① 국내 시방서 등 기술자료, 건축세움터와 기타 관련 법제도에서 도출된 법령용어 등을 추가하였다.
- ② 북한의 주요 건설·개발 법령 14개에서 빈번하게 나오는 용어와 남한의 관계법에 나오는 용어를 살펴 보고 법령상의 단어가 비교가능하도록 처리하였다
- ③ 국내에서 입수 가능한 북한의 학술 및 기술 자료를 보고 필요한 용어를 확인하여 누락된 경우 추가하였다.<sup>6)</sup>
- ④ 선행 건설 분야 남북 전문용어 연구실적 자료 중에서 누락된 것을 추가하였다.

5) 본 용어집은 단기간에 남북 건설 분야 전문용어를 비교분석해야 한다는 시간상의 제약과 건설에 포함된 여러 세부 분야를 포괄해야 한다는 내용상의 제약을 지닌 상태에서 제작됨. 북측 건설 전문가가 용어집 제작에 참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나, 설외가 여의치 않아 차선책으로 북한에서 건설 업무를 담당해 본 국내외 전문가의 참여를 모색함. 그 결과 남한, 북한, 국외 건설 분야를 모두 참여한 경력이 있는 전문가를 연구진에 포함시켜 작업을 진행함.

6) 주로 광명백과사전을 활용함(광명백과사전 17 (화학공업, 경공업, 건설, 운수, 제신), 2011년 발간).

## 주제 | 건설 분야 남북 전문용어의 연구 현황과 과제

### 2) 용어의 정리

학술연구자와 업계전문가들이 남북한건설용어 사용 예를 더 쉽게 파악하고, 서로 상대측 자료를 검토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 북한건설용어, 용어해설, 해당 분야를 우선 제시하고, 이에 상응하는 남한건설용어와 영문용어를 병기하였다. 북한용어와 해설은 아래의 건설 전문 문헌을 출처로 하여 정리하였다.<sup>7)</sup>

- ① 「영어-중국어-조선어 과학기술용어대사전」, 중앙과학기술통보사, 2003
- ② 「영조대사전」, 리문재 외 11인 편, 외국문도서출판사, 1992
- ③ 「건설사전」 1, 2, 3, 과학 백과사전출판사, 1985
- ④ 「조선말대사전」, 사회과학출판사, 1997

### 3) 내용의 검증

용어집(안)을 마무리하는 단계에서는 건설 분야 유관 학회의 협조를 받아 용어집 구성과 내용을 보완하고자 하였다. 즉 향후 본 용어집에 대한 후속작업에서의 연속성을 도모하면서, 예상되는 남북 공동작업에 있어서는 유관 학회와 협회가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도록 한다는 장기적인 비전을 설정하고, 대한건축학회와 대한토목학회의 직 간접적인 협력 하에 검증을 진행하였다.

대한건축학회에서는 설계 역사 조경 도시와 교통, 시공 재료 관리 유지관리, 설비 분야에 대한 전문가 3인을, 대한토목학회에서는 토목 전반에 대한 용어 검토가 가능한 전문가 3인을 추천하였다. 학회에서 추천받은 분야별 전문가들에게는 해당 분야 용어와 해설을 배포한 후 아래 기준에 따라 감수하도록 안내하였다.

- ① 북한용어에 대응하는 남한용어, 영문용어의 적정성 검토
  - 북한용어와 해설을 참고하여 그에 상응하는 남한용어와 영문용어 적정성 검토
  - 누락된 남한용어와 영문용어 추가
- ② 분야별 주요 용어 누락여부 확인
  - 담당분야에서 필수적인 단어가 누락된 경우, 추가해야 하는 용어로 제안

7) 당초 계획에서는 용어에 대한 남측 사전의 해설을 포함시키고자 하였으나, 건설 용어 사전을 제공하는 업체와의 협의가 여의치 않아 이번 작업에서는 제외되었다.

### 4.3. 전문분야 구분

「북한건설용어집」에는 건축분야(설계, 구조, 시공, 관리) 관련 용어를 비롯하여 토목, 도시 교통, 조경, 기계, 전기 전자 등의 전문분야에 포함된 용어 5,364개가 수록되었다. 건설 분야의 전체 전문분야 대비 금번 용어집 용어들의 해당 전문분야를 표기하면 아래 표와 같다. 건설 분야에 포함되는 총 10개 전문분야, 47개 영역 중 7개 전문분야, 23개 영역에 해당하는 용어들이 용어집에 포함되었다<sup>8)</sup>.

전문분야	영역	선택	영역	선택
기계 (5)	1) 공조냉동 및 설비	△	2) 건설기계	△
	3) 용 접	△	4) 승강기	△
	5) 일반기계			
전기·전자 (3)	1) 철도신호		2) 건축전기설비	△
	3) 산업계측제어			
토목 (12)	1) 토질·지질	△	2) 토목구조	△
	3) 항만 및 해안	△	4) 도로 및 공항	△
	5) 철도·삭도	△	6) 수자원개발	
	7) 상하수도	△	8) 농어업토목	
	9) 토목시공	△	10) 토목품질관리	
	11)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	12) 지적	
건축 (6)	1) 건축구조	△	2) 건축기계설비	△
	3) 건축시공	○	4) 실내건축	
	5) 건축품질관리	△	6) 건축계획·설계	○
광업 (2)	1) 화약류관리		2) 광산보안	
도시·교통 (2)	1) 도시계획	△	2) 교통	△
조경 (2)	1) 조경계획	△	2) 조경시공관리	△
안전관리 (4)	1) 건설안전	△	2) 소방	
	3) 가스		4) 비파괴검사	
환경 (7)	1) 대기관리		2) 수질관리	
	3) 소음진동		4) 폐기물처리	
	5) 자연환경		6) 토양환경	
	7) 해양			
건설지원 (4)	1) 건설금융·재무		2) 건설기획	
	3) 건설마케팅		4) 건설정보처리	

[표 2] 용어집 작성 해당 전문분야

8) 전문분야와 영역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의 [별표 1] 건설기술자의 범위(제4조 관련) (건설기술자의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를 재편집함.

## 주제 | 건설 분야 남북 전문용어의 연구 현황과 과제

전체 용어를 이러한 전문분야와 영역에 따라 분류하여 보면, 특정 전문분야에 포함되지 않는 공통분야의 용어가 50% 가까운 비율(46.0%, 2,465개)을 차지하고, 건축분야(26.5%, 1,421개)와 토목분야(13.9%, 743개)가 뒤를 잇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분야	영역	개수	분야비율(%)	영역비율(%)
공통	일반	201	3.7	8.2
	설계	96	1.8	3.9
	구조	647	12.1	26.2
	재료	610	11.4	24.7
	시공	685	12.8	27.8
	건설기계	72	1.3	2.9
	건설관리 및 지원	109	2	4.4
	역사	45	0.8	1.8
	소계	2,465	46.0%	100.0%
건축	건축일반	139	2.6	9.8
	건축계획 및 설계	356	6.6	25.1
	건축재료	255	4.8	17.9
	건축시공	287	5.4	20.2
	건축설비	375	7	26.4
	유지관리	9	0.2	0.6
	소계	1,421	26.5%	100.0%
토목	토목일반	99	1.8	13.3
	토목재료	5	0.1	0.7
	토목시공	149	2.8	20.1
	토질 및 지질	125	2.3	16.8
	항만 및 해안	72	1.3	9.7
	도로 및 공항	47	0.9	6.3
	교량	48	0.9	6.5
	철도 및 석도	21	0.4	2.8
	수자원개발	79	1.5	10.6
	상하수도	61	1.1	8.2
	농어업토목	7	0.1	0.9
	측량, 지형정보, 지적	30	0.6	4
	소계	743	13.9%	100.0%
도시 및 교통	도시계획	72	1.3	81.8
	교통	16	0.3	18.2
	소계	88	1.6%	100.0%
조경	조경	30	0.6	-
기계	기계	8	0.1	-
전기	전기	24	0.4	-
기타	기타	585	10.9	-
총계		5,364	100.0%	-

[표 3] 용어집 정리 용어 개수(전문분야와 영역별)



#### 4.4. 용어집의 구성과 정리 형식

용어집 제작과정에서는 기초자료를 MS Excel 형식으로 작성하여, 추후 필요에 따라 한국어, 영어, 전문분야 등으로 용이하게 재정렬할 수 있도록 편집하였다. 또한 기초자료에 관련 문헌의 출처를 명기하여 개정에 대비하도록 조치하였다.

##### 1) 용어집의 전체 구성

북한건설용어집은 총 3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장의 목차는 아래와 같다. 전체 용어에 대한 해설은 3장에 포함시키되, 2장에서 생활용어, 분야별 용어, 법령 용어 등 주요 용어를 별도로 정리하였다.

1장. 들어가며 1. 발간사 2. 일러두기(유의사항)	2장. 주요 북한건설용어 1. 북한건설용어의 특징 2. 주거환경용어 상호비교 3. 분야별 주요 용어 4. 건설 관련 법령 용어 해설	3장. 북한건설용어집 1. 용어집 2. 남한용어 찾아보기
-------------------------------------	---	---------------------------------------

2장에서는 우선 3장 용어집의 내용을 바탕으로 높은 우리말 사용빈도와 다양한 외국어 영향과 같은 북한건설용어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주거환경 용어의 경우 건설전문가를 비롯하여 일반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자료로 판단되는 주거생활 관련 남북 용어를 비교 정리하였다. 이를 위해 공동주택 평면과 단지 내에서 빈번하게 접하는 일상적인 건설 관련 용어를 비교하고, 북한에서 주택에 해당하는 살림집 관련 용어를 유형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분야별 주요 용어의 경우 남북 용어 비교에서 두드러진 차이를 보이는 용어들을 공통분야, 토목분야, 건축분야, 기타분야 등 4개 전문분야별로 정리하였다. 마지막으로 건설 관련 법령 용어 해설의 경우 북한 법령의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는 취지에서 총 14개 북한 건설·개발 법령에 포함된 북한건설용어를 나열하였다. 법령 해석과 내용 이해를 위해 필요시 일반용어도 추가하였으며, 북한건설용어집에도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었는지 확인하였다.

3장에 포함된 북한건설용어는 북한의 자음과 모음 순서를 따르지 않고 우리말 순서에 따라 정리하였다. 또한 남한용어에 상응하는 북한용어를 보다 용이하게 찾아볼 수 있는 색인으로서 ‘남한용어 찾아보기’를 추가하였다.

## 주제 | 건설 분야 남북 전문용어의 연구 현황과 과제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건설법

주체82(1993)년 12월 10일 최고인민회의 법령 제20호로 채택  
 주체88(1999)년 1월 1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50호로 수정보충  
 주체90(2001)년 9월 27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593호로 수정보충  
 주체91(2002)년 6월 2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115호로 수정보충  
 주체95(2006)년 9월 1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968호로 수정보충  
 주체96(2007)년 12월 1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482호로 수정보충  
 주체98(2009)년 8월 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05호로 수정보충  
 주체100(2011)년 10월 25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917호로 수정보충

#### 제1장 건설법의 기본

**제1조(건설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건설법은 건설총계획작성과 실현, 건설설계와 시공, 건설물의 준공검사에서 규율과 질서를 세워 사회주의적확대재생산의 높은 속도를 보장하고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높이는 데 이바지한다.

**제2조(건설분야의 기본원칙)**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올바른 건설정책에 의하여 도시와 농촌건설, 항만건설, 관개건설 같은데 큰 힘을 넣어 만년대계의 기념비적건축물과 현대적인 공장, 기업소, 살림집, 시설물을 수많은 인민들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조건을 훌륭히 보장하여주고 있다. 국가는 건설부문에서 이러한 성과를 공고히 하며 생산적건설과 비생산적건설의 균형을 보장하면서 도시살림집과 농촌문화주택을 국가부담으로 건설하여 준다.

**제3조(건설의 계획화원칙)** 건설은 항구적으로 계속되는 중요한 사업이다. 국가는 건설을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전망성있게 계획적으로 진행한다.

**제4조(건설의 주체성원칙)** 건설을 인민들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하는것은 국가가 견지하고 있는 일관한 원칙이다. 국가는 건설을 나라의 구체적현실과 자연지리적조건, 인민들의 수요와 생활감정, 풍습에 맞게 하도록 한다.

**제5조(건설의 집중화, 효과성제고원칙)** 국가는 건설에서 선하부구조, 후상부구조건설원칙을 철저히 지키며 조수 대신 거석에 연관을 지주하여 거석물의 조어기원을 보장하고

#### [ 기업소 ]

생산, 교통, 운수, 유통 따위의 경제 분야에서 독립적으로 경영 활동을 진행하는 사업체

#### [ 살림집 ]

가정을 단위로 하여 사람들이 살림을 하는 집

#### [ 농촌문화주택 ]

농민들의 생활에 편리하도록 야담하고 일터하며 문화적으로 규모있게 꾸려진 농촌의 살림집

[그림 2] 북한 건설 관련 법령과 용어해설

2 남한용어 찾아보기		02 북한건설용어집	
(가)		가설재료 ..... 61	간막이벽 ..... 334
가거(街渠) ..... 59	가설조명 ..... 61	간막이벽마감 ..... 256	
가건물 ..... 61	가설조명하중 ..... 61	간막이벽판 ..... 257	
가공과정 ..... 59	가설포장 ..... 164	간선도로 ..... 64	
가공전정 ..... 171	가소성 ..... 61	간선지계획 ..... 64	
가고 ..... 136	가소수량 ..... 62	간섭 ..... 64	
가구 ..... 59	가스관 ..... 62	간접난방 ..... 64	
가기둥 ..... 59	가스시설 ..... 62	간접노루 ..... 64	
가냉공간 ..... 59	가스설리케이트 ..... 62	간접비 ..... 64	
가냉보 ..... 59	가스용접 ..... 62	간접조도 ..... 64	
가는모래 ..... 288	가스절단 ..... 62	간접조명 ..... 64	
가면 표제어 ..... 376	가스콘크리트 ..... 62	간접측정 ..... 64	
	가습 ..... 97	간조(干潮) ..... 251	
	가습기 ..... 97	간조위(干潮位) ..... 253	
	가시광선 ..... 62	갈바니부식 ..... 293	
	가시선계획 ..... 207	감광보상율 ..... 64	

[그림 3] 남한용어 찾아보기 색인

## 2) 용어 정리 양식

『북한건설용어집』 3장의 용어집은 북한과 남한의 기술용어를 병기하여 비교가능하도록 양식을 작성하였다.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북한용어에 대한 해설을 우선 기술하고, 해당 용어에 상응하는 남한용어, 영문용어 순으로 정리하였다.

용어집에 사용된 기호로서 북한용어 중 유사어는 “〔유〕” 다음에 표기하고, 남한용어는 “〔남〕” 뒤에, 영문용어는 “〔영〕” 뒤에 적었으며, 용어해설에서 유사어가 용어집 내에 있는 경우 ㉠로 찾아가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북한용어는 남한의 자음 순서에 따라 용어를 배열하였으며<sup>9)</sup>, 북한용어 해설은 북한에서 실제로 적용되는 맞춤법을 준용하여 수록함에 따라 띄어쓰기, 사이시옷 사용, 두음법칙 적용 등 남한과 다르게 쓰이는 북한말의 특징에 대해서도 별도로 기술하여 용어집 활용에 참고하도록 하였다<sup>10)</sup>.

북한용어	
북한용어 해설	〔유〕 유의어 또는 ㉠ 관련어
〔남〕 남한용어	
〔영〕 영문용어	
가시대	
부엌이나 조리칸에서 그릇이나 식료품을 물에 씻는 일을 편리하게 할 수 있게 만든 대	
〔남〕 개수대, 싱크대	
〔영〕 sink	

[표 4] 용어집 양식과 정리 사례

## 4.5. 북한 건설 분야 용어의 특징과 주거 전문용어

### 1) 북한 건설 분야 용어의 특징

북한에서는 ‘주체적인 우리말과 글의 발전 정책’을 통해 용어들을 순수 우리말로 다듬는 과정에서 기술용어들이 많은 변화를 겪음에 따라 남한말에 비해 상대적으로 순우리말의 사용빈도가 높다. 다른 한편으로는 1980년대 후반 들어 오랫동안 써오면서 굳어진 외래어나 한자용어는 본래대로 사용하는 정책을 실시하여, 순수 우리말과 외래어, 한자용어를 어느 정도 같이 쓰고 있다.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하도, 내구성, 환기, 트리스, 방음벽, 내한성 등 남한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이 건늬굴길, 오래견딜성, 공기갈이, 살틀, 소리막이벽, 추위견딜성 등 우리말로 대체되어 사용되고 있다.

9) 북한말의 자음 배열순서(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ㅈ, ㅊ, ㅋ, ㅌ, ㅍ, ㅎ, ㄲ, ㄳ, ㄴㅅ, ㄷㅌ, ㄹㅁ, ㄷㅂ, ㄷㅅ, ㄷㅈ, ㄷㅊ, ㄷㅋ, ㄷㅌ, ㄷㅍ, ㄷㅎ)가 아닌 남한의 자음 배열순서(ㄱ, ㄲ, ㄴ, ㄷ, ㄸ, ㄹ, ㅁ, ㅂ, ㅃ, ㅅ, ㅆ, ㅈ, ㅊ, ㅋ, ㅌ, ㅍ, ㅎ)를 따랐음.

10) 그 외 ~되어: ~ 되어, 결수: 계수, 잇손: 이음, 짐: 하중, ~우: ~위 (앞에 띄어쓰기 없음) 등 빈번하게 반복되는 부분도 따로 안 내함.

## 주제 | 건설 분야 남북 전문용어의 연구 현황과 과제

북한용어	북한용어해설	남한용어
건능굴길	지하로 난 건능길	지하도
건물오래 견딜성	건물이 물리적마모로부터 오래 견디는 특성으로 기본힘반이구조물들의 견딤 능력에 따라 평가됨	건물내구성
공기갈이	방안의 흐린 공기를 빼고 맑은 공기를 갈아넣는 일	환기
살틀	직선막대들로 되어있으며 모든 마디들에서 돌이로 연결된 막대계 ㉠ 트라스	트러스
소리막이벽	소리의 전파를 막는 벽	방음벽
추위견딜성	0°C이하의 낮은 온도에서도 본래의 성질을 유지하려는 재료의 성질	내한성

[표 5] 북한용어의 우리말 사용 예

또한 북한 기술용어에서는 일본어와 러시아어의 영향을 받은 용어가 다수 있다. 특히 해방과 한국전쟁 이후 러시아의 지원을 받아 복구하는 과정에서 러시아의 기술용어가 영향을 미쳤으며, 많은 표현들이 러시아의 발음형태를 띠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호용 등, 1999).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트랙토르, 레루, 마르까, 썩찌야 등 외국어에 근원을 둔 일부 용어들이 전문용어로 활용되고 있다.

북한용어	북한용어해설	남한용어
고마르까세멘트 (高marka cement)	마르까(석재, 몰탈, 콘크리트, 강철과 같은 짐을 받는 건설자재의 세기의 크기를 나타내는 기준으로 평균 압축세기)가 높은 질 좋은 세멘트	고압축강도 시멘트
노메르	차레를 나타내는 호수(號數) ㉠ 번호	번호
대형트락토르	50HP이상의 출력을 가진 트랙토르	대형트랙터
레루	철도차량의 바퀴가 타고 굴러가는 궤도의 기본구성요소로 철길에 가는 일정한 모양으로 된 긴 강쇠 ㉠ 철길	레일, 철도 선로
마르까	석재, 몰탈, 콘크리트, 강철과 같은 짐을 받는 건설자재의 세기의 크기를 나타내는 기준	기준세기
썩찌야식	한 개의 공동계를 중심으로 한층에 몇 개 세대씩 살림집단위를 연결하여 짓는 건설방식	홀형

[표 6] 외국어 영향을 받은 북한용어 예

## 학술 발표 5 | 송상훈

### 2) 주거환경용어 상호 비교

주거생활에서 익숙한 용어들에 대해 남북한 용어를 상호비교한다는 의미에서 아파트를 중심으로 주택 내외부에서 적용되는 용어를 검토하였다. 아래 표는 이러한 용어를 정리한 것이고, 그림은 일반적인 아파트 평면에 이들을 도식화한 것이다.

남한용어	북한용어	남한용어	북한용어
아파트	아빠트	난간	계단란간
주택	살림집	옥내소화전	옥내소화전
거실	공동살림방	승강기	승강기
응접실	손님맞이방, 접대실	초인종, 벨	전기종
침실	살림방	욕조	목욕통
식당	식사실	세면대	세면대
주방, 부엌	부엌(방)	변기	변기
화장실	위생실	화장지	위생종이
발코니	발코니	스위치	전기여닫개
베란다	내밌대, 내민층대	커튼	창가림막, 주름막, 카텐
계단	계단, 층대, 층층대, 디대	창	창바라지
싱크, 개수대	가시대	텔레비전	텔레비존
가스렌지	가스곤로	형광등	반디빛등
프라이팬	볶음판, 지짐판	옷걸이	옷걸개
냉장고	랭동기, 랭동고	헤어드라이어	머리건조선풍기
전기믹서	전기분쇄기	세탁기	세탁기
에어컨	랭풍기	진공청소기	흡진기
전기밥솥	전기밥가마	주차장	차마당
오븐레인지	지짐곤로	중앙난방	구획난방
층고	층높이, 층고	비상계단	비상계단
창고	창고	비상구	비상구
통풍	바람갈이	비상등	비상등
환기	환기, 공기갈이	초등학교	인민학교
가게	가가	탁아소	애기궁전
가로수	거리나무	피뢰침	벼락촉
건널목, 횡단보도	건늬길	청결차	쓰레기차
산책로	유보도, 거넬길	서랍	빠람
생활 필수품	인민소모품	세탁소	빨래집
상들리에	무리등, 장식등	에스컬레이터	계단승강기, 자동계단

[표 7] 아파트(고층살림집) 중심의 주거생활 관련 건설용어 비교

## 주제 | 건설 분야 남북 전문용어의 연구 현황과 과제



[그림 4] 주거공간 내 남북 용어 비교

### 4.6. 건설 분야 남북용어의 비교 분석

#### 1) 비교 분석의 기준

남북 건설 분야 언어의 통합을 위해서는 단순한 용어의 비교에서 나아가 추가적인 작업이 요구되는 용어와 작업유형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5,364개의 전문용어에 대해 남북의 언어가 얼마나 어떻게 다른지를 분석하였다. 남북간 전문용어를 비교분석하는 유형은 신중진 등(2016)을 참조하여 아래 표와 같이 설정하였다.

유형	구분	설명
등가형	AA	남북이 동일 개념, 동일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
	Aa	동일한 개념을 지칭하되 외래어 표기법이나 맞춤법, 기타 어문규범의 차이로 형태적 차이를 보이는 용어 대응관계
준등가형	AB	1 전문용어가 동일한 개념을 지칭하는 어휘로 구성되어 있지만 그것이 언어 내 또는 언어 간 동의어로 표현된 경우
	2	전문용어의 개념이 서로 다르게 명칭화되어서 각 용어의 구성요소들이 일대일로 대응되지 않는 경우
비대응형	AO	남북 간 대응 전문용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표 8] 전문용어 유형 구분



## 학술 발표 5 | 송상훈

### 2) 1차 분석

용어집 내의 단어들에 대해 우선 파악하기가 용이한 등가형 단어(AA형)와 비대응형 단어(AO형)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전체 용어 중 7.9%에 해당하는 422개의 북한용어는 그에 대응하는 남한용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	영역	전체 개수	AO형		AA형		
			개수	비율	개수	비율	비율
공통	일반	201	25	12.4%	103	51.2%	58.5%
	설계	96	8	8.3%	45	46.9%	51.1%
	구조	647	46	7.1%	299	46.2%	49.8%
	재료	610	32	5.2%	260	42.6%	45.0%
	시공	685	56	8.2%	295	43.1%	46.9%
	건설기계	72	6	8.3%	30	41.7%	45.5%
	건설관리 및 지원	109	15	13.8%	68	62.4%	72.3%
건축	역사	45	6	13.3%	23	51.1%	59.0%
	소계	2,465	194	7.9%	1,123	45.6%	49.4%
	건축 일반	139	11	7.9%	43	30.9%	33.6%
	건축계획 및 설계	356	26	7.3%	154	43.3%	46.7%
	건축재료	255	29	11.4%	118	46.3%	52.2%
	건축시공	287	28	9.8%	124	43.2%	47.9%
	건축설비	375	12	3.2%	197	52.5%	54.3%
	유지관리	9	0	0.0%	8	88.9%	88.9%
	소계	1,421	106	7.5%	644	45.3%	49.0%
	토목 일반	99	9	9.1%	44	44.4%	48.9%
토목	토목재료	5	0	0.0%	3	60.0%	60.0%
	토목시공	149	12	8.1%	76	51.0%	55.5%
	토질 및 지질	125	4	3.2%	74	59.2%	61.2%
	항만 및 해안	72	4	5.6%	33	45.8%	48.5%
	도로 및 공항	47	1	2.1%	26	55.3%	56.5%
	교량	48	4	8.3%	18	37.5%	40.9%
	철도 및 석도	21	2	9.5%	7	33.3%	36.8%
	수자원개발	79	5	6.3%	32	40.5%	43.2%
	상하수도	61	6	9.8%	34	55.7%	61.8%
	농어업토목	7	0	0.0%	5	71.4%	71.4%
	측량/지형정보/지적	30	1	3.3%	22	73.3%	75.9%
	소계	743	48	6.5%	374	50.3%	53.8%
도시 및 교통	도시계획	72	6	8.3%	40	55.6%	60.6%
	교통	16	1	6.3%	7	43.8%	46.7%
	소계	88	7	8.0%	47	53.4%	58.0%
조경	조경	30	1	3.3%	19	63.3%	65.5%
기계	기계	8	0	0.0%	1	12.5%	12.5%
전기	전기	24	1	4.2%	15	62.5%	65.2%
기타	기타	585	65	11.1%	326	55.7%	62.7%
총 계		5,364	422	7.9%	2,549	47.5%	51.6%

[표 9] 남북 건설 분야 전문용어 유형



## 주제 | 건설 분야 남북 전문용어의 연구 현황과 과제

또한 등가형 중에서 AA형의 정의에 맞는 용어는 전체의 51.6%인 2,549개였다. 전문분야별로 50% 내외의 용어는 북한용어와 남한용어의 형태와 의미가 어느 정도 일치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 3) 2차 분석

1차 분석 후에는 언어 통합에 있어 핵심이 되는 비등가형 용어에 대한 분석이 이어져야 한다. 예를 들어 100개 이상의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 영역 가운데, 등가형 중 AA형의 비율이 가장 높은 공통분야의 ‘건설관리 및 지원’ 영역에 대한 추가 분류결과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남북 간에 사용하는 용어가 같은 경우(AA형)가 62.4%였고, 여기에 맞춤법이나 어문규범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Aa형(기본로임(북)↔기본노임(남), 설계예산리윤(북)↔설계예산이윤(남))을 포함하면 등가형이 65% 가까운 수치를 보였다.

동일 개념을 지칭하되 그 용어의 형태가 다른 준등가형의 경우 동일한 개념을 지칭하는 어휘로 구성되어 있지만 그것이 언어 내 또는 언어 간 동의어로 표현된 경우(AB-1형)가 8.3%, 각 용어의 구성요소들이 일대일로 대응되지 않는 경우(AB-2형)가 13.8%를 차지하였다. 대응어가 없는 용어(AO형)는 총 15개(13.8%)로 나타났다. AB-2와 AO에 해당되는 30개의 단어의 경우 추가적인 작업이 요구된다.

유 형	구 분		개 수	비 율
등가형	AA		68	62.4%
	Aa		2	1.8%
준등가형	AB	1	9	8.3%
		2	15	13.8%
비대응형	AO		15	13.8%
총 계			109	100.0%

[표 10] ‘건설관리 및 지원’ 영역의 유형 구분

준등가형 중 언어 간 동의어로 지칭된 동일개념의 남북 전문용어(AB-1형)에 해당하는 사례에는 아래 표와 같은 것들이 있었다. 또한 서로 대응하는 남북 용어들이 전혀 다른 형태를 보이고 있는 경우(AB-2형)인 15개 용어에 대해서는 권재일(2015)이 논의한 바와 같이 남북 전문가들의 토론을 거쳐 ①남한 어휘로 단일화하거나, ②북한 어휘로 단일화하거나, ③제3의 새로운 어휘를 제시하거나, 또는 ④남한과 북한의 어휘를 복수 어휘로 선정하도록 한다.

## 학술 발표 5 | 송상훈

북한용어	남한용어	북한용어	남한용어
간접로력	간접노무	건설주	건축주
건설대	건설사	기준단위	표준단위
건설액	건설비	대휴로력	대휴노동
건설자, 시공주	시공사	직영건설	직영공사

[표 11] 준등가형 용어 사례(일부)

### 4.7. 「북한건설용어집」의 활용

상호 이질적인 용어에 대한 이해는 남북 협력을 진일보하게 하고 건설 분야 발전을 촉진하는 기초가 된다. 상호 교류가 늘어나면 장기적으로는 상이한 용어의 사용이 줄어들면서 통일된 전문용어를 활용하는 방향에 수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건설용어집」의 효과를 분석하고, 이를 확대 개편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된다. 용어집은 북한의 건설 관련 문헌에 대한 이해를 지원하고, 상호 공동작업에 있어 효율적 의사소통의 기반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되었다. 따라서 향후 남북 건설 분야 학자와 실무전문가를 중심으로 공동 위원회를 구성하여 이 연구에서 정리한 작업을 확대 보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용어집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책자 외에 온라인을 통한 다양한 서비스 방법을 검토하도록 한다.



[그림 5] 결과물의 온라인 서비스 사례

### 5. 향후 과제

건설과정에는 시설물 유형과 사업 특성에 따라 다양한 기준과 제도가 융합되어 적용된다. 남북 건설 분야 전문용어 관련 연구에는 이러한 건설과정의 특성을 반영한 내용이 충분히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향후 남북 간 건설 분야 전문용어 통합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전략이 필요하다.

#### 5.1. 건설 분야 전문용어 통합을 위한 과제

##### 1) 전문분야 간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

“건설 분야” 하에는 건축, 토목, 도시계획, 철도, 도로, 수자원, 국토정보화, 행정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전문분야가 존재한다. 따라서 용어 통합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남북 정부 주도 하에 건설 분야 전체 학회와 협회의 협조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공동의 목표 아래 총괄적인 작성 기준을 마련한 후 하위 전문분야별로 작업을 시행하는 것이 요구된다. 또한 전문분야별 작업이 완료된 후 공통된 용어를 정의하고, 중복되거나 특정 용어의 의미가 여러 개인 용어는 추가로 편집하도록 한다.

##### 2) 심화 언어 통합작업 진행

현재까지 건설 분야 전문용어 정리작업은 단순히 관련된 용어를 나열하고 남북의 용어를 비교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향후 보다 심화된 언어 통합 과정을 거쳐 누락되거나 혼란을 일으키는 용어가 없도록 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북한 건설산업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북한 자료의 입수도 늘어나고 있다. 지금까지는 남측 자료에만 의존하여 용어를 추출하는 경우가 많았었지만,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북한의 시방서나 절차서와 같은 건설기준, 기술제도 관련 자료를 통해 필요한 용어들을 보다 직접적으로 추출하여 비교하는 작업을 기존 절차에 추가할 수 있을 것이다.

##### 3) 일반 언어 통합 기준의 준용

남북의 언어 환경은 특수하고 복잡한 상황에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신중진(2016)<sup>11)</sup>이 지적한 바와 같이 전문용어는 남북의 일반언어 통합 방안이라는 큰 틀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전문용어의 특성을 고려할 때 표기법, 외래어에 대한 처리는 매우 중요하며, 분야별 전문용어 통합안보다 상위 차원에서 결정된 사항을 따라야 할 것이다.

11) 신중진(2016), 2016년 남북 전문용어 구축, 국립국어원.

## 5.2. 통합 언어 확산을 위한 과제

### 1) 건설 분야 남북 교류 기회 확대

이찬규 등(2014)과 이대성(2015)에서 제시된 남북 언어 통합 종합 계획에서 나온 바와 같이 남북 언어 통합을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정부와 민간 차원의 교류 활성화가 필요하다. 또한 남북 건설 분야 언어 통합을 위한 대안이 마련된 뒤에도 서로 간에 충분한 교류가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교류는 상호 이해도를 높이고 언어 차이를 신속하게 해소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건설 분야 남북 학자간의 다양한 공동연구 수행, 보고서 작성, 논문 발표 등을 통한 학술적 교류 기회와 기술자 사이의 실용적 교류를 확대해야 한다.

### 2) 교육을 통한 통합 용어의 확산 도모

건설 관련 업무와 작업은 다양한 장소에서 수행되며, 남북 기술자와 노무자가 함께 일하는 현장과 사무실이라면 전문용어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의 용어까지 복합되어 안내하는 것이 초기 단계의 갈등과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고 효율을 높일 수 있는 핵심방안이 될 것이다. 또한 북한 내 건설현장 투입 시 전문용어를 포함한 언어에 대해 별도의 교육을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사전 교육은 북한 노무자가 남한으로 와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실시하도록 한다. 또한 단일화한 전문용어를 고등교육 내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남북의 대학교육 프로그램과 교재에 반영하는 등의 방법으로 새롭게 육성되는 건설인력들 사이에는 의사소통이나 자료 작성과 이해에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한다<sup>12)</sup>.

12) 북한의 건설 관련 교육은 5~5.5년 과정 수료 후 기사 자격을 취득하거나, 1년 현장 체험 후 설계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건설건재대학, 4년 과정 수료 후 현장 기사자격을 취득하는 건설단과대학, 3년 과정 수료 후 고급 기능공인 준기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고등건설전문학교 등에서 이루어지며(김효진 등, 2017), 이들 교육과정과 교재에 통합 용어를 반영하도록 함.

## 주제 | 건설 분야 남북 전문용어의 연구 현황과 과제

### 참고 문헌

- 김두환 등(2015), 「북한건설용어집」(북한 건설 개발제도 및 계획현황 연구), 국토교통부 LH 토지주택연구원.
- 김철환 등(2015), 「2014년도 남북 정보통신 교류협력 촉진사업 결과보고서:남북 ICT 표준화 방안 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김호용 등(1999), 전력분야 남북한 용어비교 연구조사(정책 연구 사업), 과학기술부 한국전기연구소.
- 김효진 등(2017), 「남북개발협력 대비 북한 건설인프라 상세현황 분석 및 LH의 참여전략 도출」, LH 토지주택연구원.
- 대한건설정책연구원(2015), 「남·북한 건설협력사업 검토 및 시사점」, 대한건설정책연구원.
- 박용석(2016), 「한반도 통일이 건설산업에 미치는 영향」,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박용석 등(2008), 「북한 SOC 시장 진출 및 투자 활성화 방안 연구」, 대한건설협회.
- 신민영과 최문박(2015), 독일 통일로 본 통일 경제의 주요 이슈, 「LG Business Insight」, LG경제연구원.
- 신중진(2016), 「2016년 남북 전문용어 구축」, 국립국어원.
- 안병옥 등(2016), 「통일대비 북한 건축산업 인프라 개선을 위한 기술개발 기획 기획보고서」, 대한건축학회, 국토교통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 이대성(2015), 국립국어원 남북 언어 통합 사업의 현황과 과제, 「광복 70주년 기념 겨레말 통합을 위한 국제학술회의」, 국립국어원.
- 이상준 등(2008), 「한반도 공동번영을 위한 국토분야의 대응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 최기선 등(2005), 「21세기 세종계획 전문용어의 정비」, 국립국어원.
- 통일문제연구협의회(2007), 「남북학술 전문용어 비교사전」, 통일문제연구협의회.
- 표창균 등(2017), 「남북 정보통신공사 용어 비교집」,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
-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2005), 「남북 과학기술 용어집」,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 한국전기연구소(1999), 「전력분야 남북한 용어비교 연구조사」, 과학기술부.
- 나희승 등(2012), 「남북한 철도용어/남북물류용어 비교사전」,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한국토지공사(1996), 「한영대조 토지개발용어사전」.
- 한국토지주택공사(2012), 「남북한 건설 관련 용어사전」.
- 한국해양수산개발원(2010), 「남북한 건설기술 (항만분야) 표준화 방안」, 국토해양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제15차 남북 언어 통합을 위한

## 국제학술회의

### 분야별 남북 전문용어 연구의 현황과 과제

---

발 행 인 소강춘

기획·편집 정호성·박선

발 행 일 2018. 10. 26.

발 행 처  국립국어원

서울시 강서구 금남화로 154

<http://www.korean.go.kr>

디 자 인 (주)유니원커뮤니케이션즈

인 쇄 (주)상상그래픽스

※ 저작권법 보호를 받는 간행물이므로 어떠한 형태로든 무단 전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